

최 종  
연구보고서

# 농촌지역의 양성평등 실현방안

2000. 12.

연구기관

충남대학교 여성정책연구소

농 립 부

# 농촌지역의 양성평등 실현방안

2000. 12.

주관연구기관명 : 충남대학교 여성정책연구소

총괄책임자 : 책임연구원 임 선 희

연구참여자 : 선임연구원 이 영 세

: 선임연구원 권 정 숙

: 연구원 이 경 하

: 연구원 전 혜 영

: 연구원 서 수 경

이 연구는 농림부에서 「농촌지역의 양성평등 실현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실시한 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충남대학교 여성정책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 연구 요약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주류화를 목적으로 생산의 주역, 가사의 전담자, 지역사회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담당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적이고 소외되어 있는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농촌지역 여성의 불평등한 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실천적 전략을 세우고자 한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과 농업·농촌사회의 변화에 따라 농촌지역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비중이 크게 변화되어 왔다. 즉, 농촌의 청·장년층이 도시로 이동하고 농업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농업 생산자로서의 여성농업 노동력의 중요성은 크게 증대되고 있다. 더욱이 2000년대 이후에는 농가인구가 10%이하로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은 농업 생산의 기간 노동력으로서의 역할을 더 많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생산의 참여, 가사노동 등의 역할이 남성 못지 않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무보수 가족노동자, 농업 보조자로서 단순 노동만을 제공하는 주변적 노동력으로 간주될 뿐이며, 전문적인 농업인력, 평등한 가족구성원, 참여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농촌여성·여성농업인 스스로도 농촌 생활을 주체적으로 선택한 것이라기 보다는 농가 경제의 궁핍함을 덜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농사일을 하는 것이 소극적이고 불가피한 자구책으

로 보는 경향이 많다. 여기에는 농업의 주변적 위치나 농촌의 사회 문화적 후진성 등의 일반적인 요인 뿐 아니라 농촌 내에서도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된 집단으로서의 여성의 위치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에 본격적인 개방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앞으로의 농업은 필수적으로 자본집약적인 농업, 기술 농업의 방향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농업 노동력의 근간을 이루는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농업·농촌의 어려움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를 통해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정당한 지위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어 왔던 농촌지역에서의 성불평등 현황을 파악하고, 궁극적으로는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이 변화의 주체가 되어 식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많은 장애를 극복하고 차별을 해소하여 양성평등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공동체를 가꾸어 가는 주역이 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지역의 남녀 불평등 의식 및 관행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하여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현실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농촌지역의 양성 평등을 저해하는 요인 분석을 통하여 법·제도 및 정책 제안의 기초자료를 개발하고자 한다.

셋째,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농업 생산 활동과 가사노동 평가를 위하여 농촌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자 한다.

넷째, 농촌연구 전문가, 농촌지역 소모임 활동관련 전문가회의 및 포럼개최를 통하여 양성평등 실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섯째, 농촌지역 남녀 농업인 대상 양성평등 의식화를 위한 「농촌형 양성평등 교육모형」을 개발·제안하고자 한다.

여섯째, 국내·외 농촌의 양성평등 사례 발굴을 통하여 농촌지역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위의 여섯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을 제시하고, 연구의 내용과 방법을 설명하였다.

제2장은 우리 농촌여성의 삶을 농업생산구조 변화와 농촌여성·여성농업인,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일과 학습,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활동, 농촌지역의 전통적 남녀차별 문화 등을 통해 조명하고 있다.

제3장은 농촌지역 양성평등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 분석으로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지와 군부 여성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지의 응답결과를 농업생산구조 변화와 농촌여성·여성농업인,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일과 학습,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활동, 농촌지역의 전통적 남녀차별 문화 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4장은 양성평등 실천사례로 국외와 국내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제5장은 농촌지역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을 통한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농촌여성의 복지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문화·지역사회활동 확대를 위한 기반구축, 농촌지역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평등가정의 구현이라는 다섯 가지 기본방향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 국내외 관련문헌연구
- 농촌지역 농업인과 군부 여성담당공무원\* 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 면담 및 사례연구
- 대중매체를 통한 농촌지역 성불평등 내용분석
- 전문가 회의 및 정책포럼
- 관계법령 검토

---

\* 군부 여성담당 공무원은 우리나라 군지역 여성관련담당을 의미한다. 지방자치제에 따라 각 군은 여성관련 부서를 복지여성과,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등으로 명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부서로서 여성계를 담당하는 행정직 공무원을 말한다.

## 4. 연구결과

본 연구를 위해 문헌조사, 면담 및 사례연구, 내용분석, 농촌지역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지와 여성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지의 결과를 토대로 농업생산구조 변화와 농촌여성·여성농업인,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일과 학습,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활동, 농촌지역의 전통적 남녀차별 문화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 □ 농업생산구조 변화와 농촌여성·여성농업인

#### ○ 현황

1960년대 이후 진행되어 온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농업 부문은 전체 산업과 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농가 호수와 경지 면적 또한 모두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농가 중에서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 농가는 수와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농외취업을 겸하는 겸업농가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농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농가인구는 지난 30년 간 절대수가 감소하였고, 농가의 가족원수의 급감과 함께 인구구조도 크게 변화하여, 농가인구가 노령화·여성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농산물 시장의 개방 및 상품작물 중심으로 농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수도작 이외의 과수나 특작 농가에서는 자본의 투여를 통해 1년 내내 생산이 이루어짐으로써 여성농업인의 노동부담이 남성보다 현저히 커지는 추세이다.



○ 조사결과

가. 농촌지역 응답자

본조사의 응답자는 총 597명으로 연령별로는 20대가 2.3%, 30대가 11.6%, 40대가 22.3%, 50대가 39.9%, 60대가 17.8%, 70대 이상이 6.0%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 298명, 여성 298명으로 각각 50%이고, 혼인상태 별로는 미혼이 3.7%, 유배우가 88.6%, 이혼, 사별, 별거가 7.7%였다.

학력별로 보면 초등학교 중퇴 및 졸업이 45.2%,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이 24.6%, 중학교 졸업 및 중퇴가 17.5%를 나타냈다.

가족수는 2명이 29.5%, 3명이 18.0%, 5명이 15.3%, 4명이 14.1%를 나타내 농촌지역의 가족이 핵가족화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가족주기별로 보면 '막내자녀 출가전'이 68.2%, '막내자녀 출가후'가 19.5%, '막내자녀 취학전'이 7.2%로 나타나고, 가족형태별로 보면 '부부와 미혼자녀가족'이 39.0%, '부부만 사는 가족'이 28.7%, '노부모와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3세대 가족'이 16.3%로 나타났다.

농업종사 경력에 대한 질문에 25.5%가 '21~30년'이고, 22.1%가 '31~40년'이라고 응답했으며, '40년 이상'이라는 응답도 14.7%였다. 실제 농사일을 하는 식구 수는 '2명'이 73.8%, '3명'이 11.7%, '1명'이라는 응답은 8.2%를 나타내 가족농 체제의 특성을 보인다.

농사규모는 논인 경우 '501평~1000평'이 19.5%, '1001평~1500평'이 12.6%, '1501평~2000평'이 15.4%, '2001평~3000평'이 14.4%를 나타내었고, 밭인 경우 '1평~500평'이 24.7%, '501평~1000평'이 19.6%, '1501평~2000평'이 7.2%를 나타내 비교적 소규모의 농업형태를 보였다.

## 나. 여성담당공무원

응답자는 모두 여자였고, 연령분포는 30~39세가 58.5%, 40~49세가 34.1%, 50~59세가 7.3%를 나타내었다.

### □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일과 학습

#### ○ 현황

현재 보편적인 우리농업의 생산 구조는 가족농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생산 구조로서, 농사에 투입되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가족 노동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인력도 가능한 한 최대한 농업노동에 투입되고 있다. 1999년 현재 전체농가 인구 중 51.5%가 여성이고 농업주종사자의 비율은 남성보다 높다. 농가의 전체노동 투하량 중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노동투하량은 98년 현재 46.6%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이 투여하는 노동력의 비율이 남성 못지 않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업인의 종사상의 지위를 보면 주체적인 생산노동으로 인식되지 않고 무급가족 종사자로 분류되어 보조적 위치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여성농업인의 학력은 한국사회 전반적인 고학력화 추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995년 현재 30세 미만의 농촌여성의 평균 교육년수는 12년 전후로서 고졸정도의 학력이며, 30-40대는 중퇴 수준이며 50대 여성의 경우는 국졸 수준이다. 이는 농가 남성의 학력보다 평균 2.4년 정도가 낮은 수치이다.

또한 1999년 농업계 고등학교 전체 졸업자 26,877명 중 여학생 졸업자 비율은 32.3%로, 여학생이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 여학생의 전공분포를 보면 전통적으로 여성적 분야라고 간주되는 식품관련과(식품가공, 식품산업), 원예관련과(원예, 도시원예, 생활원예, 시설원예, 자영원예) 등에 46.6%가 집중되어 있다. 농촌 농업의 기반이 되는 기계, 축산,

자영농 분야에는 농림계 여학생의 소수가 분포되어 있다. 앞으로 전개되는 농업의 규모화, 상업화 추세에 따라 필수요소로 되어 가는 농기계 운전 및 기계조작 능력을 갖지 못한다면 여성농업인들의 인적자본 경쟁력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농촌여성·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은 시·도단위 농업 기술원, 시·군단위 농업기술센터, 단위농협, 시·군청 등에서 여러 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여성농업인들이 교육에 참여하게 되는 경로는 주로 농업기술센터와 농협 등 교육시행기관 측이 담당직원들과 전화나 편지, 안면을 통해서, 연락을 받고 참석한다. 교육에 대한 정보가 교육기관 중심으로 알려지고 여성들은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여성 참여율은 10% 정도로 미약하고 교육 참여 경험이 많은 여성은 여러 기관의 교육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성농업인도 변화하는 농업동향에 대한 지식과 정보에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 ○ 조사결과

##### 가. 농촌지역 응답자

농업생산 참여에 있어, 논농사의 경우 남자는 모뎀우기를 제외한 논농사과정의 일을 전담하고 여자는 모뎀우기에서 64.2%가 남녀가 비슷하게 하거나 여성이 주로 한다. 밭농사의 경우 남성은 밭갈이, 비료주기, 농약살포 과정을 거의 전담하고, 여성은 김매기, 옮겨심기를 거의 전담하며, 씨뿌리기, 수확, 타작, 포장단계 작업은 남녀가 같이 한다. 하우스농사의 경우 하우스 설치를 제외하고는 남녀가 비슷하게 하는 비율이 60~70% 정도로 남녀 구별없이 강도 높은 농사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일을 누가 더 많이 하는가에 관한 인식으로는 '남녀가 똑같이 일한다' 30.6%, '남성이 훨씬 더 일한다' 는 전체 55.2%, 남자 56.6%, 여자 53.7%, '여성이 훨씬 더 일한다' 12.0%로 나타나 남성의 노동강도가 더 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 사용경험은 남성 78.9%, 여성 9.1%로 나타났고, 여성이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43.7%, '사용할 줄 몰라서' 24.2%로 전체의 70%정도가 농기계는 남성이 관리·조작하는 것이고 자신은 몰라도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사에 관련된 일에 대한 결정권에 있어서는 재배작물의 결정, 논밭의 임대차 및 매매, 비료·농약·농기계의 구입, 영농자금 대부, 농사일정 결정, 농산물 판매등의 모든 과정에서 조사대상의 70%이상이 남성이 거의 또는 주로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농업 참여도는 남성보다는 낮으나 가족농 체제에서는 필수적인 노동력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의사결정과정에는 상당히 소외되고 있고 따라서 농업의 중심인력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농업노동 시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30대 이하의 경우, 여성의 농업노동 투하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와 50대의 경우 여성의 농업노동 투하 시간이 매우 많으며, 40대 이상의 경우 여성과 남성 공히 농번기에 남편과 아내가 비슷하게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있다' 21.8%, '없다' 78.2%로 나타났다.

남편에게 가장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 때는 언제인가라는 질문에는 '의사결정에서 제외시킬 때' 27.2%, '농사일, 집안일을 못한다고 했을 때' 22.5%,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지 못했다고 할 때', 17.2%로 응답자의 절반이 농사일과 가정사에 관련되어 의사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하지 못하고, 농사일, 집안일을 못한다고 할 때 가장 무시당한다고 느끼며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교육활동의 경우, 직업의식, 농업기술, 경영방식

등의 직업교육이 41.0%로 가장 높고, 취미교육, 보건교육, 환경교육 등이 9.6%로 나타났다. 앞으로의 교육 참여계획에 대한 물음에는 직업교육이 21.5%로 가장 높고, 교양교육이 16.7%, 취미교육이 15.1%, 보건교육이 14.5%로 나타나 농촌지역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 응답자의 경향을 고려해 볼 때, 농업을 유지하고 새로운 직종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직업교육이나 교양교육, 취미교육, 보건교육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컴퓨터 보유 유무에 대해서는 '있다' 35.9%, '없다' 64.1%로 나타났고,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14.7%였고, 사용할 줄 모르는 경우는 85.3%였다. 컴퓨터의 주사용자에 대한 질문에는 '자녀' 79.7%, '가족 모두' 8.5%, '남편' 6.6%, '아내'의 경우는 0%로 컴퓨터의 주사용자가 자녀로 나타났다. 컴퓨터의 용도에 대한 대답으로는 '게임'이 31.7%로 가장 높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검색'이 26.8%, '문서작성'이 25.4%로 나타나 농촌지역의 컴퓨터 사용 가능률이 매우 낮고, 실제로 컴퓨터를 이용하는 측면에서도 개발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성별로 볼 때도 남성은 '온라인 강의', '홈뱅킹'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고르게 분포가 나왔으나 여성의 경우 '정보검색', '채팅', '문서작성', '게임'에만 컴퓨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간, 성별간 정보접근 및 이용에 있어서 불평등 현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나. 여성담당공무원

근무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여성들은 남성과 비교해서 농사일을 어느 정도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여성이 훨씬 더 일한다'가 35%, '남성과 똑같이 한다'가 47.5%, '남성이 훨씬 더 일한다'가 12.5%, '모르겠다'가 5%로 응답하고 있어 여성이 훨씬 더 일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 □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 ○ 현황

현재 「여성 발전기본법」 제 22조 3항에는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는 노인여성 및 농어촌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농촌여성 관련 내용이 명문화 되어있지만 농촌 여성을 위한 구체적인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안은 제시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1999년 2월 5일 「농업·농촌기본법」이 법률로 제정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동법 제 14조에서 여성농업인의 육성을 명기하고 있다.

1995년에 개정된 「농협법」은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조합원 가입 규정 3개 조항을 신설하고 제한적으로 여성에게 가입을 개방하였다가 2000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이 조항도 삭제하여 여성조합원도 가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제까지 농촌지역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은 전문인력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실정이다.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은 농업의 주 노동력으로서, 농촌사회를 유지하는 인력이었으면서도 제도적으로 그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하였고, 농림부나 농협 등에 있는 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농업관련위원회의 정책 결정 수준의 의사결정에 여성으로서 참여할 기회도 거의 없었으며,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농촌지역 여성의 68.2%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응답할 정도로 건강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문화 및 여가에 대해 누리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활동을 위한 공간이나 기회가 거의 없어서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부의 조사에 의하면 농촌여성들은 농촌생활 전반에 대해 아주 만족하거나 비교적 만족하는 비율(31.2%)보다 아주 불만족하거나 약간 불만족하는 비율이 32.9%로 약간 높게 나타난 정도이나, 이농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88%로서 전체적으로 현재의 농촌생활에 대한 평가가 낮다.

농업노동이 일년 내내 이루어지고 시설재배의 증가로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건강문제는 심각한 수준이지만, 농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의료기관 및 병상분포, 의료인력이 부족하고, 교통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농촌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경우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서 시·군 소재지까지 나가야 하는 불편 때문에 제대로 정기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출산 후에도 과중한 노동으로 인해 모성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부에서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 도우미가 농사일을 대행해 주는 농가 도우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농업인의 과중한 노동으로 인하여 농촌 아동의 보육 문제는 상당한 부담이다. 2000년 현재 보육시설 수를 지역별로 보면 동당 8.0개소, 읍당 6.7개소, 면지역은 1.1개소로 면이하 농촌지역의 보육시설이 적은 실정이다. 농촌에서 학령기의 자녀를 둔 가족들이 교육문제 때문에 이농함으로써 농촌지역의 100명 이하의 학교가 통폐합되고, 그 결과 농촌이 황폐화되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 초등학교 수준의 자녀들의 보육과 교육을 위한 방과후 아동지도시설은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농촌지역 어린이는 하루 평균 5~6시간 이상 방치되고 있거나, 도시지역과 비슷하게 방과후 2-3개의 학원을 농촌지역을 순회하는 사설학원차량에 의해 전전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조사결과

### 가. 농촌지역 응답자

평소에 자신의 건강에 대해 인식은 '건강하다' 39.4%, '그저 그렇다'가 28.4%, '자주 아프다' 21.1%로 농촌지역의 경우 여성 특히 노인여성의 건강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높다.

몸이 아플 경우 '병원이용'이 57.0%, '약국이용'이 18.0%, '보건소이용'이 10.7%로 나타났다. 현재의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그저 그렇다'가 39.7%, '대체로 만족스럽다'가 35.6%, '대체로 만족스럽지 않다'가 19.3%로 나타나 30대 이하와 40대, 50대 남자의 만족비율이 높은 반면, 여자의 경우 남자보다 현재생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를 짓는다는 가정을 아들의 경우와 딸의 경우로 나누어 질문해 보았는데, 전체적으로는 아들의 경우는 '대체로 찬성'이 32.7%, '적극 반대'가 28.4%, '대체로 반대'가 27.3%로 나타났고, 딸의 경우는 '적극 반대'가 33.9%, '대체로 반대'가 28.2%, '대체로 찬성'이 25.2%로 나타났다.

앞으로 10년 후의 우리나라 농촌생활에 대한 전망은 전체적으로는 남자의 경우 '똑같은 것이다'가 30.2%로 가장 높고, '약간 나아질 것이다' 28.5%, '약간 나빠질 것이다' 26.5%로 나타났고, 현재 농촌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미래 계획에 대한 견해와 관련해 농촌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농촌에서 계속 살기를 원한다' 84.2%, '도시로 나가서 살고 싶다' 8.4%, '잘 모르겠다' 4.0%로 나타났다.

현재의 농촌문제에 대한 견해에 대한 응답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이 농사일과 가사일을 모두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이중부담"에 대하여는 '조금 심각하다' 42.3%, '별로 심각하지 않다' 32.4%, '매우 심각하다' 22.8%로 나타났다.

"농산물 가격보장과 소득보장"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볼 때, '매우 심각하다' 70.9%, '조금 심각하다' 24.9%로 나타나 심각하다는 인식이 매우 높았다.



“농기계를 다룰 줄 모르는 점”에 대하여는 ‘별로 심각하지 않다’ 42.6%로 가장 높고, ‘조금 심각하다’의 경우 40.3%로 나타나 심각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비교적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농사기술을 잘 습득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볼 때, ‘별로 심각하지 않다’가 52.4%, ‘조금 심각하다’ 31.4%로 나타났다.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이 없는 점”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조금 심각하다’ 45.5%, ‘별로 심각하지 않다’ 38.2%로 나타나, 자녀들이 어린 30대의 경우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는 반면, 어린 자녀가 없는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가 크게 낮아짐을 볼 수 있다. 또한 성별로도 남성보다는 자녀양육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여성의 경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여성들만의 모임이나 여성들을 위한 상담기관이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별로 심각하지 않다’ 46.4%, ‘조금 심각하다’ 38.8%, ‘전혀 심각하지 않다’ 10.4%로 나타나, 남녀 모두 약간 심각하다고 느끼지만 남성의 경우보다는 여성의 경우가 더욱 심각하다는 인식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들만의 모임이나 여성들을 위한 상담기관에 관한 관심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욱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농촌의 남성 중심적인 의식과 성차별적인 문화”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보면, ‘별로 심각하지 않다’가 48.6%, ‘조금 심각하다’가 38.1%로 나타나, 농촌의 남성 중심적인 의식과 성차별적 문화에 대해 여성의 경우, 40대 이하의 경우 보다 젊은 연령층에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취미나 교양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이나 활동이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심각하다’가 49.3%, ‘별로 심각하지 않다’가 31.5%, ‘매우 심각하다’가 16.2%로 나타나, 30대이하와 60대이상의 경우보다 40대와 50대의 연령층에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자녀들의 교육문제”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매우 심각하다’가 42.0%, ‘조금 심각하다’가 40.2%로 자녀의 교육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심각한 정도를 많이 느끼고 있고, 실제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은 젊은 연령층에서 심각성을 더욱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강문제와 낮은 의료혜택”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심각하다’가 47.1%, ‘매우 심각하다’가 34.6%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젊은 연령층인 30대 이하의 경우 보다는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문제의식이 높게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는 40대 이상부터 건강문제와 낮은 의료혜택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시설의 부족”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심각하다’가 49.8%, ‘매우 심각하다’가 29.9%, ‘별로 심각하지 않다’가 18.8%를 나타내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농민에 대한 사회적 무시”에 대하여는 ‘조금 심각하다’가 40.6%, ‘별로 심각하지 않다’가 30.6%, ‘매우 심각하다’가 24.1%로 나타났다.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고령화 문제”에 관하여는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심각하다’가 43.0%, ‘조금 심각하다’가 40.2%로 심각성에 대해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나. 여성담당공무원

농촌지역 여성 담당 공무원들은 농촌지역 여성에게 필요한 교육 및 기술훈련에 대한 질문에 대해, 컴퓨터(34%), 조리(27%), 미용(18%) 등의 자격증에 취득에 관한 응답이 전체의 82%였다. 또한 양재, 홈패션 등의 부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교육이 7%, 그 외에 인성교육 등의 교양 강좌는 2% 등으로, 대다수가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얻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 농촌지역이기 때문

에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하고, 교육을 위한 강사 확보의 어려움과 농촌지역이라 취업교육을 받아도 취직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지역의 특수한 여성교육 프로그램 여부에 대해서는 요리 등 자격증에 관한 것, 취미교실, 취업 교육, 교양강좌, 주부 대학 등이었으며, '외국인 결혼가정을 위한 우리문화 알기 교육'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었다.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나라의 농촌생활에 대한 전망으로는 14.6%가 '훨씬 나아질 것이다', 39.0%가 '약간 나아질 것이다', 26.8%가 '똑같은 것이다', 17.1%가 '약간 나빠질 것이다', 2.4%가 '훨씬 나빠질 것이다'라고 응답하여, 54%의 응답자가 농촌의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활동

##### ○ 현황

농촌지역 여성조직은 일정한 목표 추구를 위해 구성원간에 상호작용을 하는 여성들의 집합체로 정의할 수 있는데 조직목표 및 수행의 공식화 여부에 따라 공식적 조직과 비공식적 조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비공식적 모임은 농촌지역의 계나 품앗이, 친목모임, 취미반 등이 있고 공식적 모임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조직으로서 새마을 부녀회나 지역여성 농민회 등이 해당된다. 부락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지역사회 활동은 품앗이, 두레, 계 등 비공식적인 모임에 의해 유지되어 왔으나, 농촌도 근대화 과정으로 편입됨에 따라 공식적인 지역 여성 조직이 이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대부분의 전국적인 여성농업인 관련 단체는 주로 시·도별, 시·군 단위의 조직 및 면 단위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중앙이나 관련 기관의 여성담당자의 결정 사항에 따라 행사에 동원되거나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중앙의 사업에 대해 인지도가 낮으며 회원

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미약한 점이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성공적인 여성의 지역사회 소모임 활동사례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10~20명 내외의 지역단위 소규모 여성모임은 개인차원의 문화향수와 욕구충족 이외에 자기정체성의 확립, 자기성취감의 획득, 인간관계의 원만함, 사회관계망 형성, 삶의 활력 되찾기, 자신감, 세상을 보는 시각의 변화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갖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역 여성 소모임은 거의 대부분 도시지역의 비농가 여성들의 모임 사례이고 농촌지역의 여성농업인의 소모임은 극히 적은 사례가 보고되어 있을 뿐이다.

#### ○ 조사결과

##### 가. 농촌지역 응답자

부녀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여성의 51.7%였고,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48.3%로 나타났고, 부녀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는 '지역사회봉사'가 43.2%로 가장 높고, '환경지킴' 14.3%, '컴퓨터교육' 14.1%로 나타났다. 부녀회 이외의 공동활동으로는 '계'가 57.3%, '생활개선회' 14.7%, '농협주부대학' 10.7%로 나타나 계가 가장 대표적인 농촌공동체 활동임이 드러났다.

부락회의 참여형태에 대한 질문에는 '남편' 42.3%, '본인' 33.1%, '부부동반' 8.6%로 나타나 마을의 중요사안을 결정하는 부락회의에서 여성의 참여율은 매우 낮으며, 남자만 참석하는 이유에 대한 대답으로는 '집을 대표하므로'가 50.9%, '의례 남자가 가니까'가 33.1%, '농사일을 많이 알고 있으므로'가 6.0%로 나타나 여성 의견의 반영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나. 여성담당공무원

지역별 중점 여성복지사업의 종류로 ‘모자가정 보호지원 사업’, ‘여성 정보화 교육’, ‘취미교육’, ‘교양교육’, ‘직업·기술 교육’, ‘장애인 여성 지원’, ‘재활용 사업’, ‘봉사활동’, ‘국제 결혼가정 및 여성 상담사업’, ‘문화교실 운영’, ‘여성단체 지원사업’, ‘부업 지원사업’ 등이 있었다.

가정 폭력을 당한 여성 피해자를 위한 대책에 관한 질문에 95%가 응답이 하였는데, ‘상담 및 보호시설 제공(62.7%)’, ‘법률적·의학적 정보제공(11.7%)’, ‘의식교육의 측면(9.8%)’, ‘자립의 기반마련(4%)’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상담 및 보호 시설 제공에 관한 의견으로는 쉼터 등 정신적·신체적으로 편안히 쉴 수 있는 격리된 공간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부부가 함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의식 교육의 측면에서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여자가 맞을 짓을 했다’는 식의 사회 일반의 편견을 타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또 피해자 자신의 신고정신 함양과 자기 보호, 대처 방법 주지 등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

### 농촌지역의 전통적 남녀차별 문화

#### ○ 현황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62.8%가 일상생활에서 성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남자보다 사회적 활동에 제한을 받고, 노동에 대한 기여나 소득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다.

농업생산과정에서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위치는 보조적 지위로 규정되어 있고 기여도만큼 정당한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농가에서 작목반이나 영농조합 등의 생산자 가입에 대해서 남편이 혼자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나며 농사일정과 품목결정, 영농자재 구입, 농지구입과 매각 등에 관한 의사결정도 주로 남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생산의 기여도, 농가 경영의 실질적 책임자, 농촌지역사회 여성의 역할 증대로 인하여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어야 하나 아직도 농촌사회는 가정에서의 가부장제도, 부권적 부부관계 등 남존여비사상이 여전히 남아 있다. 재산의 명의나 농지 처분권을 마음대로 행사하지도 못한다.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사회적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도 적지 않아 마을 대표자인 이장이나 농협, 축협 대의원도 여성이 거의 없거나 소수여서 대표성을 갖지 못한다.

농촌여성·여성농업인 자신들도 고정된 성역할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자기비하 의식, 낮은 성취의욕과 운명관, 순종적이면서 수동적인 사고방식 등에 젖어 있는 실정이다.

## ○ 조사결과

### 가. 농촌지역 응답자

농촌지역 가정에서 남성이 가사일을 어느 정도 도와주는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조금 도와준다'가 27.9%로 가장 높고,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가 24.5%, '많이 도와준다'가 21.4%, '거의 도와주지 않는다'가 16.4%로 나타났다.

아내와 남편의 농번기와 농한기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질문에는 아내의 경우 농번기에는 평균 3시간 13분, 농한기에는 3시간 49분 일한다고 응답했으며, 남편의 경우 농번기에는 44분, 농한기에는 43분 일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을

농번기에 3시간 14분, 농한기에 3시간 48분 일하는 것으로 응답했고, 여성의 경우 농번기에 3시간 11분, 농한기에 3시간 48분 일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여성의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해 농번기에는 37분, 농한기에는 37분으로 응답했다.

취학전 초등학교 어린이가 있는 경우에 대한 질문에 '있다'가 9.0%, '없다'가 91.0%를 나타냈는데, 취학전 어린이가 있는 경우 농사일을 나간 동안 아이들은 누가 돌보느냐는 질문에는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0.7%로 가장 높고, '시부모'가 27.1%, '혼자 내버려둔다'도 10.2%로 나타났으며, 취학전 아이가 없는 경우 아이를 키울 때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없다'에 78.2%, '있다'에 20.5%가 응답해 젊은 세대들은 농사일을 나갈 때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지만, 이전의 세대에서는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을 이용한 양육형태는 드문 것으로 보인다.

가정에서의 남녀 역할에 대한 인식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녀 역할에 관한 인식 및 태도를 묻는 질문을 11개의 항목으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았다.

항목의 1, 2, 4, 6, 7, 10번 문항은 '매우 그렇다'에 4점, '대체로 그렇다'에 3점, '대체로 아니다'에 2점, '전혀 아니다'에 1점을 부여했고, 3, 5, 8, 9, 11번 문항의 경우는 '매우 그렇다'에 1점, '대체로 그렇다'에 2점, '대체로 아니다'에 3점, '전혀 아니다'에 4점을 주어 평균을 구했다. 각 항목의 평균점수가 1점에 가까울수록 진보적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응답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해서 가장 진보적 경향을 나타냈으며, '학교에서 여학생에게 전자제품 수리 등 기계·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찬성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가장 보수적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가족의 생계는 남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남자 1.90, 여자 2.13)와 '부부는 결혼 중 얻은 재산을 공동명의로 해야 한다'는 견해(남자 2.71, 여자 2.92)로 남자가 보다 진보적 성향을

보였고, ‘가사일에는 남자의 할 일과 여자의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견해(남자 2.01, 여자 2.16)와 ‘결혼한 남자는 처가 쪽의 대소사를 자기 집과 똑같이 챙겨야 한다’는 견해(남자 2.89, 여자 3.02), ‘여자가 직장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는 견해(남자 2.71, 여자 2.92)도 역시 남자가 비교적 진보적 성향을 보이고 있어, 성별간에는 “결혼한 여자는 친정보다 시댁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는 견해”와 “결혼한 여자가 친정 부모를 모시는 것은 시집식구에게 미안한 일이다” 라는 견해의 항목을 제외한 전 항목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진보적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여성담당공무원

남녀평등의식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여성담당 공무원들은 남녀평등의식에서 진보적 성향을 보였다.

응답자들은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에 대해 ‘전혀 아니다(51.2%)’, ‘대체로 아니다(31.7%)’, ‘대체로 그렇다(17.7%)’, ‘매우 그렇다(0%)’로, 83% 라고 응답하였다.

“가사일에는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에 대해 ‘전혀 아니다(34.1%)’, ‘대체로 아니다(34.1%)’, ‘대체로 그렇다(24.4%)’, ‘매우 그렇다(4.9%)’로 응답하였다.

“여자의 본분은 자녀를 키우고 가사일을 돌보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 ‘전혀 아니다(39%)’, ‘대체로 아니다(41.5%)’, ‘대체로 그렇다(19.5%)’, ‘매우 그렇다(0%)’로 응답하였다.

“학교에서 여학생들에게 전자제품 수리 등 기계·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찬성한다”에 대해 ‘매우 그렇다’는 70.7%였고, ‘대체로 그렇다’는 26.8%, ‘대체로 아니다’는 2.4%에 불과하였다.



## 6. 정책제언

### 가.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 농업경영의 공동경영자로서의 지위 부여

- 여성농업인에 대한 경제활동의 적극적 평가
- 여성농업경영자·기술자등 주체적 생산자로서 육성
- 여성의 경제권 향상을 위한 부부공동재산제의 제도화

#### 여성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산기반 정비

- 여성농업노동의 기계화를 위한 농기계의 개발 및 보급
- 여성 대상 농기계 교육 확대

#### 농촌여성 후계 인력화를 위한 여건 조성

- 후계 농업인 선발시 가산점 부여 제도의 현실화
- 농업계 고등학교와 농업 전문학교 등에 여성후계인력 유치

#### 여성 농업 전문 경영인 육성

- 여성 전문 농업 경영인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 “농업경영자과정 여성반” 또는 “여성농업인 경영자 과정” 설치 운영의 확대
- 환경농업 분야의 여성 인적자원 개발

□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령의 정비

- 농촌여성·여성농업인 관련법의 제정
- 농림축산업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남녀차별조항의 지속적 발굴·조사

□ 「여성농업인상」 제정 및 수여

- 「여성농업인상」 제정
- 「여성농업인상」 기준 제정 및 수상계획 수립

□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주류화를 위한 정책개발

- 농업개발 관련 정책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농업인 전담 부서 설치
- 시·군에 시장·군수 직속으로 “평등조정 위원회” 설치
- 여성농업인 지도자 인명부 작성

나.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을 통한 경제·사회적 지위향상

□ 농촌 여성 직업능력 개발 강화

- 농촌지역 여학생의 진로 및 생애 교육 확충
- 농협중심의 농가주부 대학 교육과정 개선 및 확충

□ 농가부업을 위한 농외소득부문 여성 취업 교육 실시

- 농가 부업 기술을 위한 교육 훈련 실시
- 취업을 위한 주문식 교육훈련 실시

□ 대상집단별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농촌여성·여성농업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 농촌여성·여성농업인 교육프로그램 시범 실행
-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방법 개발

□ 농촌여성의 정보 문해 교육 실시

- 농촌지역 초·중등 학교 여학생 정보화 교육 확대
- 농촌여성의 정보활용 능력 강화
- 농촌여성·여성농업인 대상 정보화 교육 기회 확충
- 원격 「여성 농업교실」 개설 및 운영

□ 농촌 성인 여성 능력 개발을 위한 학습 조직의 육성

- 여성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
- 친여성적 학습조직의 육성
- 농촌여성 활동 기금 지원

다.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복지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을 위한 영농지원 체제의 정비

- 농촌여성에 대한 해산 보호비의 사회부담화
- 농가도우미제도 검토 및 활성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 조례안 제정

농촌 노인 여성의 복지정책 강화

- 시·군 보건소 기능의 확대 및 가정방문을 통한 진료단 순회 근무제 도입
- 고령 농촌 여성을 위한 양로시설 설립 운영

자녀의 교육 및 보육 서비스 확충

- 농촌형 보육서비스체계 확립
- 방과후 아동교실 설치 및 운영 확충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보호소 마련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보호시설 마련
- 농촌여성 상담 확충

**라.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문화·지역사회활동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농촌 여성의 문화활동 확충

- 군 단위에 여성 중심의 활동 공간 마련
- 농촌여성이 주체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 농가 주부들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위한 교육 마련

□ 여성단체의 활성화 및 지원

- 농촌의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여성단체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연대 강화

□ 농촌지역 소모임 활성화를 통한 양성평등의식 고양

- 지역의 여성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양성평등의식 확산
- 농촌여성의 의식 고양 프로그램 개발

**마. 농촌지역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평등가정의 구현**

□ 농촌의 양성 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여건 조성

- 농촌의 양성 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확충 및 운영
- 농촌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및 강좌에 양성 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의무화

□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활성화

- 농촌형 양성평등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 양성평등의식교육 프로그램 개발
- 농촌지역의 양성평등의식 교육 담당 교·강사의 양성

□ 평등부부 발굴

- 양성평등 사례발굴 및 홍보
-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 평가에 대한 인식 제고

□ 대중매체에서 농촌의 균형적 여성 묘사의 증진

- 농촌여성의 성차별적 이미지 개선
- 농촌사회 양성 평등 실현을 위한 대안적 매체개발



# 목 차

I. 서 론 .....	1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3
가. 연구의 필요성 .....	3
나. 연구의 목적 .....	5
2. 연구 내용 .....	6
3. 연구 방법 .....	7
가. 관련 자료 분석 .....	7
나. 면담 및 양성평등 실천 사례조사 .....	7
다. 설문조사 .....	7
라. 전문가 회의 및 정책세미나 구성 및 운영 .....	13
마. 농림 관련법의 남녀차별조항 검토 .....	13
II. 우리 농촌여성의 삶 .....	15
1. 농업생산 구조변화와 농촌여성·여성농업인 .....	17
가. 농업생산 구조의 변화 .....	17
나. 농가인구의 변화 .....	19
다.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농업참여 .....	21



2.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일과 학습 .....	23
가.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일 .....	23
나.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학습 .....	25
3.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	30
가. 농촌여성 관련 법 .....	30
나. 농촌여성 관련 정책 .....	32
다.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복지 .....	40
4.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활동 .....	45
가. 지역생산자 모임 .....	46
나. 새마을 부녀회 중앙연합회 .....	46
다. 농가주부모임 전국연합회 .....	48
라. 생활개선중앙회 .....	50
마. 한국여성농업인 중앙연합회 .....	51
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51
5. 농촌지역의 전통적 남녀차별 문화 .....	54
가. 농촌 현실에 나타나는 남녀역할 .....	54
나. 농촌드라마에 나타나는 남녀역할 이미지 .....	56

### Ⅲ. 농촌지역 양성평등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 분석 ..... 59

1. 농업생산 구조변화와 농촌여성·여성농업인 .....	61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61
나. 조사대상자 가족구성의 형태 .....	63
다. 가구주와 주 생계담당자 .....	65
라. 농외 소득 유무 .....	66
마. 농업 종사경력 및 가족 종사자 수 .....	66
바. 농사규모 .....	67
사. 농업참여 실태 .....	69
2.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일과 학습 .....	76
가. 농업참여에 대한 인식 .....	76
나. 농사에 관련된 일의 결정권 .....	80
다. 농기계 사용경험 .....	88
라. 농기계 사용을 위한 교육여부 및 그 이유 .....	89
마. 현재 교육활동 및 앞으로의 교육 참여 계획 .....	91
바. 컴퓨터 활용정도 .....	92
3.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	95
가. 건강의식 .....	95
나. 현재생활 만족도 .....	97
다. 농업·농촌에 대한 견해 .....	99
라. 현재 농촌문제에 대한 견해 .....	103
마. 농업정책에 대한 인식 .....	117

4. 농촌여성 ·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활동 .....	119
가. 부녀회 .....	119
나. 부락회의 참여형태 .....	120
5. 농촌지역의 전통적 남녀차별문화 .....	121
가. 가사분담 .....	122
나. 가사노동 시간 .....	122
다. 자녀양육 형태 .....	124
라. 부부간의 불평등한 지위 관계 .....	126
6. 농촌지역 여성 담당 공무원 조사 결과 .....	132
가. 조사대상자의 연령분포 .....	132
나. 농촌지역 여성의 농업참여에 대한 인식 .....	132
다. 농촌지역 여성에게 필요한 교육 및 기술훈련 .....	133
라. 지역의 특수한 여성 교육 프로그램 .....	134
마. 농촌지역 여성 정보화 정책 .....	135
바. 지역별 중점 여성복지사업 .....	135
사.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대책 .....	135
아. 여성담당 공무원의 남녀 평등의식 .....	138
자. 농촌의 미래에 대한 기대 .....	140
차. 여성농업인 정책에 관한 인식 .....	140

#### Ⅳ. 양성평등 실천사례 ..... 143

가. 호주의 여성농민상(ABC Radio's Australian Woman of the Year Award) .....	145
나. 북아일랜드의 농촌여성 교육 훈련지원 .....	146
다. 이스라엘의 집단협동농촌(Moshav Shittufi) .....	146
라. 북한의 협동농장 .....	147
마. 충남예산군의 귀농여성 .....	149
바. 전북 정읍군의 부부후계 농업인 .....	150
사. 전남 영광 「영광여성의 전화」의 지역 소모임 활동 .....	152
아. 「농촌형 양성평등 교육모형」 개발 .....	156

#### Ⅴ. 농촌 지역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 161

1. 기본방향 .....	163
2. 정책방안 .....	163
가.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	164
나.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을 통한 경제·사회적 지위향상 .....	171
다.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복지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177
라.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문화·지역사회활동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	182
마. 농촌지역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평등가정의 구현 .....	185

참고문헌 .....	191
------------	-----

[부록 1] .....	195
--------------	-----

<부표 1> 응답자의 특성 .....	195
<부표 2> 가족구성의 형태별 특성 .....	196
<부표 3> 농외 소득 유무 .....	197
<부표 4> 농업종사 경력 및 가족종사자 수 .....	197
<부표 5> 농사규모 .....	198
<부표 6> 농기계 사용경험 .....	199
<부표 7> 직접 농기계를 다루지 않는 이유 .....	199
<부표 8> 농기계 사용을 위한 교육 여부 및 유용도 .....	200
<부표 9> 농기계 사용방법을 교육받지 않은 이유 .....	200
<부표 10> 논이나 밭의 매매 .....	201
<부표 11> 논이나 밭의 임대차 .....	201
<부표 12> 비료, 농약의 구입 .....	202
<부표 13> 농기계, 농기구 구입 .....	202
<부표 14> 영농자금 대부 .....	203
<부표 15> 농사일정 결정 .....	203
<부표 16> 품 사기 .....	204
<부표 17> 판매금의 용도 결정 .....	204
<부표 18> 남성의 가사분담 정도 .....	205
<부표 19> 자녀양육 형태 .....	205
<부표 20> 남편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	206
<부표 21> 컴퓨터 보유 여부 및 활용 실태 .....	206
<부표 22> 성별·연령별 컴퓨터 사용가능 여부 .....	207
<부표 23> 컴퓨터 용도 .....	207
<부표 24> 부녀회의 희망 활동분야 .....	208
<부표 25> 부녀회 이외의 공동모임 현황 .....	208

<부표 26> 부락회의 참여 형태 .....	209
<부표 27> 현재생활 만족도 .....	209
<부표 28> 농촌지역 여성취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교육 .....	210
<부표 29>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 피해자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	211
[부록 2] 「농촌형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 .....	213
<부표 30> 「농촌형 양성평등 교육모형」 교육일정 .....	213
<부표 31> 「농촌형 양성평등 교육모형」 교육과정 .....	214
[부록 3] 「농촌지역 양성평등 실현방안」 조사표(1) ..	217
[부록 4] 「농촌지역 양성평등 실현방안」 조사표(2) ..	233

# 표 목 차

<표 I-1> 조사대상 지역 및 조사 대상자 분포 .....	8
<표 I-2> 조사표(1)의 구성 .....	10
<표 I-3> 조사표(2)의 구성 .....	12
<표 II-1> 농가호수 및 경지면적의 연대별 증감을 .....	18
<표 II-2> 성별 농가인구 추이 .....	19
<표 II-3> 연도별 농가수, 농가 인구 및 호당 농가인구 추이 .....	20
<표 II-4> 농가인구의 성별·연령별 분포 추이 .....	21
<표 II-5> 성별 농가인구의 취업 유형 .....	22
<표 II-6> 연도별 농업 노동투하량의 변화 추이 .....	23
<표 II-7> 농촌여성의 농번기 노동시간의 변화 추이 .....	24
<표 II-8> 15세 이상 농가여성의 농업종사상의 지위 .....	25
<표 II-9> 성별 농가여부별 학력분포의 추이 .....	26
<표 II-10> 농가여성의 연령계층별 평균 학력년수의 분포(1995년) .....	26
<표 II-11> 농업계 고등학교 과정별 학생 수 .....	28
<표 II-12>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 기본방향 및 핵심 정책과제 (2001~2005) .....	37
<표 II-13> 연도별·성별 영농후계자 선발비중 .....	39
<표 II-14> 보건소 등 설치현황 .....	42
<표 II-15> 연도별 농가도우미 지원실적 및 계획 .....	43
<표 II-16> 지역별 보육시설 수 및 아동수(2000. 9. 30. 현재) .....	45
<표 II-17> 새마을부녀회 중앙연합회 2000년 주요사업 .....	48
<표 II-18> (사)농가주부모임 전국연합회 2000년 주요활동 및 사업실적 ....	49
<표 II-19>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2000년 주요 사업내용 .....	53

<표Ⅲ-1> 농사규모 .....	68
<표Ⅲ-2> 논농사 농작업 분담 .....	71
<표Ⅲ-3> 밭농사 농작업 분담 .....	73
<표Ⅲ-4> 농업노동참여에 대한 인식 .....	77
<표Ⅲ-5> 성별·연령별 농업노동 투하시간 .....	79
<표Ⅲ-6> 재배작물의 결정 .....	81
<표Ⅲ-7> 논이나 밭의 매매 .....	82
<표Ⅲ-8> 작목반, 영농조합 가입 .....	85
<표Ⅲ-9> 농산물 판매 .....	87
<표Ⅲ-10> 농기계 사용경험 .....	88
<표Ⅲ-11> 직접 농기계를 다루지 않는 이유 .....	89
<표Ⅲ-12> 농기계 사용방법을 교육받지 않은 이유 .....	91
<표Ⅲ-13> 연령별 건강의식 .....	95
<표Ⅲ-14> 아플 때 대처 방법 .....	96
<표Ⅲ-15> 자녀의 농업종사에 대한 견해 .....	100
<표Ⅲ-16> 연령별 농촌의 미래상에 대한 견해 .....	101
<표Ⅲ-17> 농촌에서 계속 살 것인가에 대한 의견 .....	102
<표Ⅲ-18> 여성의 농사일과 가사일에 대한 이중부담 .....	104
<표Ⅲ-19> 농산물 가격보장과 소득보장 .....	105
<표Ⅲ-20> 농기계를 다룰 줄 모르는 점 .....	106
<표Ⅲ-21> 농사기술을 잘 습득하지 못하는 점 .....	107
<표Ⅲ-22>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이 없는 점 .....	108
<표Ⅲ-23> 여성들만의 모임이나 여성들을 위한 상담기관이 부족한 점 .....	109
<표Ⅲ-24> 농촌의 남성 중심적인 의식과 성차별적인 문화 .....	110
<표Ⅲ-25> 취미, 교양 교육이나 활동이 부족한 점 .....	111
<표Ⅲ-26> 자녀들의 교육문제 .....	112
<표Ⅲ-27> 건강문제와 낮은 의료혜택 .....	113



<표Ⅲ-28> 복지시설의 부족 .....	114
<표Ⅲ-29> 농업·농민에 대한 사회적 무시 .....	115
<표Ⅲ-30> 여성농업인의 고령화 문제 .....	116
<표Ⅲ-31> 농가도우미 제도에 대한 인식여부 .....	117
<표Ⅲ-32> 후계농업인 여부 .....	118
<표Ⅲ-33>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인식 .....	123
<표Ⅲ-34> 성별 가정에서 남녀 역할 인식 .....	127
<표Ⅲ-35> 연령별 가정에서 남녀 역할 인식 .....	129
<표Ⅲ-36> 지역의 특수한 여성 교육 프로그램 .....	134
<표Ⅲ-37> 농촌지역 여성 정보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정책 .....	136
<표Ⅲ-38> 지역별 중점 여성복지사업 .....	137
<표 V-1> 추진별 정책방안 .....	189

# 그림 목 차

<그림 I -1> 권역별 조사대상 비율 .....	9
<그림 II-1> 국내총생산 대비 농업생산 비중과 성장율의 추이 .....	18
<그림 III-1> 응답자의 연령 분포 .....	62
<그림 III-2> 응답자의 혼인상태 .....	62
<그림 III-3> 응답자의 학력분포 .....	63
<그림 III-4> 가족수 분포 .....	64
<그림 III-5> 가족주기 분포 .....	64
<그림 III-6> 가족구성별 가족형태 특성 .....	65
<그림 III-7> 가구주 구성 .....	65
<그림 III-8> 농외 소득 유무 .....	66
<그림 III-9> 농업종사 경력 .....	66
<그림 III-10> 농업에 참여하는 가족수 .....	67
<그림 III-11> 논농사 여부 .....	69
<그림 III-12> 밭농사 여부 .....	72
<그림 III-13> 농기계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여부 .....	90
<그림 III-14> 농기계 사용방법 교육의 효과 .....	90
<그림 III-15> 컴퓨터 보유여부 .....	92
<그림 III-16> 연령별 컴퓨터 사용가능 여부 .....	93
<그림 III-17> 성별 컴퓨터 사용가능 여부 .....	93
<그림 III-18> 컴퓨터 용도 .....	94
<그림 III-19> 연령별 현재생활 만족도 .....	98
<그림 III-20> 성별 현재생활 만족도 .....	98
<그림 III-21> 부녀회의 희망 활동분야 .....	119

<그림Ⅲ-22> 부녀회 이외의 공동모임 현황 .....	120
<그림Ⅲ-23> 부락회의 참여 형태 .....	121
<그림Ⅲ-24> 남성의 가사분담정도 .....	122
<그림Ⅲ-25> 취학전 어린이 유무 .....	124
<그림Ⅲ-26> 농사일을 할 때 자녀를 돌보는 형태 .....	125
<그림Ⅲ-27> 놀이방 이용경험 .....	125
<그림Ⅲ-28> 부부간의 인격존중관계 .....	126
<그림Ⅲ-29> 응답자의 연령별 특성 .....	132
<그림Ⅲ-30> 농촌지역 여성의 농업 참여에 대한 인식 .....	133
<그림Ⅲ-31> 농촌지역 여성에게 필요한 교육 및 기술훈련 .....	133
<그림Ⅲ-32>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 .....	138
<그림Ⅲ-33> 가사일에는 남자와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 .....	139
<그림Ⅲ-34> 여자의 본분은 자녀를 키우고 가사일을 돌보는 것이다 .....	139
<그림Ⅲ-35> 학교에서 여학생들에 대한 기계·기술교육에 찬성 .....	140
<그림Ⅲ-36> 농촌의 미래에 대한 기대 .....	141
<그림Ⅲ-37> 여성농업인 정책에 관한 인식 .....	141

---

---

# I. 서 론

---

---

-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

#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가. 연구의 필요성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은 농업생산자, 가사노동 담당자, 지역사회에서 협동하며 살아가는 지역주민으로서의 역할 등을 담당하여 왔다. 이 역할들은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과 농촌사회의 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되고 있다.

농촌의 청장년층이 도시로 이동하고 농업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크게 농업 생산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농가인구가 10%이하로 감소된다는 전망에 따라 여성농업인은 농업 생산의 기간 노동력으로서의 역할을 더 많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여성 노동력이 농업생산에 대거 투입됨에 따라 농촌가정의 기능이 약화되었으나 가사노동은 여전히 여성이 전담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의식으로 인하여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이중부담은 엄청나게 크다. 또한 농촌 사회는 도시에 비해 제반 여건이 낙후되어 있어 교육 문화 복지 의료 시설 등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다.

농업생산의 참여, 가사노동 등의 역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무보수 가족노동자로서 필요에 따라 일시적인 동원이 용이한 농업 보조자로서, 단순 노동만을 제공하는 주변적 노동력으로 간주될 뿐이며, 전문적인 농업인력, 평등한 가족구성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농촌여성·여성농업인 스스로도 농촌 생활을 주체적으로 선택한 것이라기 보다는 농가 경제의 궁핍함을 덜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소극적이고 불가피한 자구책으로 보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은 생활 만족도가 매우 낮으며 도시 실업자보다도 더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 여기에는 농업의 주변적 위치나 농촌의 사회 문화적 후진성 등의 일반적인 요인 뿐 아니라 농촌 내에서도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된 집단으로서의 여성의 위치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2000년대를 맞이하고 본격적으로 개방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농업정책도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농업·농촌 정보화와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유통개혁 추진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농업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계획 하에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농업은 필수적으로 자본집약적인 농업, 기술 농업의 방향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농업 노동력의 근간을 이루는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농업·농촌의 어려움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여성정책 기본계획 20대 과제」에 여성농업인의 부담 완화와 권익 신장을 포함시키고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자신도 적극적으로 주체적인 삶을 통하여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전문성과 신기술을 습득하고 농촌가정을 꾸리고 농촌의 지역 공동체를 살리는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주류화를 목표로 남성 중심적 농업체제와 가정, 지역사회에서 생산의 주역, 가사 일의 전담자,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적이고 소외되어 있는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농촌지역 여성의 불평등한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실천적 전략을 세움으로써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이 변화의 주체가 되어 식량을 생산하고 많은 장애를 극복하고 차별을 해소하여 양성평등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공동체를 가꾸어 가는 주역이 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나. 연구의 목적

(1) 농촌 지역의 남녀 불평등 의식 및 관행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하여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한다.

(2) 농촌지역의 양성 평등을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법·제도 및 정책 제안의 기초자료를 개발한다.

(3) 여성농업인의 농업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생산력을 재평가 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하고, 가사노동을 평가하여 농촌 여성의 역할에 대해 인식을 새롭게 하고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게 한다.

(4) 농촌지역에 조직되어 있는 소모임을 통하여 양성 평등의식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5) 농촌 지역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양성평등 의식화를 위한 교육 모형을 개발한다.

(6) 국내외 농촌지역의 양성평등 실천사례를 발굴하여 농촌지역의 양성평등의식을 확산시키는 교육·홍보자료로 활용한다.

## 2. 연구 내용

연구의 최종목표는 농촌지역의 성불평등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근거하여 농촌지역의 양성평등 실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사회문화, 제도 및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으며 연구의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영역 I : 농촌지역의 양성평등 저해요인 고찰
  - ① 여성의 성불평등 현황 관련 통계분석
  - ② 농촌지역의 양성평등 저해요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 ③ 농촌여성 관련법의 성차별적 내용 분석 및 검토
  - ④ 외국의 농촌지역 양성평등 사례 및 경험 수집

- (2) 영역 II : 농촌지역 성불평등 실태분석
  - ① 농촌지역 여성의 일과 학습 실태 분석
  - ② 농촌지역의 성평등의식 조사
  - ③ 농촌여성의 가사노동
  - ④ 여성농업인의 정책 수혜 경험 및 평가
  
- (3) 영역 III : 농촌지역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전략 제안
  - ①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가사노동 평가
  - ② 농촌지역 양성평등의식 교육모형 개발
  - ③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
  - ④ 농촌지역 양성 평등사례 개발 및 홍보
  - ⑤ 여성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 ⑥ 여성농업인의 권익신장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
  - ⑦ 농촌지역 소모임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 방안

### 3. 연구 방법

#### 가. 관련 자료 분석

농촌지역 양성평등 저해요인 분석, 농촌지역의 성불평등 실태분석 및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 평가 등을 통해 농촌지역의 양성평등 실현방안을 제시한다.

#### 나. 면담 및 양성평등 실천 사례조사

농촌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학습·일·삶에서 경험하는 차별과 불평등 현황과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하며, 동시에 양성평등 사례를 발굴한다.



## 다. 설문조사

### (1) 조사 지역 및 대상

#### ○ 예비 조사

- 지역 : 충남 연기군
- 조사대상 : 70명
- 조사기간 : 2000년 6월 23일~25일(3일간)

#### ○ 본조사

전국을 권역별(강원, 경기, 충청, 영남, 호남권), 농업지대별 (평야지대, 산간지대, 중산간지대), 성별로 분류하여 농촌남녀성인 6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표 1-1> 조사대상 지역 및 조사 대상자 분포

단위: 명

권역	평야 지대	중산간 지대	산간 지대	계
경기	안성군(80)	-----	-----	
강원	-----	-----	원주시(80)	
충청	논산시(80)	영동군(80)	-----	
영남	상주시(80)	문경군(80)	-----	
호남	나주군(80)	화순군(80)	-----	
계	320	240	80	640

### (2) 조사 방법

#### 1) 조사대상 및 절차

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이루어졌다.

예비조사는 2000년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충남 연기군 남면지역 △△ 부락 70가구를 전수조사 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는 문항수정작업을 거쳐 본 조사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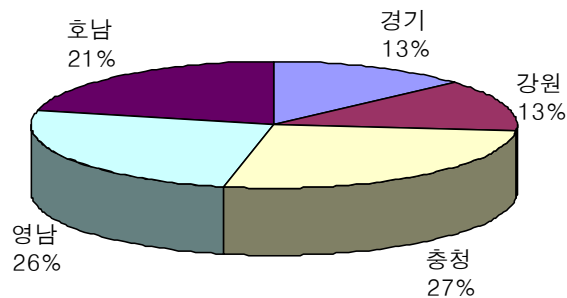
본조사는 2000년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 이루어졌으며, 교육받은 면접원 30명을 현지에서 파견하여 직접 조사하도록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응답에 일관성이 없거나 통계가 유효하지 않은 설문지를 분류하여 최종적으로 597부가 통계에 사용되었다.

본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지역 : 권역별(강원, 경기, 충청, 영남, 호남권), 주 농업 경영형태별 (수도작, 전작, 시설재배, 축산 등)
- ② 조사대상자 수 : 608명
- ③ 조사기간 : 2000년 7월 22일~8월 5일
- ④ 현황

<그림 1-1> 권역별 조사대상 비율



### (3) 조사 내용

조사내용은 총 6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2> 조사표(1)의 구성

영역	하위영역
일반적 특성(10문항)	성별 연령 혼인상태 가족수 학력 가족형태 농업이외의 소득 여부 및 종류
농업참여 실태 (10문항)	농업경력 지난 한 해 농업규모 논농사 현황 및 농작업 주 담당자 밭농사 현황 및 농작업 주 담당자 과수농사 현황 및 농작업 주 담당자 축산현황 및 농작업 주 담당자
가정생활 및 가사노동 실태 (10문항)	남성과 여성의 농사일 담당 정도 농업노동 참여 정도 가사분담실태 자녀양육형태 재산분할형태 컴퓨터 보유 및 활용 실태 건강의식
지역사회 활동 및 단체참여 실태(3문항)	부녀회
농촌지역의 성역할 의식 (11문항)	부락회의 생활전반의 남녀 역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여성농업인의 정책 수혜 경 험 및 평가 등(3문항)	농가도우미 제도 후계농업인
농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견해(17문항)	자녀의 농업 종사에 대한 의견 농촌의 미래상에 대한 의견 현재 농촌문제에 대한 견해

#### (4) 농촌지역 여성담당 공무원 조사

##### 1) 조사대상 및 절차

강원, 경기, 충청, 영남, 호남의 군부 농촌지역 여성담당 공무원 87명을 대상으로 「농촌지역 양성평등 실현방안 연구」에 대한 내용의 질문지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0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였으며, 총 조사 대상 87개 군중 41부가 회수되었다.

응답자는 모두 여성이었으며, 각 군 지역의 여성관련업무 담당자로서 각 군마다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명칭은 다르지만, 대개의 경우 복지여성과나 사회복지과에 소속되어 있고 여성정책관련담당(복지)과 상담원(여성 복지)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이하 군부 여성담당공무원).

설문지는 무기명을 원칙으로 작성되었다.

본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농촌지역 여성에게 필요한 교육 및 기술훈련
- ② 지역의 특수한 여성 교육 프로그램
- ③ 농촌지역 여성 정보화 정책
- ④ 핵심적 여성 복지 관련 사업
- ⑤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대책
- ⑥ 농촌 여성문제에 관한 인식
- ⑦ 농촌의 미래에 대한 기대
- ⑧ 여성농업인 정책에 관한 인식
- ⑨ 여성담당 공무원의 남녀평등의식

##### 2)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총 4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3> 조사표(2)의 구성

영역	하위영역
일반적 특성(4문항)	성별 연령 근무기관 직책
교육(3문항)	농촌지역 여성에게 필요한 교육 및 기술훈련 지역의 특수한 여성교육 프로그램 농촌지역 여성 정보화 정책
복지(2문항)	부녀회 부락회의
남녀평등의식(11문항)	생활전반의 남녀 역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농촌에 대한 인식 (15문항)	농촌지역 여성의 농업 참여에 대한 인식 가사노동의 이중부담 농산물 가격보장과 소득보장 농사기술 관련문제 보육문제 의식문제 교육문제 복지문제 여성농업인의 고령화 문제 농촌의 미래에 대한 기대
농업인 정책(6문항)	여성 농업 전문인력육성 농가소득·재산에 대한 여성의 소유권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 여성의 복지시설 향상 여성의 농업교육 참여 임신·출산시의 일손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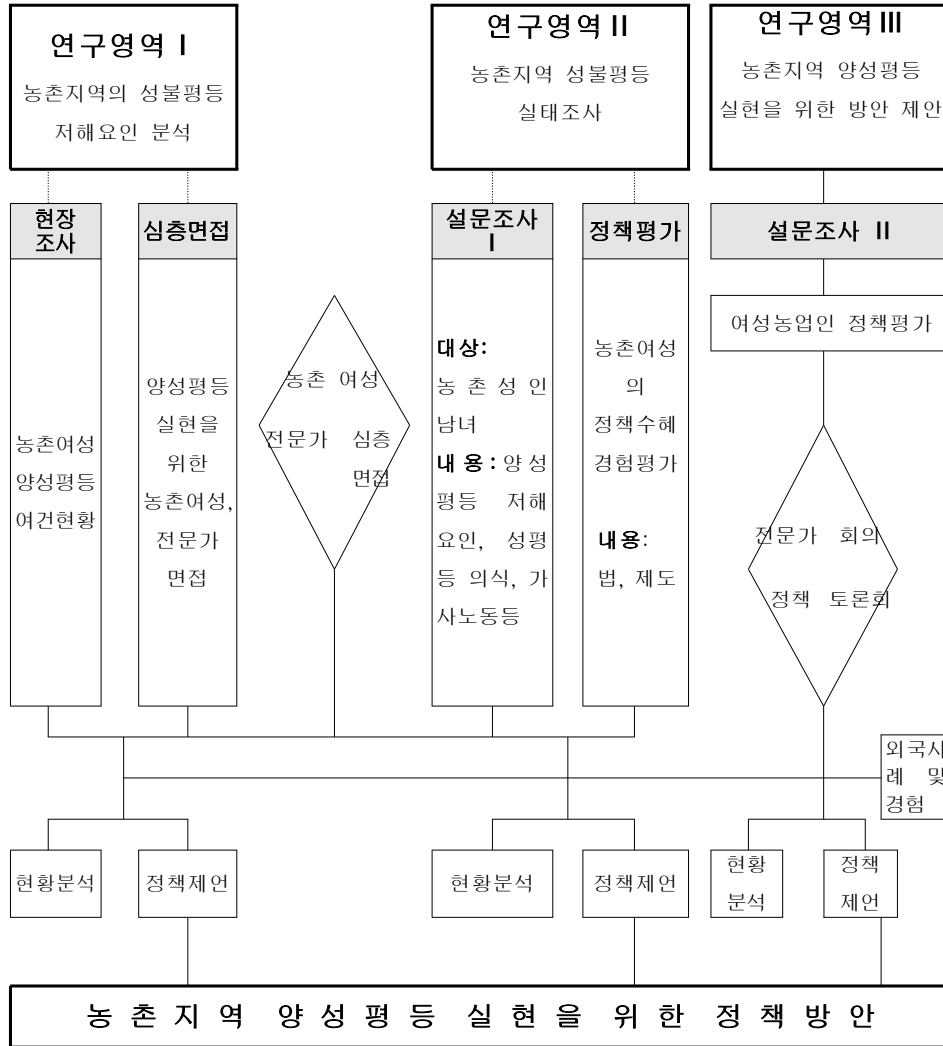
#### 라. 전문가 회의 및 정책세미나 구성 및 운영

국내의 농촌관련 학자, 공무원, 실천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운영하고, 「농촌지역 소모임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여 이론과 실천의 통합을 통한 구체적, 현실적, 미래지향적 양성 평등 실현방안을 제시한다.

### 마. 농림 관련법의 남녀차별조항 검토

농림축산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훈령의 남녀차별조항을 발굴·조사한다.

#### ○ 연구의 추진체계표



---

---

## Ⅱ. 우리 농촌여성의 삶

---

---

- 
1. 농업생산 구조변화와 농촌여성·여성농업인
  2.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일과 학습
  3.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4.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활동
  5. 농촌지역의 전통적 남녀차별 문화
-

# 1. 농업생산 구조변화와 농촌여성·여성농업인<sup>1)</sup>

## 가. 농업생산 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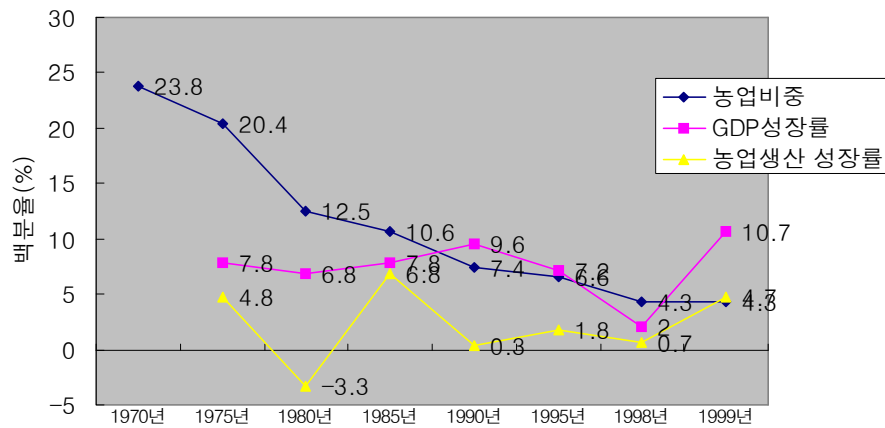
1960년대 이후 진행되어 온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농업 부문은 전체 산업과 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전체 생산액 중 농림업이 국내 총생산에서 점하는 비중은 1970년 23.8%에서 1998년에 4.3%로 급감하였고, 농업성장률은 1995년까지는 평균 2% 수준의 성장세를 보였으나 이후에는 0.7% 정도로 낮아져 거의 실질적인 성장이 없다. 획기적인 수출이나 새로운 부가가치 상품이 개발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농업부문 성장률은 연평균 -0.4%의 수준에 머물러 생산의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여성개발원, 1999a : 22)

<그림 II-1> 국내총생산 대비 농업생산 비중과 성장율의 추이  
(경상가격 기준)

---

1) 농촌여성의 개념은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력으로서 뿐만 아니라, 가사에 종사하는 농가주부의 역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주체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농촌이라는 공간적 개념과 함께, 다중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가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평가나 정책방안의 초점이 흐려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여성이 농가의 주부로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는 별도로, 개인으로서 농업을 직업으로 하는 생산자로서의 존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연구대상을 분명히 규정하기 위해 여성농업인이라는 개념을 덧붙이고자 한다. 이하 본문에서는 논의의 맥락에 따라,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주 : 1995년까지의 수치는 전년대비 성장률을 5년 구간으로 평균한 것이며, 1998년의 수치는 1995-1998년간 매년의 전년대비 성장률을 3년간 평균한 값이다.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출처 : 농림부, 「농업기본통계」, 각년도.

농가 호수와 경지 면적 또한 모두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그 중 경지 면적이 농가호수보다 좀 더 완만하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농가 호당 평균 경지 면적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대규모 경영농가수가 증가하였고 소규모 농가는 감소하고 있다.

<표 II-1> 농가호수 및 경지면적의 연대별 증감율

단위: %

	1960-1970	1971-1980	1981-1989	1990-1999
농가호수	0.51	-1.32	-1.78	-2.18
경지면적	1.35	-0.44	-0.35	-1.1

자료 : 농림부, 「농업기본통계」, 각연도에서 정리

농가 중에서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 농가는 수와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농외취업을 겸하는 겸업농가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농업소득이 적고 농업소득의 기대 수익이 비농업 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

조하기 때문이다.

## 나. 농가인구의 변화

농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농가인구는 지난 30년 간 절대수가 감소하였다. 1970년에서 1999년 사이에 천4백4십만 명에서 4백 2십만 명으로 71.5%가 감소하였는데 농가여성은 동기간에 남성보다 약간 적게 감소한 70.1%의 비율을 보여 농가인구의 여성화가 진전되었다(표Ⅱ-2).

<표Ⅱ-2> 성별 농가인구 추이

단위: 명, %

	농가인구	남 자		여 자	
			구성비		구성비
1970	14,421,730	7,163,515	49.7	7,258,215	50.3
1980	10,826,748	5,414,805	50.0	5,411,943	50.0
1985	8,521,072	4,246,286	49.8	4,274,787	50.2
1990	6,661,322	3,278,764	49.2	3,382,558	50.8
1995	4,851,080	2,372,999	48.9	2,478,081	51.1
1999	4,209,805	2,039,633	48.4	2,170,166	51.6

자료 : 통계청, 「농업기본통계조사결과」, 각년도.

출처 : 한국여성개발원(1999a), p.29에서 재인용

농가의 가족원수가 급격히 감소하며 인구구조도 크게 변화하였다. 1970년 호당 농가 인구는 5.81명에서 1999년 3.11명으로 30년간 2.7명이 감소하였다(표Ⅱ-3). 이는 젊은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농하고 고연령층 사람이 단독 가구 또는 부부 가구로 남아 있는 현상과 함께 나타난 것이다. 농가인구 중 60세 이상의 비중이 지난 30년간 7.9%에서 32.2%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농가인구가 노령화되었다.

<표 II-3> 연도별 농가수, 농가 인구 및 호당 농가인구 추이

단위: 호, 명

	농가	농가인구	호당농가인구	
			호당농가인구	가구당 인구(전국)
1970	2,483,318	14,421,730	5.81	5.64
1980	2,155,073	10,826,748	5.02	4.69
1985	1,925,869	8,521,072	4.42	4.22
1990	1,767,033	6,661,322	3.77	3.82
1995	1,500,745	4,851,080	3.23	3.44
1999	1,413,017	4,209,805	3.11	-

자료: 농림부, 「농업총조사」, 각년도.  
 통계청(1999), 「1998년도 농업기본통계조사결과」.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보고서」, 각년도.  
 출처: 한국여성개발원(1999a), p.32에서 재인용

농가 인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1999년 현재 여성은 217만 명이며 전체 농가인구의 51.5%이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에 대다수가 편중되어 있다. 가장 왕성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연령대인 20-49세까지의 여성농업인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표 II-4).

<표 II-4> 농가인구의 성별·연령별 분포 추이

단위: 천명,(%)

연령 연도/성별	합계	20세 미만	20-49	50-59	60세 이상	
1970	계	14,422(100.0)	7,768(100.0)	4,404(100.0)	1,107(100.0)	1,143(100.0)
	남	(49.7)	(51.9)	(47.6)	(48.7)	(43.7)
1970	여	(50.3)	(48.1)	(5.4)	(51.3)	(56.3)
	계	10,827(100.0)	3,385(100.0)	3,701(100.0)	1,074(100.0)	1,138(100.0)
1980	남	(50.0)	(52.2)	(50.2)	(46.2)	(44.6)
	여	(50.5)	(47.8)	(49.8)	(53.8)	(55.4)
1985	계	8,521(100.0)	4,914(100.0)	2,830(100.0)	1,129(100.0)	1,187(100.0)
	남	(49.8)	(52.0)	(50.6)	(46.1)	(44.7)
1985	여	(50.2)	(48.0)	(49.4)	(53.9)	(55.3)
	계	6,661(100.0)	2,104(100.0)	2,259(100.0)	1,111(100.0)	1,255(100.0)
1990	남	(49.2)	(51.2)	(51.2)	(46.2)	(45.4)
	여	(50.8)	(48.8)	(48.8)	(53.8)	(54.6)
1995	계	4,851(100.0)	1,103(100.0)	1,626(100.0)	867(100.0)	1,255(100.0)
	남	(48.9)	(51.1)	(52.0)	(45.4)	(45.4)
1995	여	(51.1)	(48.9)	(48.0)	(54.6)	(54.6)
	계	4,210(100.0)	821(100.0)	1,323(100.0)	710(100.0)	1,356(100.0)
1999	남	(48.5)	(51.9)	(51.2)	(45.5)	(45.2)
	여	(51.5)	(48.1)	(48.8)	(54.5)	(54.8)

자료: 통계청 농수산 통계과.

출처: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2000년판」에서 재정리.

#### 다.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농업참여

농가인구 중 여성이 농업 주종사자로 일하는 비중은 1970년도의 27.7%에서 1999년 현재는 63.6%로 급증하였다. 1999년 현재 전체 농업 주종사자 중 여성은 52.5%로서 규모 면에서도 남성주종사자 수를 능가한다. 이는 전통적으로 가사에 종사하면서 부분적으로 농사일에 참여하던 농가의 여성노동력이 주농업 노동력으로 편입되어 여성농업인력에 대한 노동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의 농업 주종사자가 80년대 이후에 특수작물 중심의 시설농사나 상업농 성격의 전작에 많이 투입되었다는 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된다(경북여성농업인회연합, 2000)(표 II-5).

<표 II-5> 성별 농가인구의 취업 유형

단위: 천명, %

	1970		1980		1990		1995		1999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15세 이상 농가인구	4,218 (100.0)	3,932 (100.0)	3,835 (100.0)	3,762 (100.0)	2,771 (100.0)	2,580 (100.0)	2,150 (100.0)	2,021 (100.0)	1,929 (100.0)	1,771 (100.0)
농업주종사비율	27.7	75.1	32.7	65.7	54.7	61.6	61.8	59.9	63.6	62.8
겸업주종사비율	3.2	9.8	6.1	10.4	11.7	11.7	14.9	23.4	12.7	20.5
기타(학생,주부)	69.1	15.1	61.2	23.9	33.6	33.6	23.3	16.7	23.7	16.7

자료: 농림부, 「농업총조사」, 각년도.  
통계청(2000), 「1999년도 농업기본통계조사결과」.

70년대까지만 해도 농번기 때에 여성들이 겪는 이중노동의 고통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농산물 시장의 개방 및 상품작물 중심으로 농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수도작 이외의 과수나 특작 농가에서는 자본의 투여를 통해 1년 내내 생산이 이루어진다. 수도작인 경우에는 기계화율이 높기 때문에 남자가 대부분의 농사일을 하지만 시설재배에서는 전통적인 전작재배에서 남녀가 담당하는 부분이 뚜렷이 구분되어 있으면서 전통적인 전작재배에서 남녀가 구분되어 있는 관행에 의해서 여성들이 주로 담당하는 부분이 더 크고 이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노동부담이 매우 크다.

## 2.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일과 학습

### 가.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일

현재 보편적인 우리농업의 생산 구조는 가족농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생산 구조로서, 농사에 투입되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가족 노동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인력도 가능한 한 최대로 농업노동에

투입되고 있다. 1999년 현재 전체농가 인구 중 51.5%가 여성이고 농업주종 사자의 비율은 남성보다 높다. 농가의 전체노동 투하량 중 농촌여성·여성 농업인의 노동투하량은 98년 현재 46.6%에 이르고 있다(표II-6).

<표 II-6> 연도별 농업 노동투하량의 변화 추이

단위: 시간, %

연도	노동투하시간	가족농업노동		품앗이		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970	2,154.83	66.2	33.8	65.2	34.8	67.4	32.6
1980	1,814.00	58.3	41.7	49.5	50.5	57.4	42.6
1990	1,592.69	55.4	44.6	36.5	63.5	52.7	47.3
1995	1,413.67	54.1	45.9	37.9	62.1	51.8	48.2
1998	1,241.22	55.5	44.5	41.3	58.7	53.4	46.6

자료 : 농수산부, 「농가경제통계연보」, 각년도

출처 : 농림부(1999b), p.8에서 재인용

1966년에 농번기에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이 농사일에 투하한 노동시간은 3시간 25분이었다. 70년대 이전까지는 여성이 농업생산에서 주로 보조적인 역할을 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79년에는 무려 9시간 46분으로 나타나 농업노동시간이 3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1986년에는 11시간 21분을 농업노동에 투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노동이 엄청나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표-7).

<표 II-7> 농촌여성의 농번기 노동시간의 변화 추이

단위 : (시간:분)

구 분	1966 <sup>1)</sup>	1973 <sup>1)</sup>	1975 <sup>1)</sup>	1979 <sup>2)</sup>	1983 <sup>2)</sup>	1986 <sup>3)</sup>	1988 <sup>2)</sup>	1993 <sup>4)</sup>
농업노동	3:25	4:39	5:31	9:46	8:54	11:21	7:52	8:24
가사노동	8:29	6:40	5:15	4:28	4:28	2:58	4:52	4:34
계	11:54	11:19	10:46	14:14	13:22	14:19	12:44	12:58

\* 주 : 1) 진승규(1982),

2) 농촌진흥청, 「농가주부의 생활시간 분석」, 1980, 1984, 1988.

3) 한국여성개발원, 「농촌여성의 노동실태에 관한 연구」, 1987.

4) 농촌진흥청, 「농가주부 및 경영주의 생활시간 분석보고서」, 1994.

출처 : 한국여성개발원(1999b), p.37에서 재인용

을 2000년도에 비교적 젊은 60세 이하의 경북 여성농민을 대상으로 한 기초실태 조사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67.4%가 ‘전적으로’ 또는 ‘남편과 동등하게’ 농업노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제는 농촌여성·여성 농업인들의 노동 없이는 우리의 농업이 유지 될 수 없음을 알수 있다(경북여성농민회연합, 2000: 12-13).

그러나 여성농업인이 투여하는 노동력의 비율이 남성 못지 않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업인의 종사상의 지위를 보면 주체적인 생산노동으로 인식되지 않고 무급가족 종사자로 분류되어 보조적 위치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15세 이상 농가 여성 1,396천명의 종사상의 지위를 보면 전체의 78.9%가 농업 종사자로서 무급가족 종사자이고 16.0%는 경영주이고 나머지 5.1%는 가사종사자이다. 여성농업인의 16.2%를 차지하는 경영주 중 92.2%는 남성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경영주가 되었으며 5.3%는 배우자가 있으나 겸업종사자이기 때문에 경영주로 분류된 것이다. 부부가 같이 농업종사자이면서 여성이 경영주가 되는 비율은 0.9%에 불과하다(표Ⅱ-8).

하루의 일과를 중심으로 보아도 여성농업인의 노동량은 전체적으로 남성보다 길게 나타나고 있다. 농번기일 경우 여성농업인의 하루 총 노동시간은 12~16시간에 달하지만 무급의 조력자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여성농업인의 생산가치에 따른 임금을 산출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적극적 생산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표Ⅱ-8> 15세 이상 농가여성의 농업종사상의 지위

단위: 천명, (%)

계	경영주		농업 종사자		가사 종사자
	무배우	유배우	주종사	겸업종사	
100.0(1,396)	14.7	1.3	68.8	10.1	5.1

자료: 농림부, 「1995년 농업총조사」 원자료.

출처: 농림부,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2001~2005)」, p.37을 재정리.

## 나. 농촌여성 · 여성농업인의 학습

### (1) 학교 교육

여성농업인들이 농업생산 주체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업 인력으로서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각종 교육 훈련들을 제공받아야 한다. 현재 여성농업인의 학력은 한국사회 전반적인 고학력화 추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국 여성의 초등학교 졸업자 이하의 비율은 1970년도에는 84.7%이었다가 1995년도에는 36.2%로 감소하였다. 고등학교와 대학졸업자의 비율은 동기간 중에 각각 5.5%, 1.6%에서 33.1%, 12.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농가 여성의 초등학교 졸업자 비율은 1970년도에 94.7%에서 1995년도에 71.9%로 감소하여 전국 평균보다 적게 감소하였고, 고등학교와 대학 졸업자의 비율은 1.2%, 0.1%에서 13.7%, 2.4%로 전국 평균보다 적게 증가하였다(표Ⅱ-9). 1995년 현재 30세 미만의 농촌여성의 평균 교육년수는 12년 전후로서 고졸정도의 학력이며, 30-40대는 중퇴 수준이며 50대 여성의 경우는 국졸 수준이다. 이는 농가 남성의 학력보다 평균 2.4년 정도가 낮은 수치이다(표Ⅱ-10).

표에 나타난 수치로 보아 향후 40대 이하의 젊은 여성의 학력이 중졸 정도로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향후 농업 생산부문의 인적 자본의 형성 전망을 밝게 해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30대 이하의 젊은 농가 여성이 이농하지 않고 농촌에 머물며 농업생산활동에 종사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 또한 밝지 않다. 농가여성의 전국적인 고학력화 추세에 힘입어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었으나 교육받은 젊은 여성 인구의 집중적인 이농으로 농업부문에서의 여성학력의 향상 효과는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한국여성개발원, 1999a : 34-35)

<표Ⅱ-9> 성별 농가여부별 학력분포의 추이



(단위 : %)

		남성		여성	
		전국	농가	전국	농가
1970	초졸 이하	61.2	83.2	84.7	94.7
	중졸	15.1	9.8	8.2	4.0
	고졸	15.2	5.9	5.5	1.2
	대졸 이상	8.5	1.1	1.6	0.1
1995	초졸 이하	18.6	50.3	36.2	71.9
	중졸	14.5	17.4	16.9	12.0
	고졸	41.2	26.4	34.1	13.7
	대졸 이상	25.7	5.9	12.8	2.4

자료 : 농림부, 「농업총조사」, 각연도.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각연도

<표 II-10> 농가여성의 연령계층별 평균 학력년수의 분포(1995년)

(단위 : 년)

연령계층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세 이상	평균
학력년수	11.3	12.7	11.7	9.7	8.1	7.5	6.7	5.8	4.9	3.7	2.5	1.2	6.4

자료 : 농림부, 「1995년 농업총조사」, 정기환(1996)에서 재정리.

출처 : 한국여성개발원(1999a), p.35에서 재인용

전문적인 농업인 육성을 위해 고등학교 과정으로 설립된 것이 농업계 고등학교이다. 1999년 농업계 고등학교 전체 졸업자 26,877명 중 여학생 졸업자 비율은 32.3%로, 여학생이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 여학생의 전공분포를 보면 전통적으로 여성적 분야라고 간주되는 식품관련과(식품가공, 식품산업), 원예관련과(원예, 도시원예, 생활원예, 시설원예, 자영원예) 등에 46.6%가 집중되어 있다. 농촌 농업의 기반이 되는 기계, 축산, 자영농 분야에는 농림계 여학생의 소수가 분포되어 있다. 앞으로 전개되는 농업의 규모화, 상업화 추세에 따라 필수요소로 되어 가는 농기계 운전 및 기계조작 능력을 갖지 못한다면 여성농업인들의 인적자본 경쟁력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표 II-11> 농업계 고등학교 과정별 학생 수

단위: 명

구분	합계		졸업상황							
	학생수		졸업자		진학자		취업자		국가기술자 격취득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총 계	746,986	366,049	291,047	145,106	122,170	51,812	149,543	83,332	126,527	46,690
농림계	26,877	8,688	9,865	3,229	4,201	1,225	4,472	1,597	4,745	1,288
농업과	793	306	325	107	103	27	178	65	78	7
농업기계과	3,279	175	1,261	83	463	22	630	57	751	24
농업토목과	1,361	72	532	10	288	3	211	7	382	8
식품가공과	3,857	1,897	1,372	744	637	332	605	319	621	288
원예과	3,466	1,476	1,476	712	525	226	767	386	641	268
임업과	253	29	121	30	49	6	42	15	51	2
자연농과	582	58	225	13	98	8	92	5	26	-
잠업과	25	10	43	12	17	-	15	9	15	4
축산과	1,388	288	557	128	215	24	230	80	296	56
농업전산과	896	408	437	234	204	86	187	129	263	109
농업유통정보과	1,483	531	571	224	301	112	249	108	256	103
도시원예과	652	321	187	94	77	36	70	26	113	44
농업중장비과	139	-	78	6	6	-	44	4	36	2
녹지도목과	66	18	32	8	18	5	10	1	18	2
농업기계정비과	63	-	72	-	24	-	42	-	34	-
조경과	1,610	647	504	211	273	97	201	100	243	83
생활원예과	941	458	349	151	172	76	106	54	190	98
동물자원과	647	171	228	33	88	5	116	24	167	29
환경보건과	406	193	160	65	82	32	64	30	49	18
시설원예과	307	133	118	58	42	19	63	32	38	33
식물자원과	687	341	206	109	75	43	89	46	100	55
산업기계과	1,191	280	247	19	129	14	91	5	83	-
식품산업과	238	151	73	31	47	22	22	8	-	-
생물과학과	408	220	69	24	36	7	28	16	-	-
농업경영과	455	72	181	21	83	8	94	13	159	16
자연원예과	348	135	43	25	10	2	15	7	15	13
자연축산과	224	16	36	-	9	-	13	-	11	-
생물응용과	74	-	45	23	4	-	28	16	-	-
농업유통과	160	68	-	-	-	-	-	-	-	-
자연과	810	180	280	30	112	4	154	24	80	8
자연생활과	-	-	-	-	-	-	-	-	-	-
사육과	-	-	-	-	-	-	-	-	-	-
생산환경과	68	34	37	24	14	9	16	11	29	18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1999) 「교육통계연보」

## (2) 사회 교육

농촌여성·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은 시·도단위 농업 기술원, 시·군단위 농업기술센터, 단위농협, 시·군청 등에서 여러 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육내용을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식생활 개선이나 일반교양 및 취미 교육이 중심이고, 농협은 자녀교육과 경로효친 등 가족관계, 레크레이션 등으로 생활교양 교육이 많다. 교육 방법은 대부분 대중강의 형식으로, 많은 수를 대상으로 짧은 시간에 전달하는 단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영농기술교육과 경영교육은 주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특정 작목 영농기술교육, 농기계 교육, 축산기술 교육 등이 있다. 시·도단위의 광역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시·군 단위 보다 교육기간이 길고 보다 전문적인 기술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영농기술이나 농업동향에 대한 교육에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이 이 참석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여성농업인들이 교육에 참여하게 되는 경로는 주로 농업기술센터와 농협 등 교육시행기관 측이 담당직원들과 전화나 편지, 안면을 통해서, 연락한 것을 받고 참석한다. 또는 이장을 통해서 연락을 받고 참석하기도 하고 부녀회장이거나 생활개선회장이 알려 준 정보에 의해서 참여하기도 한다. 교육에 대한 정보가 교육기관 중심으로 알려지고 여성들은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여성 참여율은 10%정도로 미약하고 교육 참여 경험이 많은 여성은 여러 기관의 교육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9a : 189).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성농업인도 변화하는 농업동향에 대한 지식과 정보에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한국여성개발원 1997 : 136).

대부분의 여성농업인들이 여러 과정의 교육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농사일과 집안일 때문에 시간을 내기 힘들어서'가 가장 많다(한국여성개발원, 1999a : 137-139).

한편 농촌여성 교육기관은 전통적으로 농촌여성을 의식주를 책임지는 가정의 주부로서 인식하여 왔고 오늘날에도 기본적으로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여성농업인을 생산자로서 인식하고 그에 걸맞는 역할 수행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데는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농업 기술원이나 농협의 여성교육에서 영농기술교육과 경영교육을 하고 있으나 그 수가 제한적이고 이 역시 농가의 보조 노동력을 전제로 하는 교육이다. 즉 농촌여성을 여성농업인으로 교육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농민의 아내를 교육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이 농업문제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는 동떨어지고, 나아가 성별에 의한 역할 분담을 고정시킴으로써 여성농업인이 더욱 주변적 위치에 머무르게 하는 교육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의 교육참여도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현실과 특수성이 고려된 교육조건과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기간 중, 탁아 시설의 미비, 가사전담자로서 숙박교육에 대한 부담 등이 미 해결된 채로 남아있어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교육 접근도는 낮은 수밖에 없다.

### 3.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 가. 농촌여성 관련 법

##### (1) 농촌여성 관련법

##### (가) 여성발전 기본법

「여성 발전기본법」 제 22조 3항에는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는 노인 여성 및 농어촌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농촌여성 관련 내용이 명문화 되어있다. 그러나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안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또 시행령에는 농촌여성 관련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거의 없는 형이다.

1995년 여성발전 기본법 제정 당시 여성 농민단체들은 소외된 계층인 농촌여성과 요보호 여성등에 대한 우대 조치와 기본권리를 명시할 것을

요청했으나 농촌 여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명시되지 못하였다. 또한 모법에 농촌여성에 대한 권리 수혜 원칙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수립되기에 어려움이 있다.

#### (나) 농업·농촌기본법

「농업·농촌기본법」이 법률로 제정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법 제 14조에서 여성농업인의 육성을 명기하고 있다.<sup>2)</sup> 이 법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개념은 15세 이상으로서 ①1,000m<sup>2</sup>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②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자 ③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과거의 농업관련법에서는 여성농업인이라는 명칭이 없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여성농업인이 개인으로서 농업을 직업으로 하는 생산자로서의 존재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여성농업인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 (다) 농협법

1995년에 개정된 「농협법」은 여성농업인의 조합원 가입규정 3개 조항을 신설하고 제한적으로 여성에게 가입을 개방하였다가<sup>3)</sup> 2000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이 조항도 삭제하여 여성조합원도 가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였다. 그러나 단위조합마다 차이가 있지만 가입 시 요구되는 평균 30~50만원 정도의 출자금에 대한 부담과 홍보 부족으로 여성의 농협회원 참여는 2000년 11월 현재 351,339명으로 16.89%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

2)농업·농촌기본법 제 14조에서는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政策의 樹立·施行에 있어서 女性農業人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女性農業人의 地位向上과 專門人力化를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3) ①동일가에서 가구원이 각각의 경영책임을 지고 업종을 달리하는 경우

②후계 농업인, 전업농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지정, 또는 양성하는 후계세대 가구

③동일가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가구원이 55세 이상이거나 경영능력을 상실한 경우

(라) 기타 농업 관련법

「재해보상법」, 「의료 보험법」, 「농어민 연금법」 등 농업관련 법령이 정비되어 있으나 여성농업인 관련 조항은 명문화 되어있지 않다.

각 도와 각 시·군의 자치단체도 여성농업인 권리조항이 조례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없어 여성농업인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 나. 농촌여성·여성농업인 관련 정책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은 전문인력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최근 발표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여성정책이 (여성 사회참여를 위한 10대 과제 선정, 여성발전기본법 등) 전체 여성적 측면에서는 과거보다 상당히 진전되었지만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특수한 상황을 거의 반영하고 있지 않다.

1999년에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시행령 제 7조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한 바 있다. 농림부에서 2000년 10월에 확정·발표한 이 계획은 향후 농업·농촌의 비전과 여성농업인이 처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지위향상·삶의 질 제고를 통한 건강한 농촌가정의 구현과 농업·농촌사회의 발전’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정책들의 실효 여부는 관련부처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이에 따른 예산 집행이 관건이 될 것이다.

(1) 정책 추진 체계

(가) 여성정책담당관실

1995년 북경여성대회에서 채택된 성주류화 전략에 의하면 여성농업인 관련정책 역시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역할 재정립을 위한 관점에서 모든 정책과 과정을 재조명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여성정책 주류화를 추진하기 위해 6개 행정부처내에 여성정책담당관을

배치하였고 농림부에도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여 부처내의 업무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의 필요성이나 공감대가 미흡하여 여성농업인을 위한 예산이 별도로 배정되어 있지 않고 농림부의 각 부서에 흩어져 있어 개발된 여성농업인 정책을 집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2000년에 농림부에서 마련한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에서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와 여성농업인 정책의 효율적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의 농정관련과에 “여성농업인력계”, 시·군의 농림축산업 관련과에 “여성농업인 관련업무 전담인원”을 배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나) 여성농업인 정책 자문회의

1996년 4월부터 농림부장관 직속으로 여성농업인 정책자문회의를 설치하였고, 2000년 12월 말 현재 총 4차에 걸쳐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최근 2000년 6월 20일에 열린 4차 여성농업인 정책 자문회의의 안건을 살펴보면, 여성 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시안), 농가 도우미 시범사업 추진상황, 2000년 주요업무 현황(여성농업인 정책)등이다.

#### (2) 여성농업인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1998년 8월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는 여성의 관점에서 제반 농업정책을 점검·평가하고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기본계획의 목적은 농업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전문농업인으로 육성·지원하는데 중점을 두며, 여성농업인의 농업생산 활동과 가사활동에 대한 노동가치를 새롭게 평가하여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돌아오는 농촌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다.

목적에 따른 정책과제는 ○법·제도적 장치마련, ○정책추진 체계정비,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삶의 질

제고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세부과제를 마련하였다. 이는 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여성농업인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과제를 선정하여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는데 큰 의의를 갖는다.

(가) 법·제도적 장치마련

법·제도적 장치 마련 부분에서는 농업·농촌 기본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였다. 각종 농업관련 위원회에 여성농업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보완·정비하고 있다.

(나) 정책추진 체계 정비

정책추진 체계 정비 분야는 여성농업인 정책 자문회의 상설 운영, 농림부내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율 제고, 농림부내 여성정책 협의회 설치, 지방자치 단체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타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여성농업인 정책 자문회의는 2000년 말 현재 4차에 걸쳐 개최되었고, 농림부 내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율은 2000년 말 현재 23.2%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협조체계는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에서 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과제 중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육성 제도 개선은 시행하고 있는 중으로, 후계 인력의 증가가 꾸준히 이루어져 2000년에는 18.4%가 선정되었다.

여성농업인의 체형에 적합하고, 여성농업인이 주로 종사하는 밭농사용 농기계의 개발·보급은 일정성과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중화는 아직 미흡하다. 여성농업인이 농기계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추고, 기계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여성의 특수성을 감안한 농기계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강화에 대한 과제는 연구 용역 사업으로 추진하여 「여성농업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보고서가 완료·배포되었다. 여성농업인을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에서 필요한 것은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농업, 농촌 현장의 제반조건의 확충이 필요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수준에 맞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농촌실정과 여성농업인을 잘 이해하는 강사도 함께 발굴되어야 한다.

(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및 공무원 의식교육의 강화와 여성농업인 대회의 개최 등 사기 진작 방안의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마) 삶의 질 제고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과제로는 대행 서비스제도 도입, 농촌 보육시설 확충, 문화행사 개최, 성폭력·가정폭력 상담 및 보호시설 설치를 제시하고 있다. 대행 서비스 제도로는 농가 도우미 제도를 시행·확산하고 있는데, 2001년부터는 전국 87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

농림부에서는 여성농업인 정책의 일관성·연속성 유지와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본지침으로서 2000년 10월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2001~2005)을 마련하였다. 이는 농업경영 활동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대와 그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성농업인의 지식농업에 대한 대응능력향상과 농촌사회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를 갖는다.

기본시책방향은 크게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강화, 지위향상 촉진, 삶의 질 제고, 정책시스템 구축 등 4가지로 분류된다(표Ⅱ-12 참조).

<표 II-12>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 기본방향 및 핵심 정책과제(2001~2005)

기본시책방향	핵심정책과제	
<b>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강화</b>  신기술·신지식 농업으로의 이행과 친환경 농업의 확산, 유통 및 식품 안전을 비롯한 농업관련 산업(agri-business)의 발달 등 급속하게 변화하는 농업환경에의 대응능력 강화	<b>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b> ○ 여성농업인의 전문교육훈련 ○ 여성농업인 전문교육시스템 구축 ○ 여성농업인 해외농업 연수	
	<b>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b> ○ 후계여성농업인 육성 ○ 여성농작업의 기계화 추진	
	<b>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촉진</b>	<b>여성농업인의 사회참여 활성화</b> ○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촉 확대 ○ 여성농업인의 협동조합 참여확대 ○ 여성단체 위탁사업 활성화 ○ 여성농업인단체활동 지원 ○ 여성농업인의 전문직업의식 고양
	농업노동·가사노동 및 지역사회 의 활동 등 농업·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대한 위상의 재정립과 양성평등의 실현을 통한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촉진	<b>여성농업인센터운영 지원</b>
	<b>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b> 유능한 여성세대의 농촌정주를 위한 농가도우미제도 등 농촌지역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	<b>모자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b>  <b>농가도우미제도의 정착</b>
<b>여성농업인 정책시스템 구축</b> 성인지적 정책개발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여성농업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b>여성농업인정책과제의 개발 연구</b>  <b>여성농업인정책 추진체계 정비</b>	

자료 : 농림부

(4) 여성농업인 전문인력 육성 농업인 후계자 제도

농림부는 농업인 후계인력 선정과정에서 여성 영농세대주에게 가산점 (50/700점)을 주고, 혼인 전 영농 종사경력도 인정하며, 20% 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대조치의 시행을 권고하여 왔다. 2001년부터는 여성 영농세대주에게, 총점 6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20점을 가산해주고 학력 및 영농 교육훈련실적에서 남성보다 최고 30점, 영농경력에서 최고 20점, 영농기반 점수에서도 최고 30점 정도 까지 가산해주는 등 우대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의 우대조치를 실시한 결과 각 도에서 연간 선정된 후계 농업인 중 여성 비중은 전체적으로 1992년 2.4%에서 2000년 18.4%로 증가하여 전체 후계자 중 8.1%가 여성으로 증가하는 양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표Ⅱ-13). 그러나 부부농업후계인의 가능성이 제도적으로는 열려 있다고 할지라도 선발과정에서 형평을 이유로 한 여성농업인의 탈락이 많아 현장의 여성농업인들이 제도의 실효성을 실제로 크게 체감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 또 정부의 후계자 정책은 자금지원에 거의 치중되어 있고 농업경영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나 교육을 중심으로 한 후계인력육성의 측면이 부족하다.

<표Ⅱ-13> 연도별·성별 영농후계자 선발비중

단위 : 명(%)

년도	선정인원	성 별	
		남	여
1990	1,850(100.0)	1,809(97.8)	41( 2.2)
1991	1,350(100.0)	1,329(98.4)	21( 1.6)
1992	9,000(100.0)	8,787(97.6)	213( 2.4)
1993	9,000(100.0)	8,733(97.0)	267( 3.0)
1994	8,340(100.0)	7,898(94.7)	442( 5.3)
1995	9,730(100.0)	9,135(93.9)	595( 6.1)
1996	8,227(100.0)	7,520(91.4)	707( 8.6)
1997	8,526(100.0)	7,703(90.3)	823( 9.7)
1998	7,862(100.0)	6,851(87.1)	1,011(12.9)
1999	4,819(100.0)	3,839(79.7)	980(20.3)
2000	4,674(100.0)	3,815(81.6)	859(18.4)

출처 : 농림부

#### (5) 정책결정의 참여기회

여성농업인은 농업의 주노동력으로서, 농촌사회를 유지하는 인력이었 으면서도 제도적으로 그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농림부나 농협 등에 있는 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농업관련위원회의 정책 결정 수준의 의사결정에 여성으로서 참여할 기회도 거의 없었다.

2000년 12월 말 현재 농림부 산하 21개 농림정책관련 위원회의 위촉 직 위원은 168명이며, 이 중 여성위원은 39명으로 여성참여율은 23.2%에 이르고 2001년에는 3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 비해 상당한 성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수나 참여상황을 고려 한다면 아직 대표성에 있어서 미흡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시군 농정심 의회 등 자자체의 농림정책관련 위원회의 여성참여는 더 낮은 실정이다.

농협 등 각종 협동조합과 직능별 생산자단체에서도 여성농업인의 참 여나 지위 역시 매우 낮은 현실이다. 그러므로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사 업을 결정하거나 여성농업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이나 의사결정기구에 참 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2000년 현재 여성은 전체 조합원 의 18.69%를 차지하고 있으나 여성이사는 2000년 현재 전국적으로 19명, 감사 2명, 대의원 347명으로 여성농업인의 대표성이 떨어지고 있다.

### 다.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복지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농촌지역 여성의 68.2%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응답할 정 도로 건강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황경애, 2000 : 54). 농촌지역의 여성들 도 문화 및 여가에 대해 누리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활동을 위한 공간 이나 기회가 거의 없어서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한국여성개발 원, 1999b : 113).

농림부의 조사에 의하면 농촌여성들은 농촌생활 전반에 대해 아주 만 족하거나 비교적 만족하는 비율이 31.2%이고 아주 불만족하거나 약간 불만족하는 비율이 32.9%로서, 전체적으로 불만족한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농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88%로서, 전체적으로 현재의

농촌생활에 대한 평가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농촌생활에 대한 가장 큰 불만족의 이유는 '소득의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정책개선 분야는 '복지 시설의 확충'이 전체의 33.6%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복지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농림부, 1999 : 86-89). 여성농업인들의 2/3는 농촌지역에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로서 무료건강검진과 물리치료실을 요구하고 있어 건강과 관련한 복지 서비스의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농림부, 1999 : 146-149).

이 절에서는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복지를 주로 건강과 모성보호 및 모자보건, 아동보육 및 교육문제에 관련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 (1) 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

농업노동의 주년화와 시설재배의 증가로 여성농업인의 건강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장시간 햇볕아래서 일을 하고 농약, 비료 등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어 호흡기, 피부, 신경계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농촌여성에게는 일종의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는 손발 저림, 건통, 요통, 두통 등의 증상을 수반하는 농부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농부증은 농촌여성의 43.4%(남성 : 22.0%)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농촌여성들은 피로와 근육 및 근골격계 질환, 순환기계 증상을 많이 호소하며 정신적으로는 긴장, 불안, 부적합의 증상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87. 문영주, 1997).

그러나 농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의료기관 및 병상분포, 의료인력이 부족하고, 교통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이광원, 1988). 종합병원 등 많은 병원이 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읍·면에 거주하는 농촌여성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기 어렵고, 면 단위에 있는 개인 병원에서 응급조치만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전문진료기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어렵다. 실제로 농촌여성들은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 못하고 이용하더라도 불편하며, 의료비에 교통비도 추가해야 하는 실정이다. 농촌여성·여성농업인들은 자신들의 병을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생기는, 다 아는 병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가족들이 아픈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는 비율이 높지만 자신의 몸이 아프면 웬만하면 참고 견디는 비율이 높다(황경애, 2000 : 120).

이러한 농촌여성의 건강문제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보건의료 사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보건소의 연 2회 부인병 검진, 농번기 순회진료와 같은 제한적 진료체계 뿐이며 일시에 많은 인원을 검진해야 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농촌지역 보건소의 기능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 기능보다 법정 전염병의 예방주사 투여기능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농촌사람들은 보건소가 농촌지역 건강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표Ⅱ-14).

농촌진흥청에서는 건강관리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곳은 일부에 불과하다. 한번 시설 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는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곳이 많으므로, ‘물리치료실’, ‘찜질방’, ‘목욕탕’, ‘휴게실’ 등의 시설들이 설치만 되어있고 사장되어 있는 실정이다(황경애, 2000 : 133). 그리고 실제 수혜자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마을 주민에게만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들이 직면한 건강문제는 현실적으로 거의 방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농촌여성이 질병을 앓을 경우에 자주 찾는 진료기관은 농촌지역의 의료체계인 보건소가 아니라 병원이나 의원(58.4%)이 가장 많다. 농촌진료 체계로서 늘 거론되는 보건소보다 병원이나 의원을 더 자주 찾는 이유는 ‘거리가 가까워서’가 38.7%, ‘오래 기다리지 않아서’가 29.5%로 나타난다. 거리가 가깝고 오래 기다리지 않고 진료비가 비싸지 않는 진료기관을 농촌지역 주민들은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농림부, 1999: 119-123).

<표Ⅱ-14> 보건소 등 설치현황

단위: 개소

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소	보건의료원		
3,447	226	17	1,272	1,932

출처 : 농림부(2000),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 p. 103

(2) 모성보호 및 모자보건

농촌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경우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서 시·군 소재지까지 나가야 하는 불편 때문에 제대로 정기 검진을 받지 못하고 출산 후에도 과중한 노동으로 인해 모성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부에서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예정)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농가 도우미가 농사일을 대행해 주는 농가 도우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출산 전후 120일 기간 내에 30일 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국고 지원액은 1일 8시간 기준 12,000원이고 나머지는 이용 농가가 부담한다. 2000년에는 68개 시군에서 1,664명의 여성농업인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는 국고 지원액이 적어 농가의 부담이 큰데다가 출산에 관련되어서만 이용할 수 있고, 이용 기간도 출산 전·후 각각 60일 이내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조항 때문에 그 수요가 제한되어 있다. 2001년에는 87개 시·군으로 이용범위를 확대하고 사업비 13억 5천만원 중 국고보조 40%, 지방비 40%, 농가자부담 20%로 부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원액은 일인당 21,600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표Ⅱ-15).

<표Ⅱ-15> 연도별 농가도우미 지원실적 및 계획

		2000	2001	2002
사업량	시군수	68	87	163
	대상인원	1,664	1,667	5,431
사업비 (백만원)	계	1,198	1,350	4,400
	국고보조	599	540	1,760
	지방비	-	540	1,760
	농가자부담	599	270	880

출처 : 농림부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제도는 농업의 생산성 제고뿐 아니라 모성보호의 사회부담화, 농업의 공익성을 국가에서 인정하는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농업인들의 복지증진차원에서 출산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계획한 바 있으나 강원도 인제군을 제외한 곳에서는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 인제군도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지 않고 단체장의 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어 지속적인 지원이 불확실한 상황이다(한국여성개발원, 1999a : 177).

### (3) 아동보육 및 교육문제

유아기 아동이 있는 젊은 여성농업인의 경우 시설재배 등의 장시간 농업 노동으로 인하여 농촌 아동의 보육 문제는 상당한 부담이다. 2000년 현재 보육시설 수를 지역별로 보면 동당 8.0개소, 읍당 6.7개소, 면지역은 1.1개소로 면이하 농촌지역의 보육시설이 적은 실정이다. 면당 5세 미만 아동수를 보면 평균 267명으로 동(1,269명)이나 읍(1,494명)에 비해 아동수가 1/5 정도(표Ⅱ-16)에 불과하지만 거주지역이 산재되어 있어 해당 농촌지역의 보육수요 충족율은 64%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나마 국·공립보다는 사설 보육시설이 많아 재정적 부담이 크다. 특히 3세 미만의 영아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경우 아이를 데리고 일터에 나가는 경우가 많다(한국여성개발원, 1997 : 132).

농림부의 여성농업인 정책 기본계획에서는 농촌지역의 보육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농촌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현재 농촌지역에 소재한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중 4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및 취사부 각 1명의 인건비 지원(100%)과 차량운영비 1년에 1백 4십여 만원을 지원한 것이 전부이다(농림부, 2000: 96).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 보육시설은 예산이나 교사 확보, 아동 확보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농촌에서 학령기의 자녀를 둔 가족들이 교육문제 때문에 이농함으로써 농촌지역의 100명 이하의 학교가 통폐합되고, 그 결과 농촌이 황폐화되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 농촌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아동지도시설은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부모가 일터에서 돌아올 때까지



하루 평균 5~6시간 이상 방치되고 있거나, 도시지역 아동들과 비슷하게 방과 후 2-3개의 학원을 순회하는 사설학원차량에 의해 전전하는 경우도 많다.

농림부에서는 1ha미만을 경작하고, 자녀가 실업계 고교에 다니는 경우 1인당 연 6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2001년도에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자녀가 있는 모자농업인의 경우에도 학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II -16> 지역별 보육시설 수 및 아동수(2000.9.30 현재)

구분	전체	도시지역	농어촌지역			비고
			계	읍	면	
보육시설	19,266개소	16,638	2,628	1,322	1,306	읍당 6.7개소
보육아동수	684,359명	554,113	130,246	66,013	64,233	면당 1.1개소
5세미만아동수	2,681,581	2,674,375		289,867	327,514	동당 8.0개소

자료: 1) 보건복지부 내부자료에서 정리 2) 통계청(1999), 주민등록인구통계

#### 4.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활동

농촌지역 여성조직은 일정한 목표 추구를 위해 구성원간에 상호작용을 하는 여성들의 집합체로 정의할 수 있는데 조직목표 및 수행의 공식화 여부에 따라 공식적 조직과 비공식적 조직으로 분류할 수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9b : 14). 비공식적 모임은 농촌지역의 계나 품앗이, 친목모임, 취미반 등이 있고 공식적 모임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조직으로서 새마을 부녀회나 지역여성 농민회 등이 해당된다. 부락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지역사회 활동은 품앗이, 두레, 계 등 비공식적인 모임에 의해 유지되어 왔으나, 농촌도 근대화 과정으로 편입됨에 따라 공식적인 지역여성 조직이 이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이 절에서는 미래의 농촌지역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지역모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역생산자 모임 이외에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농촌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 가. 지역생산자 모임

농촌지역 생산자 지역모임은 전국적으로 약 2만개 정도의 농업 후계자를 중심으로 하는 작목반과 영농조합, 생산자협회 등이 있다. 최근 농업의 구조가 상업농으로 바뀌어 가면서 불안정한 시장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생산과 공동출하를 위한 각종 협동조직이 증대되면서 생산자 모임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 조직은 농업생산자재의 공급, 신제품 도입, 기술 보급, 농산물 유통에 이르는 다양한 기능과 활동을 공동으로도모하면서 새로운 농촌지역 지역모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여성은 새로운 농사기술과 판매 유통 경로 등에서 남성농업인의 보조자로 간주되어 생산자 모임에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 나. 새마을 부녀회 중앙연합회

농촌여성·여성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지역 모임은 마을 단위의 새마을 부녀회다. 2000년 12월 현재 17개시·도, 239개 시·군·구, 3,617 읍·면·동에 조직되어 있고 지도자는 84,202명, 회원수는 1,745,135명이다. 1988년 이후 새마을 운동자체가 쇠퇴함에 따라 그 기능이 많이 감소하였고, 90년대 중반 이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감축되거나 중단됨으로써 조직이 침체되어 가는 실정이다.

새마을부녀회 조직은 회장과 총무,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부락마다 설치되어 있는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활동을 한다. 새마을부녀회는 마을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참가하여 매달 한번 정기회의를 갖고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회비도 걷는다.

예산은 매달 회비를 걷기도 하지만 재활용품 수집을 하거나 마을에 필요한 물품을 공동구입 또는 공동판매를 하여 기금을 모으고 이 기금으로 자체 연중 행사나 사업을 한다.

도시의 새마을부녀회가 재활용품 수거 등 임원 중심의 제한된 활동에 그치는 경향에 반해 농촌의 농촌지역 새마을 부녀회의 활동사업을 보면, 5월 어버이날 즈음해 노인정에서 경로잔치를 열고, 연말에 불우이웃 돕

기, 재활용품 수집 등의 일을 한다(표 II-17). 마을 잔치나 관혼상제시에는 부녀회원들이 모여 음식 준비, 뒷설거지 등의 일을 하는데 외양으로 볼 때는 집안에서 하는 가사노동의 연장이지만 실제로는 상호 부조의 정신, 마을 공동체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측면이 많다(정해경, 2000: 7).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일년에 한 두 번 관광을 가거나 부녀회원들끼리 시간을 내어 가까운 읍내나 시내에 있는 노래방에 가서 놀기도 한다. 농사일에 힘들어 지친 나날에서 한번쯤 밖에 나가 스트레스를 푸는 것을 현대에 들어와 변형된 농촌의 놀이문화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다. 힘든 농사일로 지치고 맺힌 몸을 노래와 춤이 들어간 놀이로서 풀어주고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는 계기가 전통적인 농촌부락의 절기나 명절 행사였듯이, 이런 모임이 그러한 전통적 놀이의 성격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여성모임들이 농사일의 고달픔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여흥성 모임으로 기울어지고, 근본적인 농촌지역의 현안 문제나 여성 문제를 다루지 않는 점은 다시 분석·점검해 볼 문제로 보여진다(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0, 워크숍 논의 자료).

새마을부녀회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지도자 중심체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여성문제나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문화, 복지 프로그램들이 없어, 회원들의 소속감이 없다는 점이 부녀회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리고 새마을 부녀회가 여성들의 자주적 모임이라기보다는 관료적 행정지도에 따른 비자발적, 관 주도적 성격을 갖고 출발하였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함태홍, 1986 : 76-79).

<표 II-17> 새마을부녀회 중앙연합회 2000년 주요사업

구분	주요 사업 내용
생활의식 개혁운동	행복한 가정만들기 충, 효, 예 실천 건강 생활 실천운동
민간사회 안전망운동	재난구호 봉사대 이웃사랑 사랑의 노인 섬기기
환경 보전운동	알뜰마당 환경안내소 음식물 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등
지역 활성화운동	농산물 직거래 국민저축운동 내고장 가꾸기
국제화 통일준비 운동	북한동포돕기 UN협력사업

자료 : 2000.12월 말, 새마을 부녀회 중앙연합회 내부자료.

## 다. 농가주부모임 전국연합회

농협은 부녀회를 1977년 농촌여성조직이 행정지시에 의해 새마을부녀회로 통합된 이후에도 종전 농협의 자체조직이었던 ‘부녀회’를 내부조직으로 육성해 오다가 1994년 45세 미만의 ‘젊은 농가 주부들의 모임’을 새로이 조직하였다. 그 이후 1995년 11월에 참여 주부들의 연령을 50세로 연장하고 조직명칭도 농가주부모임으로 바꾸었다. 기존의 농협내 부녀회는 복지부문과 농협이용의 활성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농가주부모임은 농촌의 미래 뿌리조직으로서, 농촌여성을 위한 농정활동 및 생산자조직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2000년 12월 현재 1,232개의 읍면단위에 37,192명의 회원이 있다.

농가주부모임의 주요활동은 영농기술, 경영, 농기계 조작교육과 농촌부녀자 복지를 위한 농정활동, 농·도 공동체운동, 취미 활동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협 연계사업개발 등을 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품목별 협의회를 구성하여 단위조합과 지역본부 차원에서 견학과 교육활동도 전개하고 농산물 생산이나 가공 등 공동소득사업을 벌이기도 한다. 또 농협에서는 조직 활성화와 여성의 농협참여 확대 사업으로 여성 조합원 가입확대, 이사회에 여성참여, 조합에 여성분과위원회 설치등을 추진하

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9b : 59). 이러한 단체를 운영하는데는 농협의 여성복지담당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기획, 추진하고 인원을 동원하고 있는데 회원들의 자발적인 활동은 미약한 편이다. 농가주부모임의 2000년 주요활동 및 사업실적은 (표Ⅱ-18)과 같다.

<표Ⅱ-18> (사)농가주부모임 전국연합회 2000년 주요활동 및 사업실적

구분	사 업 내 용
주요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농업인 초청 간담회 참석</li> <li>◦ 농림부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 관련 공청회 참석</li> <li>◦ 여성농업인정책 자문회의 참석</li> <li>◦ 여성농업인 지도자 리더쉽 교육 참석</li> <li>◦ 농업관련단체장 초청 간담회 참석</li> </ul>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농가주부모임 전국연합회 임원 해외연수</li> </ul>
정기총회 및 이사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농가주부모임 전국연합회 2000년도 정기총회 개최</li> <li>◦ (사)농가주부모임 전국연합회 2/4분기 이사회 개최</li> <li>◦ 제2회 농가주부모임 PC경진대회 및 3/5분기 이사회 개최</li> </ul>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회 농업인의 날 기념 「여성농업인 2000한마당」 행사개최</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자치부 2000년 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 : 고령농업인을 위한 전문헬퍼 양성</li> <li>◦ 「농가주부모임 남해화학 결연사업」 계획 확정</li> </ul>

출처 : (사) 농가주부모임 전국연합회 내부자료.

## 라. 생활개선중앙회

생활개선회는 농업진흥청에서 농촌부녀자들의 생활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58년에 생활개선 구락부를 조직한 것이 모체가 되어 발전된 조직이다. 1977년 새마을 부녀회로 통폐합된 이후 1989년 새마을 부녀회 내에 생활개선부를 재조직해서 활성화했다가 1994년 10월 사단법인으로 창립되었다. 생활개선회의 목적은 ◦농촌가정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회원간의 친목도모 ◦농촌지역사회발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밝은 지역사회 실현 ◦농촌여성의 지위 및 권익향상 ◦농촌을 지켜나갈 여성후계세대 육성 및 지원 등이다. 2000년 6월 현재 전국 시·도 16개 지회, 시·군 172개 지회로 조직되어 있으며, 총 79,889명의 회원이 있다. 주요

활동과 사업은 ○교육, 봉사활동, 환경보호활동, 소득향상사업, 회의 및 행사 개최, 친목도모사업 ○생활개선교육과 농촌여성 전문인력양성 교육 등의 교육사업으로 의식주 교육, 전통놀이, 예절교육, 농산물 가공교육 등이다.

생활개선회는 시·군 단위 또는 읍·면 단위의 행정구역 단위로 조직되어 있으므로 도·농 통합지역에서는 여성농업인 뿐만아니라 아파트 지역의 주민들도 함께 조직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경우, 회원 간에 동질감을 느끼기 어렵고,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과 교육내용이 중복되어 마찰이나 갈등을 겪기도 한다. 그리고 같은 농업인들이라 하더라도 작목이나 관심이 다른 만큼 구체적인 사업이나 활동을 시도하기가 어려워 농촌여성·여성농업인 문제의 해결과 여성 농민의 지위향상과 관련된 사업수행은 미흡한 수준이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로 회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일반 회원들의 참여와 관심은 미흡한 수준이다. (한국여성개발원, 1999b : 56).

#### 마. 한국여성농업인 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중앙연합회(이하 한여농이라 함)는 1996년 8월 여성농업인후계자와 전국 후계 농업인 부인을 대상으로 조직된 자주적인 협동체로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농업경영의 합리화, 과학화 및 여성농업인의 권익확보와 지위향상 도모, 농촌의 제반문제 해결 및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여 복지농촌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0년 12월 현재 8개도 연합회, 시·군 연합회와 일부 읍·면 연합회가 결성되어 있고 전국 회원은 75,110명이다. 주요사업을 보면 ○회원상호간 친목도모 / 농업경영기술 보급과 교류 / 교육·의료·문화·생활개선 ○여성농업인 관련 조사연구와 상담 / 여성농업인의 여론조사와 건전한 정책건의 ○각종 자료출판과 회보 발행 / 교육 및 연구발표 / 국제교류와 해외 연수 ○각 유관단체 및 기관과의 연대 및 교류활동 /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등이다(농림부, 1999 : 185).

한여농은 조직 결성의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제반 사업이 조직의 목적을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나 회원확보 및 회원 기초교육, 회원

단합을 위한 각종 회의 및 전국단위 행사에 주력하고 있다. 2000년 사업 중에서 전국 농업인 관련 대회 참여, 각도 순회여성농업인 한마당 개최, 각종 세미나 및 정책 토론회 개최 및 농촌여성·여성농업인조직 연대활동 등이 있다. 농촌여성·여성농업인들의 생산자로서의 문제해결, 농촌 지역의 문제해결, 여성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연대활동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하 전여농이라 함)은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와 농촌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농민운동의 필요에 따라 자생적으로 조직된 모임이다. 80년대부터 쇠고기 수입반대, 수세거부 투쟁 등 농민 투쟁이 전개될 때마다 여성농민은 단순 가담자로서가 아니라 적극적인 세력으로 참여하면서 운동의 통일과 자주성 모색을 위한 노력을 한데서 전여농이 태동되었다고 볼 수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9b : 61). 1988년 3월 '전국여성활동간담회'가 개최된 자리에서 전국여성농민조직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가 결성된 후, 1989년 12월에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이 출범하였다. 목적은 이 땅의 자주·민주·통일과 여성농민의 인간다운 삶을 이룩하기 위하여 마을·면·군·도 여성농민 대중의 당면투쟁을 지원하고 자주적 여성농민 조직 건설함에 두고 있다.

전여농의 활동목표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식량주권, 소득보장, 환경보전, 통일대비 농업을 실현한다. ○여성농민의 농업 생산주체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확보한다. ○여성농민의 생산활동 지원으로서의 복지를 실현한다. ○농촌사회에 공동체 문화를 보전하고 농촌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한다. ○모든 민주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자주·민족·통일의 실현에 앞장선다.

전여농의 조직은 2000년 12월 말 현재 도여성농민회 연합 9개, 시군여성농민회 53개에 만 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표II-19)과 같다.

전여농의 사업과 활동이 다른 농촌여성·여성농업인 조직과 다른 점

은 운동단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지역여성 조직 및 농촌여성·여성농업인 조직이 교육사업, 봉사활동, 환경보존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비해 전여농은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문제해결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운동차원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농촌여성·여성농업인조직이 발전적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9b : 63).

<표II-19>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2000년 주요 사업내용

구분	사 업 내 용
교육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화 교육</li> <li>◦ 새내기 활동가 교육</li> <li>◦ 실무자 교육</li> <li>◦ 평등의식 확산 마을 교육</li> <li>◦ 환경농업 교육</li> </ul>
농·소·정 협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도농교류 어린이 캠프</li> </ul>
여성농민 정책실현 촉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농민의 노동가치실현을 위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농민의 전문인력화 방안 마련과 대정부 촉구</li> <li>— 발작물에 대한 직접 지불제 확대 실시 제도 마련</li> <li>— 여성농민 농업노동의 기계화, 고도화 추진</li> </ul> </li> <li>◦ 여성농민의 지역사회에서 역할 확대를 위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협 등 농관련 단체의 여성농민의 조합원 자격확대 및 참여 방안 마련</li> <li>— 지자체단체에 여성농민 담당부서 설치 촉구</li> </ul> </li> <li>◦ 여성농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실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농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마련</li> <li>— 농촌지역에 국공립 탁아소 설치 촉구</li> <li>— 농촌지역의 열악한 주거 및 생활환경개선</li> </ul> </li> <li>◦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 가격보장 활동</li> <li>— 농림부 각종 위원회 참여로 의견 개진</li> <li>—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활동</li> </ul> </li> </ul>

출처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내부자료에서 정리.



대부분의 전국적인 여성농업인 관련 단체는 주로 시·도별, 시·군 단위의 조직 및 면 단위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중앙이나 관련 기관의 여성담당직의 결정 사항에 따라 행사에 동원되거나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중앙의 사업에 대해 인지도가 낮으며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미약한 점이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성공적인 여성의 지역사회 소모임 활동사례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10-20명 내외의 지역단위 소규모 여성모임은 개인차원의 문화향수와 욕구충족 이외에 자기정체성의 확립, 자기성취감의 획득, 인간관계의 원만함, 사회관계망 형성, 삶의 활력 되찾기, 자신감, 세상을 보는 시각의 변화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갖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역 여성 소모임은 거의 대부분 도시지역의 비농가 여성들의 모임 사례이고 농촌지역의 여성농업인의 소모임은 극히 적은 사례가 보고되어 있을 뿐이다.

## 5. 농촌지역의 전통적 남녀차별 문화

### 가. 농촌 현실에 나타나는 남녀역할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62.8%가 일상생활에서 성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남자보다 사회적 활동에 제한을 받고, 노동에 대한 기여나 소득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다(농림부, 1999 : 134).

농업생산과정에서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위치는 보조적 지위로 규정되어 있고 기여도 만큼 정당한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농가에서 작목반이나 영농조합 등의 생산자 가입에 대해서 남편이 혼자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나며 농사일정과 품목결정, 영농자재 구입, 농지구입과 매각 등에 관한 의사결정도 주로 남성에게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생산의 기여도, 농가 경영의 실질적 책임자, 농촌지역사회 여성의 역할 증대로 인하여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어야 하나 아직도 농촌사회는 가정에서의 가부장제도, 부권적 부부관계 등 남존여비사상이 여전히 남

아 있다. 부부가 똑같이 일하고 들어와서도 남자는 느긋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쉬는데 여자는 들어오자마자 밥상을 차려야 한다. 빨래, 청소, 애들 치닥거리도 당연히 여자들 몫이다.

농촌 가족의 부부가 비슷하게 농사일을 하여 재산을 이룬 경우에도 전답 문서나 목돈이 들어 있는 은행 통장 모두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 남편은 농지를 자의로 처분할 수 있으나 부인은 공동 소유자가 되지 못하며, 농지 처분권을 행사하지도 못한다.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이 재산 형성에서 남편의 기여도가 더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37.4%이고 남편과 비슷하게 기여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55.9%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더 많이 기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0%이었으나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재산 소유권은 미미하다.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한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경우는 22.5%에 불과하다(농림부, 1999: 102). 소유한 부동산의 규모를 조사해 보면 더 차이가 날 것이다.

부부 둘이서 농사를 짓다가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에 농지가 부인에게 상속되지 않고 장남에게 상속된다. 장남이 농사를 짓지도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농촌의 여성농업인은 농사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농업 경영자가 된다거나 농지를 소유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사회적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도 적지 않다. 대부분의 농촌사회의 문화, 가치규범은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시부모나 남편의 그늘에 조용히 있는 것이 미덕으로 되어있다. 아직도 여성이 남자와 대화를 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활동하는 것을 '여자가 설치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확한 통계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마을 대표자인 이장을 여성이 맡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몇몇 사례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이 이장을 맡는 경우는 대부분 도농복합지역으로, 남자들의 상당수가 겸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장을 맡기가 어려운 지역인 경우가 많아서 여성이장이 마을의 진정한 대표자라고 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감이 있다.

농협의 이사나 대의원도 여성회원의 참여비율만큼 대표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이 실제로 하는 일 만큼의 대표가 참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문제시 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여성농업인 자신들도 고정된 성역할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자기비하 의식, 낮은 성취의욕과 운명관, 순종적이면서 수동적인 사고방식 등에 젖어 있는 실정이다. 비교적 적극적인 성역할 의식을 가진 여성들도 기관의 태도, 지역사회의 편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정해경, 2000 : 6-7).

## 나. 농촌드라마에 나타나는 남녀역할 이미지

농촌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농촌사회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 ‘전원일기’라는 드라마 중 여성과 관련된 제목을 가진 드라마를 선정하여 여성의 삶과 남녀역할을 분석해 보았다.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지는 중심적인 가족 구조는 대가족 형태이며 이는 전통적 농촌형 가족구조의 이데올로기로서 드러나고 있다. 드라마 전체를 보면 마을에는 다양한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가장 많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가족은 회장님댁의 4세대 가족(노할머니, 노부부, 아들며느리, 손자)과 일용네 3세대 가족(일용어머니, 일용이 부부, 자녀)이기 때문에 드라마에서는 이 대가족구조가 농촌가족의 이상형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촌가구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여성노인단독가구나 부모가 없는 손자를 데리고 사는 조부모가족 등의 현실은 드러나지 않는다.

모든 등장인물은 성별로 뚜렷이 구분된 장소에서 등장하고 전통적 성별분업으로 고정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자들은 텃마루나 부엌에서 채소를 다듬거나 가사일을 하는 상황으로 출현하며, 반대로 남자들은 리어카를 끌고 집에 들어와 배가 고프니 빨리 밥을 달라는 상황 등으로 출현한다. 농사일을 하는 현장에서도 남자들은 수건을 목에 두르고 땀을 닦으면서 삽이나 곡괭이질을 하거나 기계를 다루는 활동을 하지만 여자들은 밭이나 하우스 안에서 쭈그리고 앉아 농작물을 만지면서 수다를 떠는 모습으로 나온다. 이런 장면들로부터 전달되는 내용은, 남자들은 농기계와 도구를 사용하며 힘든 농사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여성은 밭에

앞아서 수다를 떨면서 해도 가능한, 쉬운 농사일을 한다는 성차별적인 이미지이다.

이러한 가부장적 가족구조와 성별 분리적인 노동관행은 각종 차별적 규범이나 가치를 담은 언어나 행동과 섞여져서 드러난다. 부부간의 대화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언어는 “여자가…”라는 말이고 이말은 모든 등장인물이 여성을 비하하거나 무시할 때, 또는 성적 대상으로 평가할 때마다 나타난다.

956회 「아들별곡」을 보면 아들이 없는 가족을 자식이 없는 가족이라고 하면서, 은연중에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묘사하는 대화 등이 빈번히 나온다. 농촌사회에 남아선호사상이 뿌리깊게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44회 「양촌리 커리어우먼」에서는 부부가 함께 하는 농사일(축산업)의 경우에도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축산이나 농사일을 모른다고 면박당하기 일수다. 여성농업인은 아무리 농사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보조자일 뿐 생색도 나지 않고, 농사에 대해 자부심이나 의욕을 가질 수 없는 현실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성농업인은 농사일보다는 읍내의 보험 모집원으로 일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발벗고 나서 보지만 그 일 역시 쉽지 않아 좌절한다는 내용이다.

934회 「아줌마의 이름으로」에서는 농촌지역에서도 만연되어 있는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농촌 남자들이 유흥업소에 가서 여자와 술을 마시는 것을 알고 반발하는 마을여자들에게 남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여자들이 이만한 일로…”, “여자들이 간이 부었지”, “우리가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웃고 끝낼 일이지”라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 전원일기의 모든 드라마에서 존경과 위엄의 상징처럼 등장하는 김회장(최불암역)도 이 문제를 일으킨 아들에게 “애야, 그런데 가려면 니 덕 모르게 가거라”고 말한다. 뿌리깊은 성의 이중규범에 관한 관행과 여성 비하적 의식과 가치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981회 「자식농사가 최고」에서는 농촌여성이 어려운 살림살이에 품팔이라도 해서 생계를 꾸리려고 하지만 아이 때문에 밭을 동동 구를 수 밖에 없는 농촌지역 보육문제를 다루고 있다. 비교적 젊은 여성농업인들

은 육아기의 아동을 키우면서 농사일을 하는데도 아이를 맡기는 보육시설은 도시보다 더 열악한 현실이 잘 나타나고 있다.

961회 「신세대 며느리」는 농촌의 세대간·남녀간에 다른 남녀 역할관 때문에 나타나는 갈등을 그리고 있다. 아내의 가사일을 도와주고 있는 남편이 동네의 화젯거리로 등장하게 된다. 도시와는 달리 농촌마을 안에서는 가정생활들이 상당부분 개방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부간에 비교적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가사일을 분담하는 것이 동네에 쉽게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를 알게 된 동네 사람들이 한마디씩 던지는 대화들이 분분하다. 물론 성역할 분리적인 고정관념의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금동이가 양촌리 망신은 다 시키고 있어”, “남자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어.” “여자는 한번 틈을 주면 자꾸만 꺼드는 속성이 있어. 너 젊었을 때 잡지 않으면 인생이 피곤해 진다” 농촌에 존재하고 있는 여성비하적인 의식이 반영되는 부분이다. 결혼 초기에는 비교적 평등한 태도를 가졌던 남자들도 봉건적인 마을 분위기와 여론에 밀리면서 시간이 갈수록 아내에게 가부장적 태도를 보이게 되는 농촌 현실이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가사일을 도와주는 남편의 입장을 이해하는 친구는 “소신껏 밀고 나가세요. 부부평등, 부부평등 하는데요, 이 농촌이야말로 부부가 평등해야 할 조건이 많은 곳입니다. 부부가 같이 일할 수 있는 일 터면 직장동료와 마찬가지로 아닌가요”라고 격려한다. 이 한마디 대사는 부부의 노동력 중심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가족농 체제의 농업노동현실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 시대의 농촌지역에 양성평등이 왜 필요한지를 일깨워 주는 핵심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농촌 드라마 「전원일기」를 통해서 농촌지역의 일에 대한 성별 분업구조와 여성농업인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들이 뿌리깊게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동시에 드라마라는 대중매체가 양성평등의식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 Ⅲ. 농촌지역 양성평등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 분석

---

- 
1. 농업생산 구조변화와 농촌여성·여성농업인
  2.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일과 학습
  3.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4.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활동
  5. 농촌지역의 전통적 남녀차별문화
  6. 농촌지역 여성담당 공무원 조사결과
-

본 장은 농촌지역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지역 양성평등 실현 방안」에 관한 조사표(1)의 설문조사 결과와 군부 여성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지역 양성평등 실현 방안」에 관한 조사표(2)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농촌지역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지역의 양성평등 실태는 1. 농업생산 구조의 변화와 농촌여성·여성농업인 2.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일과 학습 3.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4.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활동 5. 농촌지역의 전통적 남녀차별문화로 나누어 각각의 절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군부 여성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의 실태에 관하여는 6절에 제시하고 있다.

## 1. 농업생산 구조변화와 농촌여성·여성농업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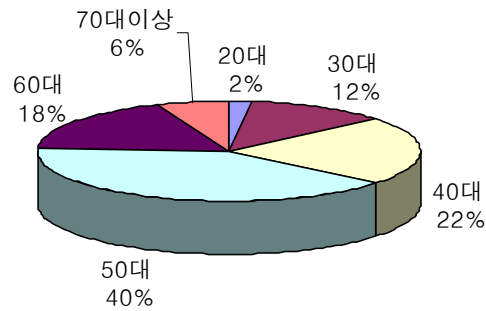
농업생산 구조변화와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 가족구성의 형태, 가구주와 주생계 담당자, 농외 소득 유무, 농업 종사경력 및 가족 종사자 수, 농사규모, 농업참여 실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조사의 응답자는 총 597명으로 연령별로는 20대가 2.3%, 30대가 11.6%, 40대가 22.3%, 50대가 39.9%, 60대가 17.8%, 70대 이상이 6.0%를 나타냈다.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현재 농촌지역에서 낮에 만날 수 있는 대상자가 대부분 60대 이상의 노령인구일 가능성과 우리나라의 농촌 인구구성비를 고려하여 60대 이상 응답자를 전체 조사대상자의 3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조사원 지침을 주어 응답대상자가 60대 이상에 몰릴 가능성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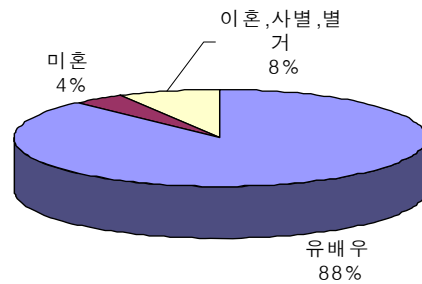
<그림 III-1> 응답자의 연령 분포



성별로는 남성 298명, 여성 298명으로 각각 50%를 차지하고 있다.

혼인상태 별로는 미혼이 3.7%, 유배우가 88.6%, 이혼, 사별, 별거가 7.7%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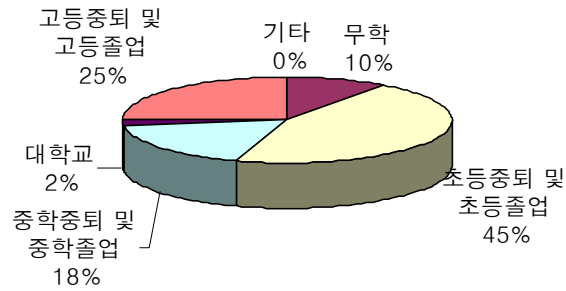
<그림 III-2> 응답자의 혼인상태



학력별로 보면 초등학교 중퇴 및 졸업이 45.2%,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이 24.6%, 중학교 졸업 및 중퇴가 17.5%를 나타내고 있다. 응답자의 전체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하가 6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농촌지역의 학력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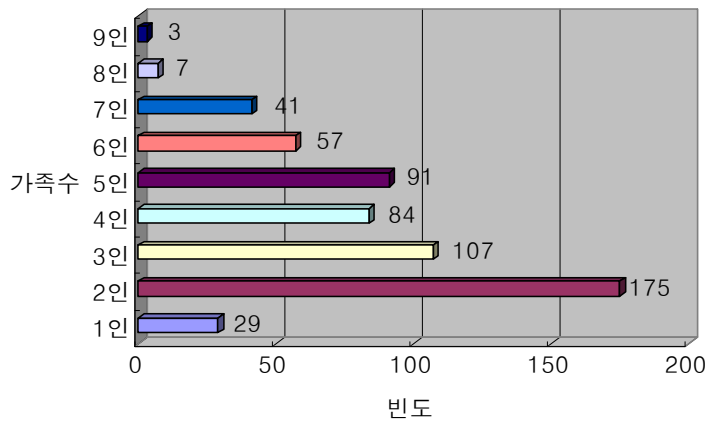
<그림 III-3> 응답자의 학력분포



### 나. 조사대상자 가족구성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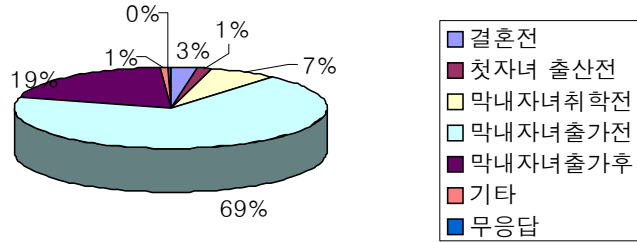
가족수는 2명이 29.5%, 3명이 18.0%, 5명이 15.3%, 4명이 14.1%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응답대상자 가족수가 4인 이하인 경우가 61.6%인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의 가족이 소규모 가족화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III-4> 가족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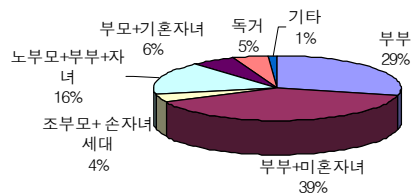
가족주기별로 보면 ‘막내자녀 출가전’이 68.2%, ‘막내자녀 출가후’가 19.5%, ‘막내자녀 취학전’이 7.2%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III-5> 가족주기 분포



가족형태별로 보면, ‘부부와 미혼자녀가족’이 39.0%, ‘부부만 사는 가족’이 28.7%, ‘노부모와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3세대 가족’이 16.3%를 나타내고 있다. 응답자의 67.7%가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6> 가족구성별 가족형태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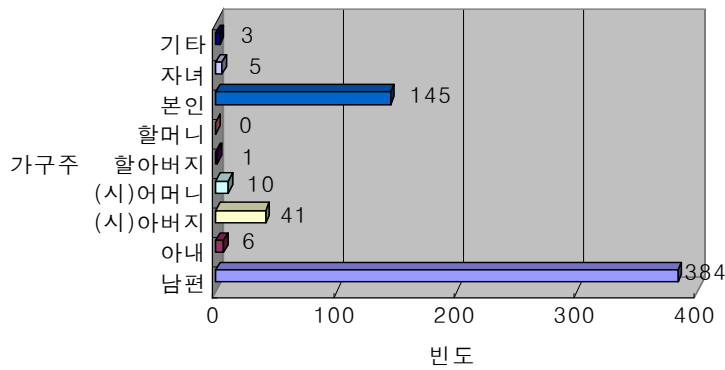


#### 다. 가구주와 주 생계담당자

가구주는 남편인 경우가 64.5%, 본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4.4%를 나타내었다. 결국 남성의 경우 96.6%가 가구주라고 응답했고, 여성의 경우 12.8%만이 가구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생계를 담당하는 경우는 남편이 65.7%, 본인이 26.9%의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95.9%가 생계책임자라고 응답하고 있고, 여성의 경우는 13.8%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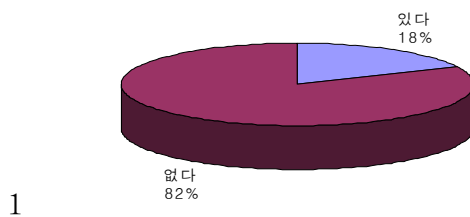
<그림 III-7> 가구주 구성



### 라. 농외 소득 유무

농외소득에 대한 질문은 연구목적상 농업을 통한 소득외에 다른 수입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응답결과 농업이외의 소득이 있는 가구수는 총 18.4%로 농업이외의 소득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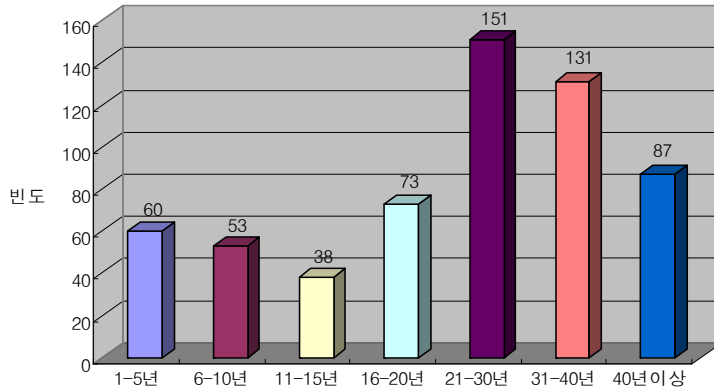
<그림 III-8> 농외 소득 유무



### 마. 농업 종사경력 및 가족종사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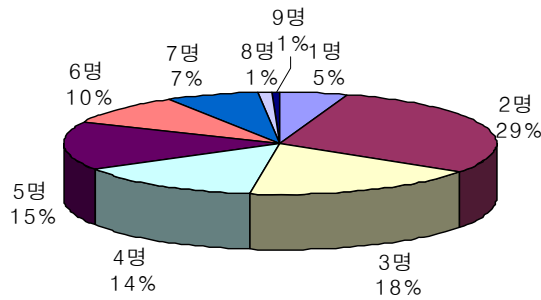
농업종사 경력에 대한 질문에 25.5%가 '21~30년'이고, 22.1%가 '31~40년'이라고 응답했으며, '40년 이상'이라는 응답도 14.7%를 나타내었다.

<그림 III-9> 농업종사 경력



실제 농사일을 하는 가족 수에 대한 질문에는 '2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73.8%, '3명'이라는 응답은 11.7%, '1명'이라는 응답은 8.2%를 나타내었다. 이는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농업체제가 가족농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III-10> 농업에 참여하는 가족수



## 바. 농사규모

농사규모는 논외의 경우 '501평~1000평'이 19.5%, '1001평~1500평'이 12.6%, '1501평~2000평'이 15.4%, '2001평~3000평'이 14.4%를 나타내었다. 밭외의 경우 '1평~500평'이 24.7%, '501평~1000평'이 19.6%, '1501평~2000평'이 7.2%를 나타내었다.

과수원의 경우, '501평~1000평'이 5.9%, '2001평~4000평'이 5.2%, '1501평~2000평'이 5.0%를 나타내었다.

이를 각각 남녀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논농사의 규모는 평균 2228.92평, 밭농사는 1412.39평, 과수원은 968평이고, 논과 밭농사를 합해도 2589.67평으로 대체로 소규모의 농업형태를 보이고 있다.

<표Ⅲ-1> 농사규모

단위 : 평

		논농사규모	밭농사규모	과수원규모	논밭농사규모
남자	M	2327.37	959.41	435.03	3286.7819
	N	298	298	298	298
	SD	2066.35	1519.48	1015.87	2670.5727
여자	M	2130.48	826.81	346.64	2957.2886
	N	298	298	298	298
	SD	2041.49	1295.66	917.85	2499.7910
합계	M	2228.92	893.11	390.84	3122.0352
	N	596	596	596	596
	SD	2054.59	1412.39	968.30	2589.6717
F		1.369	1.314	1.242	2.418
30대 이하	M	1891.57	893.86	415.66	2785.4217
	N	83	83	83	83
	SD	1972.86	1500.09	1040.23	2403.9436
40 대	M	2364.97	1042.03	376.24	3407.0000
	N	133	133	133	133
	SD	2032.80	1626.55	803.41	2611.3601
50대	M	2483.24	930.70	403.66	3413.9412
	N	238	238	238	238
	SD	2137.93	1501.72	1133.29	2796.5906
60대 이상	M	1872.43	690.20	368.52	2562.6338
	N	142	142	142	142
	SD	1917.58	881.55	750.24	2192.5423
합 계	M	2228.92	893.11	390.84	3122.0352
	N	596	596	596	596
	SD	2054.59	1412.39	968.30	2589.6717
F		3.628*	1.530	.067	4.291*

\*P<.05 \*\*P<.001 (M=평균, N= 사례수, SD=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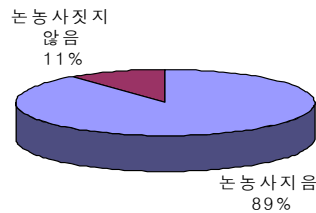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의 경우 논농사는 1891.57명, 논과 밭농사는 2785.42명이고, 40대는 논농사 2364.97명, 논과 밭농사는 3407.0명, 50대는 논농사 2483.24명, 논밭농사는 3413.94명, 60대이상은 논농사 1872.43명, 논밭농사는 2562.63명으로 연령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사. 농업참여 실태

### (1) 논농사

지난 일년동안 논농사를 지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9.4%가 ‘논농사를 짓는다’고 응답했다.

<그림 III-11> 논농사 여부



논농사에 있어 농작업 분담을 보면, 논갈이는 ‘주로 남자가 한다’가 43.9%, ‘남자 품을 산다’가 41.7%, ‘남녀가 비슷하게 한다’가 7.7%로 나타났다. 못자리는 ‘주로 남자가 한다’가 37.0%, ‘남자 품을 산다’가 30.5%, ‘남녀가 비슷하게 한다’가 22.9%로 나타났다. 모내기는 ‘남자 품을 산다’가 42.7%, ‘주로 남자가 한다’가 36.3%, ‘남녀가 비슷하게 한다’는 10.7%를 나타냈다. 비료주기의 경우 ‘주로 남자가 한다’가 68.8%, ‘남녀가 비슷하게 한다’가 18.2%, ‘주로 여자가 한다’가 6.8%를 나타냈다. 농약살포의 경우 ‘주로 남자가 한다’가 67.7%, ‘남녀가 비슷하게 한다’가 18.4%, ‘남자 품을 산다’가 5.6%로 나타났다.

모때우기의 경우 ‘남녀가 비슷하게 한다’가 50.3%, ‘주로 남자가 한다’가 19.0%, ‘주로 여자가 한다’의 경우 13.9%를 나타냈다. 김매기의 경우 ‘남녀가 비슷하게 한다’가 46.0%, ‘주로 남자가 한다’가 22.1%, ‘주로 여자가 한다’가 10.2%를 나타냈다.

벼베기의 경우 ‘남자 품을 산다’가 60.2%, ‘주로 남자가 한다’가 22.4%, ‘남녀가 비슷하게 한다’가 8.6%로 나타났다. 타작의 경우도 ‘남자 품을 산다’가 60.5%, ‘주로 남자가 한다’가 20.7%, ‘남녀가 비슷하게 한다’가 9.7%를 나타냈다.

이러한 응답경향은 논갈이, 못자리, 모내기, 비료주기, 농약살포 등의 경우는 ‘주로 남자가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많은 것으로, 모뎀우기, 김매기 등은 여자의 일로 인식하고 있고, 농업의 기계화로 인해 벼베기와 타작은 남자의 품을 사서 기계로 하는 작업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논농사 작업과정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농작업이 성별로 분리되는 경향을 보였다. 대부분 논농사의 경우는 남자가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품을 사는 경우도 남성이 논농사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Ⅲ-2> 논농사 농작업 분담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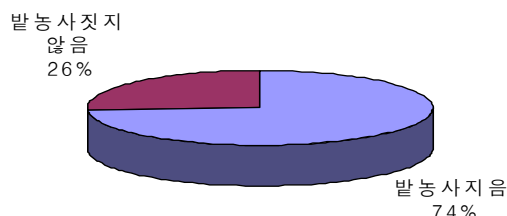


구분	주요남자	남녀비슷	주요여자	품앗이 (남)	품앗이 (여)	품사기(남)	품사기(여)	기타	계	
논갈이	계	234(43.9)	41(7.7)	4(0.8)	7(1.3)	16(3.0)	222(41.7)	6(1.1)	3(0.6)	533(100.0)
	남	124(46.4)	23(8.6)	0(0.0)	3(1.1)	7(2.6)	108(40.4)	1(0.4)	1(0.4)	267(100.0)
	여	110(41.4)	18(6.8)	4(1.5)	4(1.5)	9(3.4)	114(42.9)	5(1.9)	2(0.8)	266(100.0)
못자리	계	197(37.0)	122(22.9)	12(2.3)	15(2.8)	8(1.5)	162(30.5)	5(0.9)	11(2.1)	532(100.0)
	남	106(39.8)	62(23.3)	3(1.1)	6(2.3)	2(0.8)	81(30.5)	0(0.0)	6(2.3)	266(100.0)
	여	91(34.2)	60(22.6)	9(3.4)	9(3.4)	6(2.3)	81(30.5)	5(1.9)	5(1.9)	266(100.0)
모내기	계	193(36.3)	57(10.7)	10(1.9)	9(1.7)	17(3.2)	227(42.7)	7(1.3)	12(2.3)	532(100.0)
	남	103(38.7)	30(11.3)	3(1.1)	4(1.5)	6(2.3)	112(42.1)	2(0.8)	6(2.3)	266(100.0)
	여	90(33.8)	27(10.2)	7(2.6)	5(1.9)	11(4.1)	115(43.2)	5(1.9)	6(2.3)	266(100.0)
모뎀우기	계	101(19.0)	267(50.3)	74(13.9)	9(1.7)	6(1.1)	36(6.8)	20(3.8)	18(3.4)	531(100.0)
	남	60(22.6)	132(49.8)	25(9.4)	4(1.5)	2(0.8)	18(6.8)	12(4.5)	12(4.5)	265(100.0)
	여	41(15.4)	135(50.8)	49(18.4)	5(1.9)	4(1.5)	18(6.8)	8(3.0)	6(2.3)	266(100.0)
김매기	계	117(22.1)	244(46.0)	54(10.2)	1(0.2)	1(0.2)	17(3.2)	7(1.3)	89(16.8)	530(100.0)
	남	66(24.8)	126(47.4)	0(0.0)	14(5.3)	1(0.4)	10(3.8)	4(1.5)	45(16.9)	266(100.0)
	여	51(19.3)	118(44.7)	40(15.2)	1(0.4)	0(0.0)	7(2.7)	3(1.1)	44(16.7)	264(100.0)
비료주기	계	366(68.8)	97(18.2)	36(6.8)	0(0.0)	3(0.6)	23(4.3)	2(0.4)	5(0.9)	532(100.0)
	남	196(73.7)	49(18.4)	6(2.3)	0(0.0)	2(0.8)	11(4.1)	0(0.0)	2(0.8)	266(100.0)
	여	170(63.9)	48(18.0)	30(11.3)	0(0.0)	1(0.4)	12(4.5)	2(0.8)	3(1.1)	266(100.0)
농약살포	계	360(67.7)	98(18.4)	25(4.7)	2(0.4)	6(1.1)	30(5.6)	5(0.9)	6(1.1)	532(100.0)
	남	190(71.4)	52(19.5)	4(1.5)	0(0.0)	3(1.1)	13(4.9)	1(0.4)	3(1.1)	266(100.0)
	여	170(63.9)	46(17.3)	21(7.9)	2(0.8)	3(1.1)	17(6.4)	4(1.5)	3(1.1)	266(100.0)
벼베기	계	119(22.4)	46(8.6)	4(0.8)	10(1.9)	17(3.2)	320(53.7)	9(1.7)	7(1.3)	532(100.0)
	남	69(25.9)	20(7.5)	0(0.0)	5(1.9)	8(3.0)	158(59.4)	3(1.1)	3(1.1)	266(100.0)
	여	50(18.8)	26(9.8)	4(1.5)	5(1.9)	9(3.4)	162(60.9)	6(2.3)	4(1.5)	266(100.0)
타작	계	109(20.7)	51(9.7)	5(0.9)	10(1.9)	17(3.2)	319(60.5)	7(1.3)	9(1.7)	527(100.0)
	남	62(23.6)	24(9.1)	0(0.0)	5(1.9)	6(2.3)	159(60.5)	3(1.1)	4(1.5)	263(100.0)
	여	47(17.8)	27(10.2)	5(1.9)	5(1.9)	11(4.2)	160(60.6)	4(1.5)	5(1.9)	264(100.0)
기타	계	5(38.5)	3(23.1)	1(7.7)	0(0.0)	0(0.0)	1(7.7)	3(23.1)	0(0.0)	13(100.0)
	남	3(60.0)	1(20.0)	0(0.0)	0(0.0)	0(0.0)	0(0.0)	0(0.0)	1(20.0)	5(100.0)
	여	2(25.0)	2(25.0)	1(12.5)	0(0.0)	0(0.0)	1(12.5)	0(0.0)	2(25.0)	8(100.0)

(2) 발농사

지난 한해동안 발농사를 지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74.2%였다.

<그림 III-12> 발농사 여부



발농사의 경우, 발갈이는 ‘주로 남자가 한다’ 48.7%, ‘남자 품을 산다’가 27.6%, ‘남녀가 비슷하게 한다’가 13.4%로 나타났다. 비료주기의 경우 ‘주로 남자가 한다’가 46.5%, ‘남녀가 비슷하게 한다’ 36.0%, ‘주로 여자가 한다’가 13.2%로 나타났다. 농약살포의 경우 ‘주로 남자가 한다’가 62.6%, ‘남녀가 비슷하게 한다’가 25.2%, ‘주로 여자가 한다’가 7.6%로 나타났다.

씨뿌리기는 ‘남녀가 비슷하게 한다’가 50.5%, ‘주로 남자가 한다’가 20.5%, ‘주로 여자가 한다’가 17.6%로 나타났다. 옮겨심기는 ‘남녀가 비슷하게 한다’가 45.7%, ‘주로 여자가 한다’ 30.8%, ‘주로 남자가 한다’ 10.7%로 나타났다. 수확의 경우 ‘남녀가 비슷하게 한다’가 52.8%, ‘주로 남자가 한다’가 16.9%, ‘주로 여자가 한다’가 13.7%로 나타났다. 타작의 경우 ‘남녀가 비슷하게 한다’가 47.8%, ‘주로 남자가 한다’가 17.9%, ‘주로 여자가 한다’가 11.4%로 나타났다. 포장의 경우도 ‘남녀가 비슷하게 한다’가 50.9%, ‘주로 남자가 한다’가 11.7%, ‘주로 여자가 한다’가 10.3%로 나타났다.

<표 III-3> 밭농사 농작업 분담

단위 : 명(%)

구 분	주모 남자	남녀 비율	주모 여자	품앗 이(남)	품앗 이(여)	품사기 (남)	품사기 (여)	기타	계	
밭 갈 이	계	214(48.7)	59(13.4)	10(2.3)	3(0.7)	11(2.5)	121(27.6)	0(0.0)	21(4.8)	439(100.0)
	남	122(53.7)	27(11.9)	5(2.2)	1(0.4)	4(1.8)	55(24.2)	0(0.0)	13(5.7)	227(100.0)
	여	92(43.4)	32(15.1)	5(2.4)	2(0.9)	7(3.3)	66(31.1)	0(0.0)	8(3.8)	212(100.0)
씨 뿌 리 기	계	90(20.5)	221(50.5)	77(17.6)	2(0.5)	1(0.2)	15(3.4)	3(0.7)	29(6.6)	438(100.0)
	남	53(23.5)	113(50.0)	31(13.7)	1(0.4)	1(0.4)	9(4.0)	2(0.9)	16(7.1)	266(100.0)
	여	37(17.5)	108(50.9)	46(21.7)	1(0.5)	0(0.0)	6(2.8)	1(0.5)	13(6.1)	212(100.0)
김 매 기	계	39(8.9)	205(46.7)	157(26.3)	2(0.5)	1(0.2)	6(1.4)	8(1.8)	21(4.8)	439(100.0)
	남	26(11.5)	102(44.9)	76(33.5)	1(0.4)	1(0.4)	4(1.8)	3(1.3)	14(6.2)	227(100.0)
	여	13(6.1)	103(48.6)	81(38.2)	1(0.5)	0(0.0)	2(0.9)	5(2.4)	7(3.3)	212(100.0)
흙 겨 삼 기	계	47(10.7)	200(45.7)	135(30.8)	2(0.5)	3(0.7)	10(2.3)	10(2.3)	31(7.1)	438(100.0)
	남	31(13.7)	99(43.8)	63(27.9)	1(0.4)	2(0.9)	7(3.1)	6(2.7)	17(7.5)	226(100.0)
	여	16(7.5)	101(47.6)	72(34.0)	1(0.5)	1(0.5)	3(1.4)	4(1.9)	14(6.6)	212(100.0)
비 료 주 기	계	204(46.5)	158(36.0)	58(13.2)	2(0.5)	1(0.2)	10(2.3)	1(0.2)	5(1.1)	439(100.0)
	남	113(49.8)	83(36.6)	21(9.3)	1(0.4)	1(0.4)	4(1.8)	0(0.0)	4(1.8)	227(100.0)
	여	91(42.9)	75(35.4)	37(17.5)	1(0.5)	0(0.0)	6(2.8)	1(0.5)	1(0.5)	212(100.0)
농 약 살 포	계	273(62.6)	110(25.2)	33(7.6)	3(0.7)	2(0.5)	12(2.8)	1(0.2)	2(0.5)	436(100.0)
	남	148(65.5)	58(25.7)	12(5.3)	1(0.4)	1(0.4)	5(2.2)	0(0.0)	1(0.4)	226(100.0)
	여	125(59.5)	52(24.8)	21(10.0)	2(1.0)	1(0.5)	7(3.3)	1(0.5)	1(0.5)	210(100.0)
수 확	계	74(16.9)	232(52.8)	60(13.7)	0(0.0)	6(1.4)	43(9.8)	21(4.8)	3(0.7)	439(100.0)
	남	45(19.8)	121(53.3)	25(11.0)	0(0.0)	3(1.3)	20(8.8)	11(4.8)	2(0.9)	227(100.0)
	여	29(13.7)	111(52.4)	35(16.5)	0(0.0)	3(1.4)	23(10.8)	10(4.7)	1(0.5)	212(100.0)
타 작	계	77(17.9)	206(47.8)	49(11.4)	0(0.0)	4(0.9)	40(9.3)	7(1.6)	48(11.1)	431(100.0)
	남	48(21.5)	106(47.5)	18(8.1)	0(0.0)	2(0.9)	19(8.5)	4(1.8)	26(11.7)	223(100.0)
	여	29(13.9)	100(48.1)	31(14.9)	0(0.0)	2(1.0)	21(10.1)	3(1.4)	22(10.6)	208(100.0)
포 장	계	50(11.7)	218(50.9)	44(10.3)	1(0.2)	4(0.9)	25(5.8)	34(7.9)	52(12.1)	428(100.0)
	남	31(14.0)	111(50.0)	18(8.1)	0(0.0)	3(1.4)	14(6.3)	18(8.1)	27(12.2)	222(100.0)
	여	19(9.2)	107(51.9)	26(12.6)	1(0.5)	1(0.5)	11(5.3)	16(7.8)	25(12.1)	206(100.0)
기 타	계	5(13.5)	5(13.5)	4(10.8)	0(0.0)	1(2.7)	0(0.0)	18(48.6)	4(10.8)	37(100.0)
	남	2(11.1)	1(5.6)	1(5.6)	0(0.0)	1(5.6)	0(0.0)	11(61.1)	2(11.1)	18(100.0)
	여	3(15.8)	4(21.1)	3(15.8)	0(0.0)	0(0.0)	0(0.0)	7(36.8)	2(10.5)	19(100.0)

김매기의 경우 '주로 여자가 한다'가 35.8%, '남녀가 비슷하게 한다'가 46.7%, 주로 남자가 한다 8.9%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밭갈이, 비료주기, 농약살포에 있어서는 남성의 작업 비율이 크지만, 씨뿌리기, 옮겨심기, 수확, 타작, 포장 등의 밭농사 작업에서는 '남녀가 비슷하게 일한다' 와 '주로 여자가 한다'의 비율이 커지는 것을 보아 여자의 농작업 참여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밭농사에서는 논농사에서보다 여성의 작업부담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 3) 하우스농사

지난 일년동안 하우스 농사를 지었느냐는 질문에 조사대상자의 7.0%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하우스농사의 경우 하우스 설치에 '남자 품을 산다'가 34.9%, '남녀가 비슷하게 한다'가 25.6%, '주로 남자가 한다'가 20.9%를 나타냈다.

씨뿌리기의 경우 '남녀가 비슷하게 한다'가 71.4%, '주로 남자가 한다'가 16.7%, '주로 여자가 한다'가 7.1%로 나타났다. 옮겨심기의 경우, '남녀가 비슷하게 한다'가 56.1%, '주로 남자가 한다' 12.2%, '여자 품앗이로 한다'가 7.3%로 나타났다. 김매기의 경우 '남녀가 비슷하게 한다'가 67.4%, '주로 여자가 한다'가 7.0%, '주로 남자가 한다'와 '여자 품앗이'가 4.7%로 나타났다. 꽃가루 묻히기의 경우 '남녀가 비슷하게 한다' 61.0%, '주로 남자가 한다'가 4.9%로 나타났다. 순치기의 경우 '남녀가 비슷하게 한다'가 73.8%, '주로 남자가 한다'와 '주로 여자가 한다'는 경우가 각각 4.8%로 나타났다. 대뭍기의 경우, '남녀가 비슷하게 한다'가 69.8%, '주로 남자가 한다'가 4.7%로 나타났다. 수확의 경우 '남녀가 비슷하게 한다' 62.8%, '여자 품앗이로 한다' 11.6%, '여자 품을 산다'가 9.3%로 나타났다. 선별의 경우 '남녀가 비슷하게 한다'가 76.2%, '주로 여자가 한다'가 7.1%, '주로 남자가 한다'가 4.8%로 나타났다. 평소 하우스 관리의 경우, '남녀가 비슷하게 한다'가 76.7%, '주로 남자가 한다'가 16.3%, '주로 여자가 한다'가 7.0%로 나타났다. 내다팔기의 경우 '남녀가 비슷하게 한다'가 63.4%, '주로 남자가 한다'가 29.3%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료주기의 경우는 '주로 남자가 한다'가 47.6%, '남녀가 비슷하게 한다'가 42.9%, '주로 여자가 한다'가 7.1%로 나타났다. 농약뿌리기의 경우 '주로 남자가 한다'가 52.4%, '남녀가 비슷하게 한다'가 45.2%로 나타났다.

하우스농사의 경우는 비료주기와 농약뿌리기를 제외한 전작업에서 '남녀가 비슷하게 한다'의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시설재배라고 할 수 있는 하우스농사에 있어서는 남·녀의 농작업이 비교적 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다른 농사보다 여자의 농작업 참여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축산

지난 일년동안 축산을 하였느냐는 질문에는 16.0%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축산의 경우, 동물구입은 '주로 남자가 한다'가 80.4%, '남녀가 비슷하게 한다'가 16.5%로 나타났다. 축사청소는 '주로 남자가 한다'가 54.6%, '남녀가 비슷하게 한다'가 39.2%로 나타났다. 사료배합은 '주로 남자가 한다'가 53.7%, '남녀가 비슷하게 한다'가 40.0%로 나타났다. 사료주기의 경우 '주로 남자가 한다'가 50.5%, '남녀가 비슷하게 한다'가 42.1%로 나타났다. 췌기기의 경우 '주로 남자가 한다'가 47.4%, '남녀가 비슷하게 한다'가 28.4%로 나타났다. 종자붙이기의 경우 '주로 남자가 한다'가 37.0%, '남녀가 비슷하게 한다'는 10.9%로 나타났다. 품사기의 경우 '주로 남자가 한다'가 35.3%, '남녀가 비슷하게 한다'가 16.5%로 나타났다.

그러나 새끼 낳을 때 돌보기의 경우 '남녀가 비슷하게 한다'가 43.6%, '주로 남자가 한다' 41.5%로 나타났으며, 계란 모으기의 경우 '남자 품을 산다'가 21.7%, '주로 남자가 한다'가 15.0%로 나타났다.

축산의 경우, 전체적으로 남성의 농작업 비율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동물의 구입에서 남성의 결정권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일과 학습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일과 학습부분은 농업 참여에 대한 인식, 농사에 관련된 일의 결정권, 농기계 사용경험, 농기계 사용을 위한 교육 여부 및 그 이유, 현재 교육활동 및 앞으로의 교육계획 참여, 컴퓨터 활용 정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가. 농업참여에 대한 인식

#### (1) 농업노동 참여

농촌여성·여성농업인들이 농업에 참여하는데 있어 농업노동을 담당하는 부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의 택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농사일을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남성이 훨씬 더 일한다'가 55.2%, '남성과 똑같이 일한다'가 30.6%, '여성이 훨씬 더 일한다'가 12.0%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남성의 농업노동 담당비율이 더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남성이 훨씬 더 일한다'(남 56.6%, 여 53.7%)로 나타났고,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의 경우 '남성이 훨씬 더 일한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4> 농업노동참여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남성과 똑같이 일한다	남성이 훨씬 더 일한다	여성이 훨씬 더 일한다	모르겠다	$\chi^2$
성별	남	95(32.2)	167(56.6)	25(8.5)	8(2.7)	7.507
	여	81(28.8)	151(53.7)	44(15.7)	5(1.8)	
	합계	176(30.6)	318(55.2)	69(12.0)	12(2.3)	
연령	30대이하	25(30.1)	45(54.2)	12(14.5)	1(1.2)	9.489
	40대	44(34.1)	71(55.0)	11(8.5)	3(2.3)	
	50대	77(33.5)	117(50.9)	31(13.5)	5(2.2)	
	60대이상	30(22.4)	85(63.4)	15(11.2)	4(3.0)	
	합계	176(30.6)	318(55.2)	69(12.0)	13(2.3)	

## (2) 농업노동시간

하루에 농사일에 투여하는 시간을 농번기와 농한기, 아내와 남편, 다른 가족으로 나누어 응답하도록 하였다. 즉 농번기 일 때 아내의 농업노동시간(이하 농번기 아내), 농한기 일 때 아내의 농업노동시간(이하 농한기 아내), 농번기 일 때 남편의 농업노동시간(이하 농번기 남편), 농한기 일 때 남편의 농업노동시간(이하 농한기 남편), 농번기 일 때 다른 가족의 농업노동시간(이하 농번기 다른 가족), 농한기 일 때 다른 가족의 농업노동시간(이하 농한기 다른 가족)으로 분류하여 직접 작성하도록 하여 평균시간을 구하였다.

이를 성별·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 남자의 경우 ‘농번기 아내’는 평균 2시간 41분, ‘농한기 아내’는 1시간 18분, ‘농번기 남편’은 5시간 47분, ‘농한기 남편’은 1시간 45분, ‘농번기 다른 가족’ 3시간 8분, ‘농한기 다른 가족’ 44분으로 응답했고, 30대 이하 여자의 경우 ‘농번기 아내’는 평균 5시간 36분, ‘농한기 아내’는 1시간 56분, ‘농번기 남편’은 6시간 35분, ‘농한기 남편’은 2시간 52분, ‘농번기 다른 가족’ 59분, ‘농한기 다른 가족’ 11분으로 응답해 30대 이하 남자들이 30대 이하 여자들보다 ‘농번기 아내’의 농업시간 투하율이 훨씬 적게 나타났다. 이는 30대 이하의 경우 경작지가 40대나 50대에 비해 적고, 30대 이하 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농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적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0대의 경우 남자는 ‘농번기 아내’는 평균 7시간 30분, ‘농한기 아내’는 3시간 22분, ‘농번기 남편’은 9시간 9분, ‘농한기 남편’은 4시간 50분, ‘농번기 다른 가족’ 2시간 10분, ‘농한기 다른 가족’ 41분으로 응답했고, 여자는 ‘농번기 아내’는 평균 7시간 38분, ‘농한기 아내’는 2시간 44분, ‘농번기 남편’은 8시간 37분, ‘농한기 남편’은 3시간 22분, ‘농번기 다른 가족’ 1시간 6분, ‘농한기 다른 가족’ 23분으로 응답하고 있어 30대 남자와 여자의 응답과 비교해 볼 때, 40대 여자의 경우 농업시간 투하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의 경우 남자의 경우는 ‘농번기 아내’는 평균 8시간 7분, ‘농한기 아내’는 2시간 56분, ‘농번기 남편’은 9시간 11분, ‘농한기 남편’은 3시간 23분, ‘농번기 다른 가족’ 23분, ‘농한기 다른 가족’ 7분으로 응답했고, 여자의 경우 ‘농번기 아내’는 평균 7시간 31분, ‘농한기 아내’는 2시간 48분, ‘농번기 남편’은 7시간 56분, ‘농한기 남편’은 3시간, ‘농번기 다른 가족’ 28분, ‘농한기 다른 가족’ 15분으로 응답해 비교적 남자와 여자가 비슷하게 농업시간을 투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경우, 남자는 ‘농번기 아내’는 평균 6시간, ‘농한기 아내’는 2시간 32분, ‘농번기 남편’은 8시간, ‘농한기 남편’은 3시간 35분, ‘농번기 다른 가족’ 48분, ‘농한기 다른 가족’ 12분으로 응답했고, 여자의 경우 ‘농번기 아내’는 평균 6시간 34분, ‘농한기 아내’는 2시간 30분, ‘농번기 남편’은 6시간 13분, ‘농한기 남편’은 2시간 24분, ‘농번기 다른 가족’은 20분, ‘농한기 다른 가족’은 10분으로 응답해 다른 연령층 보다 여자의 경우 남자의 농업시간 투하량이 적게 나타났다.

<표Ⅲ-5> 성별·연령별 농업노동 투하시간

단위 : 시간



			농번기 아내	농한기 아내	농번기 남편	농한기 남편	농번기 다른가족	농한기 다른가족
남자	30대이하	M	2.68	1.03	5.79	1.74	3.13	.68
		N	38	38	38	38	38	38
		SD	3.23	1.52	4.43	2.47	4.74	1.51
	40대	M	7.50	3.37	9.15	4.84	1.26	.69
		N	62	62	62	62	62	62
		SD	4.39	3.23	4.05	3.65	2.78	1.83
	50대	M	8.12	2.94	9.18	3.38	.39	.12
		N	114	114	114	114	114	114
		SD	3.72	3.01	3.39	3.42	1.52	.57
	60대이상	M	6.02	2.54	8.00	3.58	.80	.20
		N	84	84	84	84	84	84
		SD	4.44	3.27	4.14	3.70	2.88	1.11
	합계	M	6.71	2.67	8.41	3.53	1.03	.34
		N	298	298	298	298	298	298
		SD	4.38	3.05	4.03	3.54	2.89	1.22
여자	30대이하	M	5.60	1.93	6.58	2.87	.98	.18
		N	45	45	45	45	45	45
		SD	4.20	2.19	4.45	3.14	2.67	.65
	40대	M	7.63	2.73	8.61	3.37	1.10	.38
		N	71	71	71	71	71	71
		SD	3.75	3.14	3.90	3.75	2.67	1.09
	50대	M	7.51	2.80	7.93	3.02	.46	.25
		N	124	124	124	124	124	124
		SD	4.18	3.14	4.60	3.54	2.07	1.22
	60대이상	M	6.57	2.50	6.21	2.40	.33	.16
		N	58	58	58	58	58	58
		SD	3.88	3.02	4.44	3.42	1.16	.74
	합계	M	7.07	2.59	7.55	2.96	.66	.25
		N	298	298	298	298	298	298
		SD	4.07	2.99	4.46	3.51	2.21	1.03
합계	M	6.89	2.63	7.98	3.24	.85	.29	
	N	596	596	596	596	596	596	
	SD	4.23	3.02	4.27	3.53	2.57	1.13	
F			1.075	.097	6.038*	3.901*	3.078	.817

(M=평균, N= 사례수, SD= 표준편차)

전체적으로 보면, 30대 이하의 경우, 여성의 농업노동 투하시간이 적 으며, 40대와 50대의 경우 여성의 농업노동 투하 시간이 매우 많고, 40 대 이상의 경우 여성과 남성 공히 농번기에 남편과 아내가 비슷하게 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연령별 농업시간 투하량은 ‘농번기 남편’과 ‘농한기 남편’의 노 동시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농사에 관련된 일의 결정권

농사에 관련된 일의 결정권은 재배작물의 결정, 논이나 밭의 매매, 논밭의 임대차, 비료나 농약의 구입, 농기계나 농기구의 구입, 영농자금 대부, 작목반이나 영농조합 가입, 농사일정, 품을 사는 것, 농산물 판매, 판매금의 용도 결정 등의 일을 결정하는데 남편과 아내의 결정권이 얼 마나 큰지를 살펴보았다.

### (1) 재배작물의 결정

“재배작물의 결정”은 전체적으로 볼 때, ‘거의 남자가 결정한다’는 응 답이 38.2%로 가장 높고, ‘남자가 주로 하고 여자와 상의해서’가 37.7%,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가 14.1%로 나타나 비교적 남성과 여성의 결정 권이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 <표 III-6> 재배작물의 결정

단위 : 명(%)

		거의 남자가 결정	남자가 주로 하고 여자와 상의해서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	여자가 주로 하고 남자와 상의해서	거의 여자 혼자 결정	기타	$\chi^2$
성별	남	134(45.1)	115(38.7)	40(13.5)	5(1.7)	2(0.7)	1(0.3)	44.271**
	여	93(31.3)	109(36.7)	44(14.8)	7(2.4)	40(13.5)	4(1.3)	
	합계	227(38.2)	224(37.7)	84(14.1)	12(2.0)	42(7.1)	5(0.8)	
연령	30대이하	45(54.2)	23(27.7)	7(8.4)	2(2.4)	4(4.8)	2(2.4)	26.406*
	40대	47(35.6)	52(39.4)	24(18.2)	2(1.5)	6(4.5)	1(0.8)	
	50대	73(30.8)	98(41.4)	39(16.5)	5(2.1)	20(8.4)	2(0.8)	
	60대이상	62(43.7)	51(35.9)	14(9.9)	3(2.1)	12(8.5)	-	
	합계	227(38.2)	224(37.7)	84(14.1)	12(2.0)	42(7.1)	5(0.8)	

\* p<.05 \*\* p<.001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거의 남자가 결정’이 45.1%로 가장 높고, ‘남자가 주로 결정하고 여자와 상의해서’가 38.7%,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가 13.5%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는 ‘남자가 주로 하고 여자와 상의해서’가 36.7%로 가장 높고, ‘거의 남자가 결정’이 31.3%,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가 14.8%로 나타나 성별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연령별로도, 30대 이하와 60대 이상은 ‘거의 남자가 결정’이 가장 높은 반면, 40대와 50대는 ‘남자가 주로 하고 여자와 상의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나 응답경향에 있어 연령별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2) 논·밭의 매매

“논이나 밭의 매매”에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남자가 주로 하고 여자와 상의해서’가 40.9%로 가장 높고, ‘거의 남자가 결정’이 28.4%,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가 20.0%로 나타나 비교적 공동 결정권이 크게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남자가 주로 하고 여자와 상의해서’가 42.9%로 가장 높고, ‘거의 남자가 결정’이 34.5%,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가 18.6%로 나타났지만, 여성의 경우 ‘거의 여자 혼자서 결정’이 12.5%인 반면 남성은 ‘거의 여자 혼자서 결정’이 0.3%로 나타나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의 경우, ‘거의 남자가 결정’이 43.4%로 가장 높고, ‘남자가 주로 결정하고 여자와 상의해서’가 36.1%,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 10.8%로 나타났고, 40대의 경우는 ‘남자가 주로 결정하고 여자와 상의해서’가 37.4%로 가장 높고, ‘거의 남자가 결정’ 이 26.7%,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가 25.2%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50대는 ‘남자가 주로 결정하고 여자와 상의해서’가 44.1%로 가장 높고,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가 25.4%, ‘거의 남자가 결정’ 이 19.9%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은 ‘남자가 주로 결정하고 여자와 상의해서’가 43.0%로 가장 높고, ‘거의 남자가 결정’ 이 35.9%,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가 12.0%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30대 이하의 경우 남성의 결정권이 보다 크고 연령층이 높아질 수록 부부공동의 결정권이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7> 논이나 밭의 매매

단위 : 명(%)

		거의 남자가 결정	남자가 주로 하고 여자와 상의해서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	여자가 주로 하고 남자와 상의해서	거의 여자혼자 결정	기타	$\chi^2$
성별	남	102(34.5)	127(42.9)	55(18.6)	4(1.4)	1(0.3)	7(2.4)	42.654**
	여	67(22.6)	117(39.5)	64(21.6)	3(1.0)	37(12.5)	8(2.7)	
	합계	169(28.5)	244(41.2)	119(20.1)	7(1.2)	38(6.4)	15(2.5)	
연령	30대이하	36(43.4)	30(36.1)	9(10.8)	2(2.4)	3(3.6)	3(3.6)	38.892**
	40대	35(26.7)	49(37.4)	33(25.2)	3(2.3)	6(4.6)	5(3.8)	
	50대	47(19.9)	104(44.1)	60(25.4)	1(0.4)	19(8.1)	5(2.1)	
	60대이상	51(35.9)	61(43.0)	17(12.0)	1(0.7)	10(7.0)	2(1.4)	
	합계	169(28.5)	244(41.2)	119(20.1)	7(1.2)	38(6.4)	15(2.5)	

\*\* p<.001

### (3) 논밭의 임대차

“논이나 밭의 빌리고 빌려주는 것”에 관하여는 전체적으로 볼 때, ‘남자가 주로 하고 여자와 상의해서’가 40.7%로 가장 높고 ‘거의 남자가 결

정'이 29.4%,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가 18.4%로 나타나 남녀 공동결정권이 비교적 큰 것으로 보여진다.

성별로는 남녀모두 '남자가 주로 하고 여자와 상의해서'가 남성 42.7%, 여성 38.7%로 가장 높고 '거의 남자가 결정'이 남성 34.2%, 여성 24.6%,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가 남성 17.6%, 여성 19.2%로 나타났으나, '거의 여자 혼자서 결정'에는 남성 0.7%, 여성 12.8%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의 경우 '거의 남자가 결정'이 44.6%로 가장 높고 '남자가 주로 하고 여자가 결정'이 32.5%로 나타난 반면, 40대 이상은 '남자가 주로 하고 여자와 상의해서'가 40대 41.7%, 50대 42.6%, 60대 이상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거의 남자가 결정'이 27.3%,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 결정'이 24.2%로 나타났다.

#### (4) 비료·농약의 구입

“비료, 농약 구입”은 전체적으로 볼 때, '거의 남자가 결정'이 61.6%로 가장 높고, '남자가 주로 하고 여자와 상의해서'가 21.2%로 나타났으며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는 8.3%로 나타나 남성의 결정권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거의 남자가 결정'이 67.0%로 가장 높고 '남자가 주로 하고 여자와 상의해서'가 22.6%로 나타났고,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가 7.7%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 '거의 남자가 결정'이 56.1%, '남자가 주로 하고 여자와 상의해서'가 19.9%, '거의 여자 혼자서 결정'이 13.9%로 나타나 남성과 여성의 응답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농기계·농기구의 구입

“농기계·농기구 구입”은 전체적으로 볼 때, '거의 남자가 결정'이 53.2%로 가장 높고, '남자가 주로 하고 여자와 상의해서'가 28.6%로 나타났으며,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는 8.9%로 나타나 남자의 결정권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거의 남자가 결정’이 59.3%이 가장 높고, ‘남자가 주로 하고 여자와 상의해서’가 30.0%,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가 8.4%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 ‘거의 남자가 결정’이 47.1%로 가장 높고, ‘남자가 주로 하고 여자와 상의해서’가 27.3%, ‘거의 여자 혼자서 결정’ 12.1%로 나타나 남성과 여성의 응답경향에 차이를 보였다.

#### (6) 영농자금 대부

“영농자금 대부”는 전체적으로 볼 때, ‘거의 남자가 결정’이 36.4%, ‘남자가 주로 하고 여자와 상의해서’가 35.4%,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가 17.9%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거의 남자가 결정’이 42.1%로 가장 높고, ‘남자가 주로 하고 여자와 상의해서’가 37.4%,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가 15.8%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남자가 주로 하고 여자와 상의해서’가 33.4%로 가장 높고, ‘거의 남자가 결정’이 30.7%,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가 19.9%로 나타나 남성과 여성의 의견이 공동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7) 작목반, 영농조합 가입

“작목반이나 영농조합 가입”은 전체적으로 볼 때, ‘거의 남자가 결정’이 48.5%, ‘남자가 주로 하고 여자와 상의해서’가 25.2%,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가 12.0%로 나타나 남성의 결정권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거의 남자가 결정’이 53.2%로 가장 높고, ‘남자가 주로 하고 여자와 상의해서’가 28.5%,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가 10.8%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 ‘거의 남자가 결정’이 43.8%, ‘남자가 주로 하고 여자와 상의해서’ 21.9%,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 13.1%로 나타났는데 ‘거의 여자 혼자서 결정’이 11.1%로 나타나 남성응답의 0.3%와는 다른 응답경향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작목반이나 영농조합 가입에 있어서는 남성의 결정권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 작목반, 영농조합 가입

단위 : 명(%)

		거의 남자가 결정	남자가 주로 하고 여자와 상의해서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	여자가 주로 하고 남자와 상의해서	거의 여자혼자 결정	기타	$\chi^2$
성별	남	157(53.2)	84(28.5)	32(10.8)	2(0.7)	1(0.3)	19(6.4)	38.181*
	여	130(43.8)	65(21.9)	39(13.1)	1(0.3)	33(11.1)	29(9.8)	
	합계	287(48.5)	149(25.2)	71(12.0)	3(0.5)	34(2.7)	48(8.1)	
연령	30대이하	44(53.0)	25(30.1)	5(6.0)	1(1.2)	3(3.6)	5(6.0)	17.638
	40대	66(50.4)	30(22.9)	21(16.0)	-	6(4.6)	8(6.1)	
	50대	102(43.2)	58(24.6)	35(14.8)	1(0.4)	16(6.8)	24(10.2)	
	60대이상	75(52.8)	36(25.4)	10(0.4)	1(0.7)	9(6.3)	11(7.7)	
	합계	287(48.5)	149(25.2)	71(12.0)	3(0.5)	34(5.7)	48(8.1)	

\*\* p<.001

(8) 농사일정 결정

“농사일정 결정”은 전체적으로 볼 때, ‘거의 남자가 결정’이 41.6%, ‘남자가 주로 하고 여자와 상의해서’가 36.0%,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가 13.6%로 나타나 남성의 결정권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거의 남자가 결정’이 47.5%로 가장 높고, ‘남자가 주로 하고 여자와 상의해서’가 38.4%,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가 11.4%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거의 남자가 결정’이 35.7%로 가장 높고, ‘남자가 주로 하고 여자와 상의해서’ 33.7%,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 15.8%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볼 때, 농사일정 결정에 있어서는 남성의 결정권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9) 품 사기

“품을 사는 것”에 대한 결정은 전체적으로 볼 때, ‘남자가 주로 하고 여자와 상의해서’가 35.0%, ‘거의 남자가 결정’이 30.8%,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가 16.7%로 나타나 남자와 여자의 결정권이 비교적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남자가 주로 하고 여자와 상의해서’가

38.4%로 가장 높고, ‘거의 남자가 결정’이 36.0%,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가 15.8%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남자가 주로 하고 여자와 상의해서’가 31.6%로 가장 높고, ‘거의 남자가 결정’이 25.6%,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가 17.5%로 나타났는데, 여성의 응답에서 ‘거의 여자 혼자서 결정’이 13.8%로 나타나 남성의 3.4% 응답률과는 상이한 차이를 보였다.

(10) 농산물 판매

“농산물 판매에 대한 결정”은 전체적으로 볼 때 ‘거의 남자가 결정’이 34.5%, ‘남자가 주로 하고 여자와 상의해서’가 33.8%,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가 21.5%로 나타나 남녀의 결정권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여진다.

<표 III-9> 농산물 판매

단위 : 명(%)

		거의 남자가 결정	남자가 주로 하고 여자와 상의해서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	여자가 주로 하고 남자와 상의해서	거의 여자혼자 결정	기타	$\chi^2$
성별	남	120(40.4)	107(36.0)	61(20.5)	5(1.7)	3(1.0)	1(0.3)	43.598**
	여	85(28.6)	94(31.6)	67(22.6)	4(1.3)	41(13.8)	6(2.0)	
	합계	205(34.5)	201(33.8)	128(21.5)	9(1.5)	44(7.4)	7(1.2)	
연령	30대이하	35(42.2)	26(31.3)	11(13.3)	2(2.4)	6(7.2)	3(3.6)	36.056**
	40대	40(30.3)	47(35.6)	38(28.8)	1(0.8)	6(4.5)	-	
	50대	68(28.7)	76(32.1)	64(27.0)	5(2.1)	21(8.9)	3(1.3)	
	60대이상	62(43.7)	52(36.6)	15(10.6)	1(0.7)	11(7.7)	1(0.7)	
	합계	205(34.5)	201(33.8)	128(21.5)	9(1.5)	44(7.4)	7(1.2)	

\*\* p<.001

(11) 판매금의 용도 결정

판매금의 용도결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남자가 주로 하고 여자와 상의해서’가 37.3%로 가장 높고,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가 26.5%, ‘거의 남자가 결정’이 26.2%로 나타나 비교적 남녀 공동 결정권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남자가 주로 하고 여자와 상의해서’가 37.6%로 가장 높고, ‘거의 남자가 결정’이 32.2%,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가 26.8%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 ‘남자가 주로 하고 여자와 상의해서’ 37.1%,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 26.2%, ‘거의 남자가 결정’ 20.1%, ‘거의 여자 혼자서 결정’이 13.9%로 나타나 남성과 여성의 응답 경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판매금의 용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남성과 여성의 의사가 공동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 농기계 사용경험

“귀하는 직접 농기계를 다루어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있다’가 43.8%, ‘없다’가 56.2%로 나타났다.

<표 III-10> 농기계 사용경험      단위 : 명(%)

		있다	없다	$\chi^2$
성별	남	232(78.9)	62(21.1)	292.564**
	여	27(9.1)	270(90.9)	
	합계	259(43.8)	332(56.2)	
연령	30대이하	36(43.9)	46(56.1)	1.157
	40대	63(47.7)	69(52.3)	
	50대	100(42.0)	138(58.0)	
	60대이상	60(43.2)	79(56.8)	
	합계	259(43.8)	332(56.2)	

\*\* p<.001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있다’가 78.9%, ‘없다’가 21.1%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있다’가 9.1%, ‘없다’가 90.9%로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농기계 사용 경험에서 여성과 남성은 비율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는 데, 여성의 경우 농기계 사용경험은 9.1%로 10%미만의 낮은 수준임을 나타냈다.

직접 농기계를 다루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기계 사용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가 43.7%, ‘기계를 사용할 줄 몰라서’가 24.2%, ‘기계가 없어서’가 17.1%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기계가 없어서’가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계 사용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가 28.6%, ‘기계를 사용할 줄 몰라서’가 17.1%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 ‘기계 사용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가 47.6%로 가장 높고, ‘기계를 사용할 줄 몰라서’ 26.0%, ‘기계가 없어서’ 12.3%로 남성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성의 경우는 기계는 남성이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Ⅲ-11> 직접 농기계를 다루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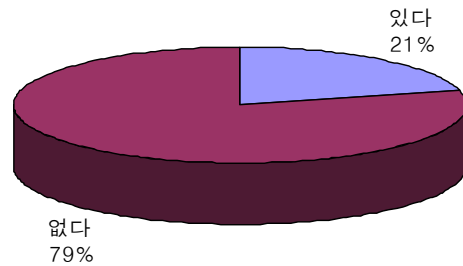
		기계가 없어서	기계를 사용할 줄 몰라서	다루기가 힘들어서	기계 사용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기타	$\chi^2$
성별	남	25(35.7)	12(17.1)	7(10.0)	20(28.6)	6(8.6)	26.031**
	여	33(12.3)	70(26.0)	26(9.7)	128(47.6)	12(4.5)	
	합계	58(17.1)	82(24.2)	33(9.7)	148(43.7)	18(5.3)	
연령	30대이하	8(16.3)	11(22.4)	1(2.0)	25(51.0)	4(8.2)	11.170
	40대	11(16.2)	15(22.1)	5(7.4)	34(50.0)	3(4.4)	
	50대	26(18.6)	31(22.1)	16(11.4)	61(43.6)	6(4.3)	
	60대이상	13(15.9)	25(30.5)	11(13.4)	28(34.1)	5(6.1)	
	합계	58(17.1)	82(24.2)	33(9.7)	148(43.7)	18(5.3)	

\*\* p<.001

#### 라. 농기계 사용을 위한 교육 여부 및 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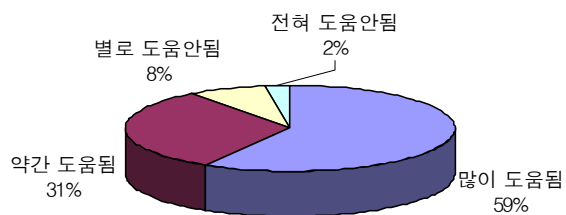
“농기계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있다’가 21.1%, ‘없다’가 78.9%로 나타나 농기계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 수준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I-13> 농기계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여부



“교육을 받은 경우 그 교육이 실제로 농기계를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 하는 질문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가 58.7%, ‘약간 도움이 되었다’가 31.0%로 나타났다.

<그림 III-14> 농기계 사용방법 교육의 효과



“농기계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받을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가 59.2%, ‘교육이 실시된 적이 없어서’가 15.8%, ‘기회가 주어진 적이 없어서’가 12.6%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는 ‘교육받을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가 60.9%, '교육이 실시된 적이 없어서'가 13.0%, '기회가 주어진 적이 없어서'가 12.0%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경우는 '교육받을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가 58.1%, '교육이 실시된 적이 없어서'가 17.7%, '기회가 주어진 적이 없어서'가 13.0%로 나타났다. 농기계 사용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남성(60.9%)과 여성(58.1%) 모두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이 실시된 적이 없거나 기회가 주어진 적이 없어서 교육받은 경험이 없는 비율도 30% 정도로 나타났다.

<표 III-12> 농기계 사용방법을 교육받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교육실시된적이 없어서	기회가 주어진적이 없어서	정보를 알지 못해서	시간이 없어서	교육받을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기타	$\chi^2$
성별	남	24(13.0)	22(12.0)	9(4.9)	9(4.9)	112(60.9)	8(4.3)	7.320
	여	49(17.7)	36(13.0)	5(1.8)	8(2.9)	161(58.1)	18(6.5)	
	합계	73(15.8)	58(12.6)	14(3.0)	17(3.7)	273(59.2)	26(5.6)	
연령	30대이하	16(25.0)	7(10.9)	1(1.6)	1(1.6)	35(54.7)	4(6.3)	15.177
	40대	16(16.2)	12(12.1)	2(2.0)	4(4.0)	61(61.6)	4(4.0)	
	50대	24(12.5)	30(15.6)	8(4.2)	10(5.2)	111(57.8)	9(4.7)	
	60대이상	17(16.0)	9(8.5)	3(2.8)	2(1.8)	66(62.3)	9(8.5)	
	합계	73(15.8)	58(12.6)	14(3.0)	17(3.7)	273(59.2)	26(5.6)	

#### 마. 현재 교육활동 및 앞으로의 교육 참여 계획

“현재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활동의 경우, 직업의식, 농업기술, 경영방식 등의 직업교육이 41.0%로 가장 높고, 취미교육, 보건교육, 환경교육 등이 9.6%로 나타났다.

또한 앞으로의 교육 참여계획에 대한 물음에는 직업교육이 21.5%로 가장 높고, 교양교육이 16.7%, 취미교육이 15.1%, 보건교육이 14.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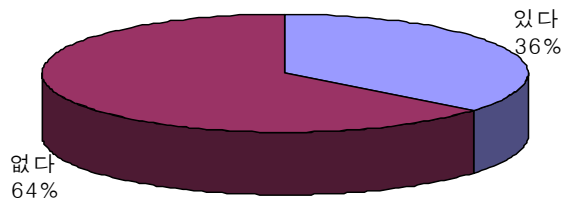
농촌지역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 응답자의 경향을 고려해 볼 때, 농업을 유지하고 새로운 직종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직업

교육이나 교양교육, 취미교육, 보건교육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 바. 컴퓨터 활용 정도

“컴퓨터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있다’ 35.9%, ‘없다’ 64.1%로 나타났다.

<그림 III-15> 컴퓨터 보유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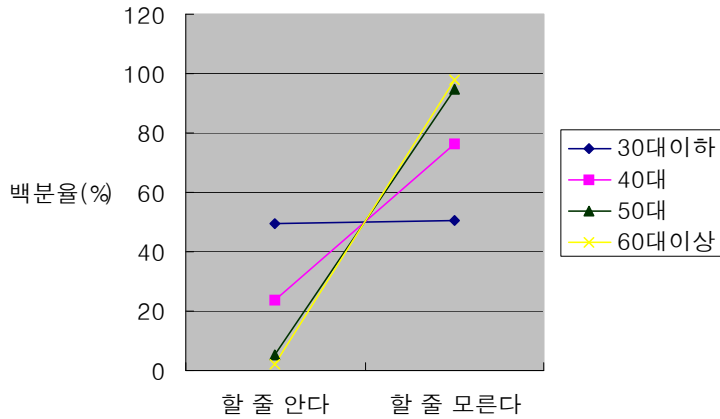
“집에 컴퓨터가 있는 경우 컴퓨터는 주로 누가 사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자녀’ 79.7%, ‘가족 모두’ 8.5%, ‘남편’ 6.6%, ‘아내’의 경우는 0%로 컴퓨터의 주 사용자가 자녀로 나타났다.

“남편이 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 그로 인해 남편에게 무시당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있다’ 18.8%, ‘없다’ 81.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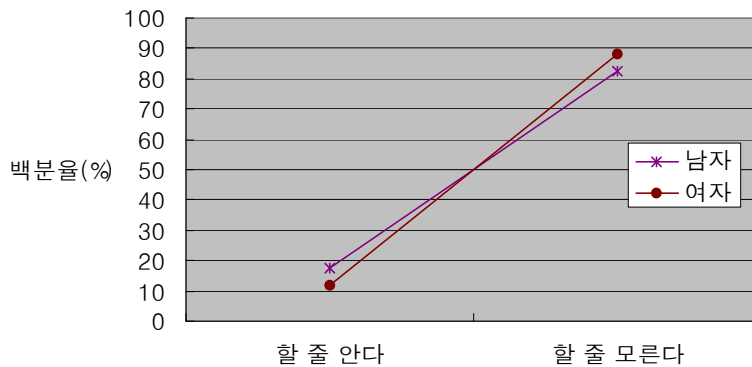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14.7%였고, 사용할 줄 모르는 경우는 85.3%였다.

이를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이하의 경우 ‘할 줄 안다’가 49.4%, ‘할 줄 모른다’가 50.6%이고, 40대의 경우 ‘할 줄 안다’ 23.5%, ‘할 줄 모른다’가 76.5%이었으며, 50대의 경우 ‘할 줄 안다’가 5.5%, ‘할 줄 모른다’가 94.5%이고, 60대 이상의 경우 ‘할 줄 안다’가 2.1%, ‘할 줄 모른다’가 97.9%로 젊은 연령층에서 컴퓨터 사용가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6> 연령별 컴퓨터 사용가능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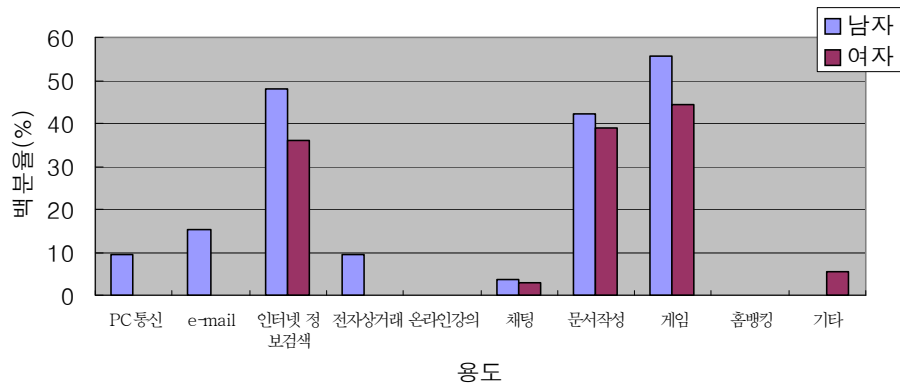
<그림 III-17> 성별 컴퓨터 사용가능 여부



또한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할 줄 안다’가 17.5%, ‘할 줄 모른다’가 82.5%였고, 여성의 경우 ‘할 줄 안다’가 11.9%, ‘할 줄 모른다’가 88.1%로 나타나 젊을수록 남성일수록 컴퓨터 사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를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가”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게임’이 31.7%로 가장 높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검색’이 26.8%, ‘문서작성’이 25.4%로 나타났다.

<그림 III-18> 컴퓨터 용도



\*복수응답 항목임

이를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게임’이 55.8%로 가장 높고, ‘정보검색’이 48.1%, ‘문서작성’이 42.3%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게임’이 44.4%, ‘문서작성’이 38.9%, ‘정보검색’이 36.1%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지역의 컴퓨터 사용 가능률이 매우 낮고, 실제로 컴퓨터를 이용하는 측면에서도 개발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으며, 성별로 볼 때 남성도 ‘온라인 강의’, ‘홈뱅킹’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응답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 ‘정보검색’, ‘채팅’, ‘문서작성’, ‘게임’에만 컴퓨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간, 성별간 정보접근 및 이용에 있어서 불평등 현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 3.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은 건강의식, 현재생활 만족도, 농업·농촌에 대한 견해, 현재 농촌문제에 대한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가. 건강의식

“평소에 자신의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건강하다’ 39.4%, ‘그저 그렇다’가 28.4%, ‘자주 아프다’ 21.1%로 나타났다.

<표 III-13> 연령별 건강의식

단위 : 명(%)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매우 자주 아프다	-	-	-	-	2 (1.8)	-	6 (7.1)	8 (13.8)
자주 아프다	2 (5.3)	6 (13.3)	2 (3.2)	13 (18.3)	18 (15.8)	13 (18.3)	20 (23.8)	30 (51.7)
그저 그렇다	7 (18.4)	13 (28.9)	20 (32.3)	28 (39.4)	34 (29.8)	28 (39.4)	27 (32.1)	9 (15.5)
건강하다	20 (52.6)	24 (53.3)	32 (51.6)	25 (35.2)	54 (47.4)	25 (35.2)	29 (34.5)	9 (15.5)
매우 건강하다	9 (23.7)	2 (4.4)	8 (12.9)	5 (7.0)	6 (5.3)	5 (7.0)	2 (2.4)	2 (3.4)
전체	38 (100.0)	45 (100.0)	62 (100.0)	71 (100.0)	114 (100.0)	71 (100.0)	84 (100.0)	58 (100.0)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으로 갈수록 ‘매우 자주 아프다’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남자보다는 여자가 ‘매우 자주 아프다’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자주 아프다’에 응답한 경우도 30대 이하 남자 5.3%, 여자 13.3%, 40대 남자 3.2%, 여자 18.3%로 여자가 월등히 높으며, 50대의 경우는 남자 15.8%, 여자 18.3%로 비슷하나, 60대 이상의 경우 남자의 경우 23.8%, 여자가 51.7%로 약 2배 정도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농촌지역의 경우 여성 특히 노인여성의 건강문제가 심



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몸이 아플 경우, 주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병원이용’이 57.0%, ‘약국이용’이 18.0%, ‘보건소이용’이 10.7%로 나타났다.

<표Ⅲ-14> 아플 때 대처 방법

단위 : 명(%)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그냥참는다	3 (7.9)	6 (13.3)	5 (8.1)	11 (15.5)	13 (11.4)	12 (9.7)	7 (8.3)	2 (3.4)
약국이용	10 (26.3)	12 (26.7)	18 (29.0)	14 (19.7)	20 (17.5)	12 (9.7)	16 (19.0)	5 (8.6)
한의원이용	1 (2.6)	-	1 (1.6)	1 (1.4)	2 (1.8)	5 (4.0)	2 (2.4)	4 (6.9)
보건소이용	1 (2.6)	1 (2.2)	7 (11.3)	10 (14.1)	11 (9.6)	17 (13.7)	12 (14.3)	5 (8.6)
병원이용	23 (60.5)	25 (55.6)	30 (48.4)	33 (46.5)	66 (57.9)	77 (62.1)	46 (54.8)	40 (69.0)
민간요법	-	1 (2.2)	1 (1.6)	2 (2.8)	1 (.9)	-	-	1 (1.7)
기타	-	-	-	-	1 (.9)	1 (.8)	1 (1.2)	1 (1.7)
전체	38 (100.0)	45 (100.0)	62 (100.0)	71 (100.0)	114 (100.0)	124 (100.0)	84 (100.0)	58 (100.0)

성별·연령별로 응답경향을 살펴보면, 30대 이하는 ‘그냥 참는다’가 남자는 7.9%, 여자는 13.3%로 여자가 높고, 40대의 경우 남자 8.1%, 여자 15.5%로 여자가 높은 반면, 50대의 경우 남자 11.4%, 여자 9.7%로 남자가 높고, 60대 이상의 경우 남자 8.3%, 여자 3.4%로 남자가 높아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약국이용’의 경우 30대 이하의 경우 남자는 26.3%, 여자는 26.7%로 여자가 높고, 40대의 경우 남자 29.0%, 여자 19.7%로 남자가 높고, 50대의 경우 남자 17.5%, 여자 9.7%로 남자가 높고, 60대 이상의 경우 남자 19.0%, 여자 8.6%로 남자가 높아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보건소 이용’의 경우 30대 이하 남자는 2.6%, 여자는 2.2%, 40대의 경우 남자 11.3%, 여자 14.1%로 비슷하나, 50대의 경우 남자 9.6%, 여자 13.7%로 여자가 높고, 60대 이상의 경우 남자 14.3%, 여자 8.6%로 남자가 높아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병원이용’은 30대 이하의 경우 남자는 60.5%, 여자는 55.6%로 남자가 높고, 40대의 경우 남자 48.4%, 여자 46.5%로 비슷하고, 50대의 경우 남자 57.9%, 여자 62.1%로 여자가 높고, 60대 이상의 경우 남자 54.8%, 여자 69.0%로 여자가 높아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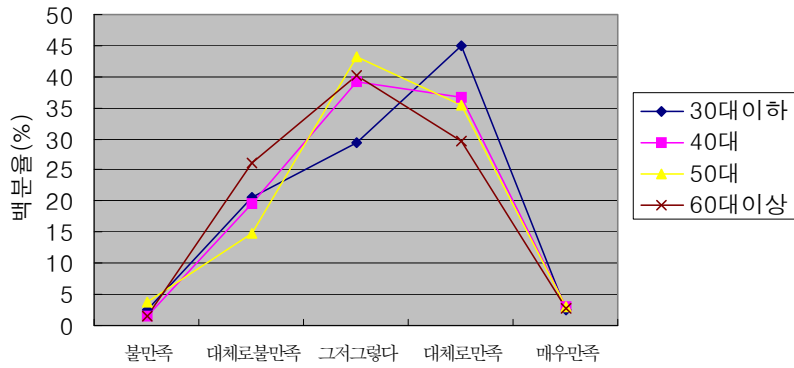
## 나. 현재생활 만족도

“현재 생활 전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다’가 39.7%, ‘대체로 만족스럽다’가 35.6%, ‘대체로 만족스럽지 않다’가 19.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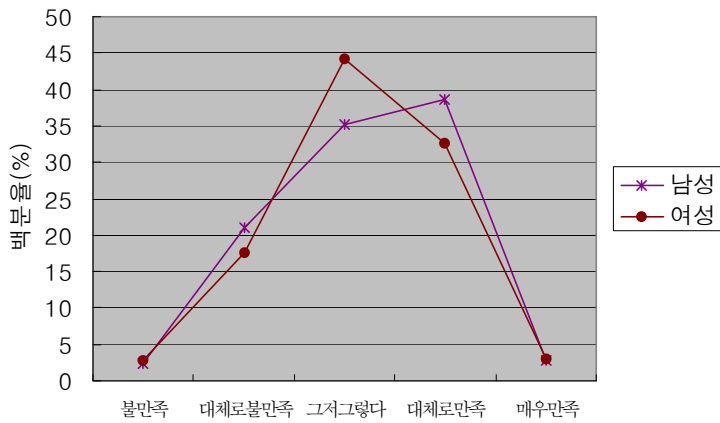
이를 성별·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의 남자의 경우는 ‘대체로 만족’이 42.1%, 여자는 47.7%로 가장 높고, ‘그저 그렇다’ 26.3%, 31.8%로 나타났다. 40대 남자의 경우 ‘대체로 만족’이 41.9%로 가장 높고, 여자는 ‘그저 그렇다’가 40.8%로 가장 높았다. 50대 남자의 경우 ‘대체로 만족’이 41.2%로 가장 높고, 여자는 ‘그저 그렇다’가 5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0대 이상 남자의 경우 ‘그저 그렇다’가 38.1%로 가장 높고, 여자의 경우 ‘그저 그렇다’ 43.1%로 가장 높았다.

30대 이하와 40대, 50대 남자의 만족비율이 높은 반면, 여자의 경우 남자보다 현재생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9> 연령별 현재생활 만족도



<그림 III-20> 성별 현재생활 만족도



## 다. 농업·농촌에 대한 견해

### (1) 자녀의 농업 종사에 대한 견해

농업과 농촌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기 위한 기본작업으로 자녀가 직업으로 농업을 택할 경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농사를 짓는다는 가정을 아들의 경우와 딸의 경우로 나누어 질문해 보았는데, 전체적으로는 아들의 경우는 ‘대체로 찬성’이 32.7%, ‘적극 반대’가 28.4%, ‘대체로 반대’가 27.3%로 나타났고, 딸의 경우는 ‘적극 반대’

가 33.9%, ‘대체로 반대’가 28.2%, ‘대체로 찬성’이 25.2%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연령별로 살펴보면, 아들의 경우는 30대 이하의 남자는 ‘대체로 찬성’이 42.1%, ‘대체로 반대’와 ‘적극반대’가 각각 26.3%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대체로 찬성’과 ‘적극 반대’가 각각 31.1%, ‘대체로 반대’가 28.9%로 나타나 반대의 비율이 높았다.

40대의 경우 남자는 ‘대체로 찬성’이 37.1%로 가장 높고, ‘대체로 반대’가 22.6%로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 ‘적극 반대’ 42.3%로 가장 높고, ‘대체로 반대’가 25.4%로 나타나 반대의 비율이 높았다.

50대의 경우 남자는 ‘대체로 찬성’과 ‘대체로 반대’가 각각 31.6%로 가장 높았고, 여자의 경우 ‘적극 반대’가 32.3%로 가장 높고 ‘대체로 반대’가 30.6%로 나타나 역시 반대 비율이 높았다.

60대 이상의 경우 남자는 ‘대체로 찬성’이 44.0%로 가장 높고, ‘적극반대’ 23.8%로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 ‘대체로 찬성’이 31.0%로 가장 높고, ‘대체로 반대’가 29.3%로 나타나 찬성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딸의 경우는 30대 이하의 남자는 ‘대체로 찬성’과 ‘적극 반대’가 각각 31.6%로 가장 높고, 여자의 경우 ‘적극 반대’가 33.3%로 가장 높고 ‘대체로 반대’가 31.1%로 나타나 여자의 경우 딸에 대한 반대 비율이 더 높았다.

40대의 경우 남자는 ‘대체로 찬성’이 27.4%로 가장 높고, ‘대체로 반대’가 25.8%로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 ‘적극 반대’ 43.7%로 가장 높고, ‘대체로 반대’가 25.4%로 나타나 40대의 경우도 여자가 딸에 대한 반대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50대의 경우 남자는 ‘적극 반대’가 32.5%로 가장 높고, ‘대체로 반대’가 31.6%로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 ‘적극 반대’가 37.9%로 가장 높고 ‘대체로 반대’가 29.0%로 나타나 반대 비율이 높았다.

60대 이상의 경우 남자는 ‘적극반대’가 35.7%로 가장 높고, ‘대체로 찬성’이 31.0%로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 ‘대체로 반대’가 36.2%로 가장 높고, ‘적극 반대’가 25.9%로 나타나 남자보다 여자의 반대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5> 자녀의 농업종사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아들의 경우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모르겠다	1(2.6)	4(8.9)	11(17.7)	7(9.9)	7(6.1)	4(3.2)	5(6.0)	5(8.6)
적극반대	10(26.3)	14(31.1)	13(21.0)	30(42.3)	29(25.4)	40(32.3)	20(23.8)	13(22.4)
대체로반대	10(26.3)	13(28.9)	14(22.6)	18(25.4)	36(31.6)	38(30.6)	17(20.2)	17(29.3)
대체로찬성	16(42.1)	14(31.1)	23(37.1)	15(21.1)	36(31.6)	36(29.0)	37(44.0)	18(31.0)
적극찬성	1(2.6)	-	1(1.6)	1(1.4)	6(5.3)	6(4.8)	5(6.0)	5(8.6)
전체	38 (100.0)	45 (100.0)	62 (100.0)	71 (100.0)	114 (100.0)	124 (100.0)	84 (100.0)	58 (100.0)
딸의 경우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모르겠다	2(5.3)	5(11.1)	14(22.6)	8(11.3)	9(7.9)	8(6.5)	9(10.7)	6(10.3)
적극반대	12(31.6)	15(33.3)	15(24.2)	31(43.7)	37(32.5)	47(37.9)	30(35.7)	15(25.9)
대체로반대	11(28.9)	14(31.1)	16(25.8)	18(25.4)	36(31.6)	36(29.0)	16(19.0)	21(36.2)
대체로찬성	12(31.6)	10(22.2)	17(27.4)	14(19.7)	29(25.4)	28(22.6)	26(31.0)	14(24.1)
적극찬성	1(2.6)	1(2.2)	-	-	3(2.6)	5(4.0)	3(3.6)	2(3.4)
전체	38 (100.0)	45 (100.0)	62 (100.0)	71 (100.0)	114 (100.0)	124 (100.0)	84 (100.0)	58 (100.0)

(2) 농촌 미래상에 대한 의견

“앞으로 10년 후의 우리나라 농촌생활이 지금보다 나아지리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전체적으로는 남자의 경우 ‘똑같은 것이다’가 30.2%로 가장 높고, ‘약간 나아질 것이다’ 28.5%, ‘약간 나빠질 것이다’ 26.5%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똑같은 것이다’가 39.6%로 가장 높고, ‘약간 나아질 것이다’가 34.6%, ‘약간 나빠질 것이다’가 15.1%로 나타나 성별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III-16> 연령별 농촌의 미래상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훨씬나아질것	3 (7.9)	1 (2.2)	2 (3.2)	3 (4.2)	3 (2.6)	4 (3.2)	1 (1.2)	2 (3.4)
약간나아질것	16 (42.1)	21 (46.7)	18 (29.0)	23 (32.4)	29 (25.4)	45 (36.3)	22 (26.2)	14 (24.1)
똑같은것	5 (13.2)	16 (35.6)	19 (30.6)	26 (36.6)	35 (30.7)	43 (34.7)	31 (36.9)	33 (56.9)
약간나빠질것	9 (23.7)	5 (11.1)	17 (27.4)	14 (19.7)	34 (29.8)	21 (16.9)	19 (22.6)	5 (8.6)
훨씬나빠질것	5 (13.2)	2 (4.4)	6 (9.7)	5 (7.0)	13 (11.4)	11 (8.9)	11 (13.1)	4 (6.9)
전체	38 (100.0)	45 (100.0)	62 (100.0)	71 (100.0)	114 (100.0)	124 (100.0)	84 (100.0)	58 (100.0)

이를 성별·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 남자의 경우 ‘약간 나아질 것이다’가 42.1%로 가장 높고, ‘약간 나빠질 것이다’가 23.7%로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 ‘약간 나아질 것이다’가 46.7%, ‘똑같은 것이다’가 35.6%로 나타나 대체로 낙관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40대의 경우 남자는 ‘똑같은 것이다’가 30.6%로 가장 높고, ‘약간 나아질 것이다’가 29.0%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 ‘똑같은 것이다’가 36.6%로 가장 높고, ‘약간 나아질 것이다’가 32.4%로 나타나 40대는 별로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지 못한 경향을 보인다.

50대의 경우 남자는 ‘똑같은 것이다’가 30.7%로 가장 높고, ‘약간 나빠질 것’이 29.8%로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 ‘약간 나아질 것이다’가 36.3%로 가장 높고, ‘똑같은 것이다’가 34.7%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경우 남자는 ‘똑같은 것이다’가 36.9%로 가장 높고, ‘약간 나아질 것이다’가 26.2%로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 ‘똑같은 것이다’가 56.9%로 가장 높고, ‘약간 나아질 것이다’가 24.1%로 나타나 지금과 별로 다를 것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농촌생활 계속 여부

현재 농촌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미래 계획에 대한 견해와 관련한 “귀하는 농촌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의 응답결과, ‘농촌에서 계속 살기를 원한다’ 84.2%, ‘도시로 나가서 살고 싶다’ 8.4%, ‘잘 모르겠다’ 4.0%로 나타났다.

<표Ⅲ-17> 농촌에서 계속 살 것인가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계속 살것	도시로	도시에서 살다가 귀농	잘 모르겠다	기타	$\chi^2$
성별	남	251(84.2)	21(7.0)	10(3.4)	16(5.4)	-	8.947
	여	251(84.2)	29(9.7)	6(2.0)	8(2.7)	4(1.3)	
	합계	502(84.2)	50(8.4)	16(2.7)	24(4.0)	4(0.7)	
연령	30대이하	49(59.0)	21(25.3)	6(7.2)	6(7.2)	1(1.2)	88.812**
	40대	99(74.4)	19(14.3)	8(6.0)	7(5.3)	-	
	50대	216(90.8)	10(4.2)	2(0.8)	7(2.9)	3(1.3)	
	60대이상	138(97.2)	-	-	4(2.8)	-	
	합계	502(84.2)	50(8.4)	16(2.7)	24(4.0)	4(0.7)	

\*\*p<.001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 녀 모두 ‘농촌에서 계속 살기를 원한다’가 84.2%로 가장 높고 다른 항목에서는 아주 적은 응답이 나왔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의 경우 ‘농촌에서 계속 살기를 원한다’가 59.0%로 가장 높고 ‘도시로 나가 살고 싶다’가 25.3%로 나타났다. 40대의 경우는 ‘농촌에서 계속 살기를 원한다’가 74.4%로 가장 높고, ‘도시로 나가 살고 싶다’가 14.3%로 나타났다. 50대의 경우는 ‘농촌에서 계속 살기를 원한다’가 90.8%이고 60대이상의 경우는 ‘농촌에서 계속 살기를 원한다’가 97.2%로 40대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농촌에서 계속 살기를 원한다는 응답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라. 현재 농촌문제에 대한 견해

현재의 농촌문제에 대한 견해에 대한 응답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이 농사일과 가사일을 모두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이중부담”에 대하여는 ‘조금 심각하다’ 42.3%, ‘별로 심각하지 않다’ 32.4%, ‘매우 심각하다’ 22.8%로 나타났다.

성별·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 남자의 경우 ‘조금 심각하다’가 34.2%로 가장 높고, ‘별로 심각하지 않다’ 31.6%로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 ‘조금 심각하다’ 44.4%, ‘매우 심각하다’ 28.9로 나타나 30대의 경우 농사일과 가사일에 대한 여성의 이중부담문제에 대하여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40대의 경우, 남자는 ‘조금 심각하다’가 41.9%로 가장 높고, ‘별로 심각하지 않다’ 37.1%로 응답한 반면, 여자의 경우 ‘조금 심각하다’가 36.6%로 가장 높고, ‘매우 심각하다’ 33.8%로 역시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의 경우, 남자는 ‘조금 심각하다’가 51.8%로 가장 높고, ‘별로 심각하지 않다’ 35.1%로 응답한 반면, 여자의 경우 ‘조금 심각하다’가 41.1%로 가장 높고, ‘매우 심각하다’ 29.0%로 역시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이상의 경우 ‘조금 심각하다’가 41.7%로 가장 높고, ‘별로 심각하지 않다’ 36.9%로 응답했고, 여자의 경우 ‘조금 심각하다’와 ‘별로 심각하지 않다’가 각각 37.9%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경향은 농사일과 가사일에 모두 책임을 지고 있는 30대의 경우가 가장 심각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40대와 50대의 경우도 심각함을 느끼지만 가사일과 농사일에서 조금 자유로워진 60대이상의 경우 심각함을 인식하는 정도가 낮아 자신의 일과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표Ⅲ-18> 여성의 농사일과 가사일에 대한 이중부담

단위 : 명(%)

	30대이하		40대		50대		60대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전혀심각하지않다	2 (5.3)	-	3 (4.8)	1 (1.4)	2 (1.8)	4 (3.2)	2 (2.4)	1 (1.7)
별로심각하지않다	12 (31.6)	12 (26.7)	23 (37.1)	20 (28.2)	40 (35.1)	33 (26.6)	31 (36.9)	22 (37.9)
조금심각하다	13 (34.2)	20 (44.4)	26 (41.9)	26 (36.6)	59 (51.8)	51 (41.1)	35 (41.7)	22 (37.9)
매우 심각하다	11 (28.9)	13 (28.9)	10 (16.1)	24 (33.8)	13 (11.4)	36 (29.0)	16 (19.0)	13 (22.4)
전 체	38 (100.0)	45 (100.0)	62 (100.0)	71 (100.0)	114 (100.0)	124 (100.0)	84 (100.0)	58 (100.0)

“농산물 가격보장과 소득보장”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볼 때, ‘매우 심각하다’ 70.9%, ‘조금 심각하다’ 24.9%로 나타나 심각하다는 인식이 매우 높았다.

이를 성별·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 남자의 경우 ‘매우 심각하다’가 68.4%로 가장 높고, ‘조금 심각하다’ 26.3%로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 ‘매우 심각하다’ 62.2%, ‘조금 심각하다’ 33.3%로 나타났다.

40대의 경우, 남자는 ‘매우 심각하다’가 77.4%로 가장 높고, ‘조금 심각하다’ 19.4%로 응답했고, 여자의 경우 ‘매우 심각하다’가 68.6%로 가장 높고, ‘조금 심각하다’ 25.7%로 나타났다.

50대의 경우, 남자는 ‘매우 심각하다’가 74.6%로 가장 높고, ‘조금 심각하다’ 21.1%로 응답했고, 여자의 경우 ‘매우 심각하다’가 71.0%로 가장 높고, ‘조금 심각하다’ 26.6%로 나타났다.

60대이상의 경우 ‘매우 심각하다’가 81.0%로 가장 높고, ‘조금 심각하다’ 15.5%로 응답했고, 여자의 경우 ‘매우 심각하다’는 53.4%로 가장 높고, ‘조금 심각하다’가 39.7%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경향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젊은 층보다는 보다 나이 많은 층이 농산물 가격보장과 소득보장에 대해 심각함을 더 많이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Ⅲ-19> 농산물 가격보장과 소득보장

단위 : 명(%)

	30대이하		40대		50대		60대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전혀심각하지않다	-	-	-	-	-	-	-	1 (1.7)
별로심각하지않다	2 (5.3)	2 (4.4)	2 (3.2)	4 (5.7)	5 (4.4)	3 (2.4)	3 (3.6)	3 (5.2)
조금 심각하다	10 (26.3)	15 (33.3)	12 (19.4)	18 (25.7)	24 (21.1)	33 (26.6)	13 (15.5)	23 (39.7)
매우 심각하다	26 (68.4)	28 (62.2)	48 (77.4)	48 (68.6)	85 (74.6)	88 (71.0)	68 (81.0)	31 (53.4)
전 체	38 (100.0)	45 (100.0)	62 (100.0)	70 (100.0)	114 (100.0)	124 (100.0)	84 (100.0)	58 (100.0)

“농기계를 다룰 줄 모르는 점”에 대하여는 ‘별로 심각하지 않다’ 42.6%로 가장 높고, ‘조금 심각하다’의 경우 40.3%로 나타나 심각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비교적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성별·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 남자의 경우 ‘별로 심각하지 않다’가 50.0%로 가장 높고, ‘조금 심각하다’ 28.9%로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 ‘조금 심각하다’ 42.2%, ‘별로 심각하지 않다’ 40.0% 나타났다.

40대의 경우, 남자는 ‘조금 심각하다’가 41.9%로 가장 높고, ‘별로 심각하지 않다’ 33.9%로 응답했고, 여자의 경우 ‘조금 심각하다’가 43.7%로 가장 높고, ‘별로 심각하지 않다’ 33.8%로 나타났다.

50대의 경우, 남자는 ‘별로 심각하지 않다’가 44.7%로 가장 높고, ‘조금 심각하다’ 40.4%로 응답했고, 여자의 경우 ‘별로 심각하지 않다’가 45.2%로 가장 높고, ‘조금 심각하다’ 40.3%로 나타났다.

60대이상의 경우 ‘조금 심각하다’가 46.4%로 가장 높고, ‘별로 심각하지 않다’ 38.1%로 응답했고, 여자의 경우 ‘별로 심각하지 않다’가 56.9%로 가장 높고, ‘조금 심각하다’가 31.0%로 나타났다.

<표 III-20> 농기계를 다룰 줄 모르는 점

단위 : 명(%)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전혀심각하지 않다	4 (10.5)	3 (6.7)	11 (17.7)	9 (12.7)	12 (10.5)	10 (8.1)	8 (9.5)	4 (6.9)
별로심각하지 않다	19 (50.0)	18 (40.0)	21 (33.9)	24 (33.8)	51 (44.7)	56 (45.2)	32 (38.1)	33 (56.9)
조금심각하다	11 (28.9)	19 (42.2)	26 (41.9)	31 (43.7)	46 (40.4)	50 (40.3)	39 (46.4)	18 (31.0)
매우 심각하다	4 (10.5)	5 (11.1)	4 (6.5)	7 (9.9)	5 (4.4)	8 (6.5)	5 (6.0)	3 (5.2)
전체	38 (100.0)	45 (100.0)	62 (100.0)	71 (100.0)	114 (100.0)	124 (100.0)	84 (100.0)	58 (100.0)

“농사기술을 잘 습득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볼 때, ‘별로 심각하지 않다’가 52.4%, ‘조금 심각하다’ 31.4%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 남자의 경우 ‘별로 심각하지 않다’가 63.2%로 가장 높고, ‘조금 심각하다’ 21.1%로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 ‘별로 심각하지 않다’가 46.7%로 가장 높고, ‘조금 심각하다’ 40.0% 나타났다.

40대의 경우, 남자는 ‘조금 심각하다’와, ‘별로 심각하지 않다’가 각각 33.9%로 응답했고, 여자의 경우 ‘별로 심각하지 않다’가 46.5%로 가장 높고, ‘조금 심각하다’ 33.8%로 나타났다.

50대의 경우, 남자는 ‘별로 심각하지 않다’가 57.9%로 가장 높고, ‘조금 심각하다’ 31.6%로 응답했고, 여자의 경우 ‘별로 심각하지 않다’가 59.3%로 가장 높고, ‘조금 심각하다’ 25.2%로 나타났다.

60대이상의 경우 ‘별로 심각하지 않다’가 45.2%로 가장 높고, ‘조금 심각하다’ 39.3%로 응답했고, 여자의 경우 ‘별로 심각하지 않다’가 62.1%로 가장 높고, ‘조금 심각하다’가 27.6%로 나타났다.

<표 III-21> 농사기술을 잘 습득하지 못하는 점

단위 : 명(%)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전혀 심각하지않다	2 (5.3)	2 (4.4)	9 (14.5)	9 (12.7)	7 (6.1)	8 (6.5)	8 (9.5)	2 (3.4)
별로 심각하지않다	24 (63.2)	21 (46.7)	21 (33.9)	33 (46.5)	66 (57.9)	73 (59.3)	38 (45.2)	36 (62.1)
조금 심각하다	8 (21.1)	18 (40.0)	21 (33.9)	24 (33.8)	36 (31.6)	31 (25.2)	33 (39.3)	16 (27.6)
매우 심각하다	4 (10.5)	4 (8.9)	11 (17.7)	5 (7.0)	5 (4.4)	11 (8.9)	5 (6.0)	4 (6.9)
전 체	38 (100.0)	45 (100.0)	62 (100.0)	71 (100.0)	114 (100.0)	123 (100.0)	84 (100.0)	58 (100.0)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이 없는 점”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조금 심각하다’ 45.5%, ‘별로 심각하지 않다’ 38.2%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 남자의 경우 ‘조금 심각하다’가 55.3%로 가장 높고, ‘별로 심각하지 않다’ 26.3%로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 ‘조금 심각하다’ 42.2%, ‘별로 심각하지 않다’ 28.9% 나타났다.

40대의 경우, 남자는 ‘조금 심각하다’가 56.5%로 가장 높고, ‘별로 심각하지 않다’ 27.4%로 응답했고, 여자의 경우 ‘별로 심각하지 않다’가 46.5%로 가장 높고, ‘조금 심각하다’ 33.8%로 나타났다.

50대의 경우, 남자는 ‘별로 심각하지 않다’가 57.9%로 가장 높고, ‘조금 심각하다’ 31.6%로 응답했고, 여자의 경우 ‘별로 심각하지 않다’가 59.3%로 가장 높고, ‘조금 심각하다’ 25.2%로 나타났다.

60대이상의 경우 ‘별로 심각하지 않다’가 45.2%로 가장 높고, ‘조금 심각하다’ 39.3%로 응답했고, 여자의 경우 ‘별로 심각하지 않다’가 62.1%로 가장 높고, ‘조금 심각하다’가 27.6%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경향은 자녀들이 어린 30대의 경우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는 반면, 어린 자녀가 없는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심각성에 대한 인

식도가 크게 낮아짐을 볼 수 있다. 또한 성별로도 남성보다는 자녀양육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여성의 경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Ⅲ-22>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이 없는 점

단위 : 명(%)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전혀 심각하지않다	4 (10.5)	3 (6.7)	5 (8.1)	2 (2.9)	3 (2.6)	6 (4.8)	6 (7.1)	6 (10.3)
별로 심각하지않다	10 (26.3)	13 (28.9)	17 (27.4)	27 (38.6)	47 (41.2)	50 (40.3)	32 (38.1)	31 (53.4)
조금 심각하다	21 (55.3)	19 (42.2)	35 (56.5)	23 (32.9)	57 (50.0)	57 (46.0)	42 (50.0)	17 (29.3)
매우 심각하다	3 (7.9)	10 (22.2)	5 (8.1)	18 (25.7)	7 (6.1)	11 (8.9)	4 (4.8)	4 (6.9)
전체	38 (100.0)	45 (100.0)	62 (100.0)	70 (100.0)	114 (100.0)	124 (100.0)	84 (100.0)	58 (100.0)

“여성들만의 모임이나 여성들을 위한 상담기관이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별로 심각하지 않다’ 46.4%, ‘조금 심각하다’ 38.8%, ‘전혀 심각하지 않다’ 10.4%로 나타났다.

<표Ⅲ-23> 여성들만의 모임이나 여성들을 위한 상담기관이 부족한 점

단위 : 명(%)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전혀 심각하지않다	1 (2.6)	2 (4.4)	2 (3.2)	2 (2.8)	5 (4.4)	7 (5.6)	5 (6.0)	2 (3.4)
별로 심각하지않다	13 (34.2)	14 (31.1)	29 (46.8)	20 (28.2)	52 (45.6)	42 (33.9)	34 (41.0)	27 (46.6)
조금 심각하다	21 (55.3)	20 (44.4)	28 (45.2)	33 (46.5)	49 (43.0)	66 (53.2)	41 (49.4)	18 (31.0)
매우 심각하다	3 (7.9)	9 (20.0)	3 (4.8)	16 (22.5)	8 (7.0)	9 (7.3)	3 (3.6)	11 (19.0)
전체	38 (100.0)	45 (100.0)	62 (100.0)	71 (100.0)	114 (100.0)	124 (100.0)	83 (100.0)	58 (100.0)

이를 성별·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 남자의 경우 ‘조금 심각하다’가 55.3%로 가장 높고, ‘별로 심각하지 않다’ 39.5%로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 ‘조금 심각하다’ 40.0%, ‘별로 심각하지 않다’ 26.7% 나타났다.

40대의 경우, 남자는 ‘별로 심각하지 않다’가 51.6%로 가장 높고, ‘조금 심각하다’ 37.1%로 응답했고, 여자의 경우 ‘조금 심각하다’가 47.9%로 가장 높고, ‘별로 심각하지 않다’ 26.8%로 나타났다.

50대의 경우, 남자는 ‘별로 심각하지 않다’가 60.5%로 가장 높고, ‘조금 심각하다’ 34.2%로 응답했고, 여자의 경우 ‘별로 심각하지 않다’가 51.2%로 가장 높고, ‘조금 심각하다’ 37.4%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경우 ‘별로 심각하지 않다’가 50.0%로 가장 높고, ‘조금 심각하다’ 36.6%로 응답했고, 여자의 경우 ‘별로 심각하지 않다’가 56.9%로 가장 높고, ‘조금 심각하다’가 36.2%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경향은 남녀 모두 약간 심각하다고 느끼지만 남성의 경우보다는 여성의 경우가 더욱 심각하다는 인식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들만의 모임이나 여성들을 위한 상담기관에 관한 관심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욱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농촌의 남성 중심적인 의식과 성차별적인 문화”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보면, ‘별로 심각하지 않다’가 48.6%, ‘조금 심각하다’가 38.1%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 남자의 경우 ‘별로 심각하지 않다’가 50.0%로 가장 높고, ‘조금 심각하다’ 39.5%로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 ‘조금 심각하다’ 40.0%, ‘별로 심각하지 않다’ 26.7% 나타났다.

40대의 경우, 남자는 ‘별로 심각하지 않다’ 가 51.6%로 가장 높고, ‘조금 심각하다’ 37.1%로 응답했고, 여자의 경우 ‘조금 심각하다’가 47.9%로 가장 높고, ‘별로 심각하지 않다’ 26.8%로 나타났다.

50대의 경우, 남자는 ‘별로 심각하지 않다’ 가 60.5%로 가장 높고, ‘조금 심각하다’ 34.2%로 응답했고, 여자의 경우 ‘별로 심각하지 않다’가 51.2%로 가장 높고, ‘조금 심각하다’ 37.4%로 나타났다.

60대이상의 경우 ‘별로 심각하지 않다’ 가 50.0%로 가장 높고, ‘조금 심각하다’ 36.6%로 응답했고, 여자의 경우 ‘별로 심각하지 않다’가 56.9%로 가장 높고, ‘조금 심각하다’가 36.2%로 나타났다.

<표Ⅲ-24> 농촌의 남성 중심적인 의식과 성차별적인 문화

단위 : 명(%)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전혀 심각하지않다	3 (7.9)	2 (4.4)	4 (6.5)	2 (2.8)	1 (.9)	8 (6.5)	7 (8.5)	1 (1.7)
별로 심각하지않다	19 (50.0)	12 (26.7)	32 (51.6)	19 (26.8)	69 (60.5)	63 (51.2)	41 (50.0)	33 (56.9)
조금 심각하다	15 (39.5)	18 (40.0)	23 (37.1)	34 (47.9)	39 (34.2)	46 (37.4)	30 (36.6)	21 (36.2)
매우 심각하다	1 (2.6)	13 (28.9)	3 (4.8)	16 (22.5)	5 (4.4)	6 (4.9)	4 (4.9)	3 (5.2)
전체	38 (100.0)	45 (100.0)	62 (100.0)	71 (100.0)	114 (100.0)	123 (100.0)	82 (100.0)	58 (100.0)

이러한 응답경향은 농촌의 남성 중심적인 의식과 성차별적 문화에 대해 여성의 경우, 40대 이하의 경우 보다 젊은 연령층에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미나 교양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이나 활동이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심각하다’가 49.3%, ‘별로 심각하지 않다’가 31.5%, ‘매우 심각하다’가 16.2%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 남자의 경우 ‘조금 심각하다’가 42.1%로 가장 높고, ‘별로 심각하지 않다’ 28.9%로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 ‘조금 심각하다’ 42.2%, ‘별로 심각하지 않다’ 22.2% 나타났다.

40대의 경우, 남자는 ‘조금 심각하다’가 54.1%로 가장 높고, ‘별로 심각하지 않다’ 32.8%로 응답했고, 여자의 경우 ‘조금 심각하다’가 53.5%로 가장 높고, ‘별로 심각하지 않다’ 16.9%로 나타났다.

50대의 경우, 남자는 ‘조금 심각하다’가 49.1%로 가장 높고, ‘별로 심각하지 않다’ 36.0%로 응답했고, 여자의 경우 ‘조금 심각하다’가 49.6%로 가장 높고, ‘별로 심각하지 않다’ 31.7%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경우 ‘조금 심각하다’가 54.8%로 가장 높고, ‘별로 심각하지 않다’ 33.3%로 응답했고, 여자의 경우 ‘별로 심각하지 않다’가 44.8%로 가장 높고, ‘조금 심각하다’가 41.4%로 나타났다.

<표Ⅲ-25> 취미나 교양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이나 활동이 부족한 점

단위 : 명(%)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전혀 심각하지않다	1 (2.6)	-	1 (1.6)	1 (1.4)	3 (2.6)	7 (5.7)	4 (4.8)	1 (1.7)
별로 심각하지않다	11 (28.9)	10 (22.2)	20 (32.8)	12 (16.9)	41 (36.0)	39 (31.7)	28 (33.3)	26 (44.8)
조금 심각하다	16 (42.1)	19 (42.2)	33 (54.1)	38 (53.5)	56 (49.1)	61 (49.6)	46 (54.8)	24 (41.4)
매우 심각하다	10 (26.3)	16 (35.6)	7 (11.5)	20 (28.2)	14 (12.3)	16 (13.0)	6 (7.1)	7 (12.1)
전체	38 (100.0)	45 (100.0)	61 (100.0)	71 (100.0)	114 (100.0)	123 (100.0)	84 (100.0)	58 (100.0)



이러한 응답경향은 30대 이하와 60대 이상의 경우보다 40대와 50대의 연령층에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자녀들의 교육문제”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매우 심각하다’가 42.0%, ‘조금 심각하다’가 40.2%로 자녀의 교육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 남자의 경우 ‘매우 심각하다’와 ‘조금 심각하다’가 각각 39.5%로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 ‘매우 심각하다’ 46.7%, ‘조금 심각하다’ 42.2%로 나타났다.

40대의 경우, 남자는 ‘조금 심각하다’가 54.8%로 가장 높고, ‘매우 심각하다’ 25.8%로 응답했고, 여자의 경우 ‘매우 심각하다’가 56.3%로 가장 높고, ‘조금 심각하다’ 29.6%로 나타났다.

50대의 경우, 남자는 ‘조금 심각하다’가 44.7%로 가장 높고, ‘매우 심각하다’ 41.2%로 응답했고, 여자의 경우 ‘매우 심각하다’가 47.2%로 가장 높고, ‘조금 심각하다’ 38.2%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경우 남자는 ‘매우 심각하다’가 40.5%로 가장 높고, ‘조금 심각하다’ 34.5%로 응답했고, 여자의 경우 ‘조금 심각하다’가 39.7%로 가장 높고, ‘매우 심각하다’가 각각 32.8%로 나타났다.

<표Ⅲ-26> 자녀들의 교육문제

단위 : 명(%)

	30대이하		40대		50대		60대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전혀 심각하지않다	2 (5.3)	-	-	2 (2.8)	3 (2.6)	1 (.8)	2 (2.4)	2 (3.4)
별로 심각하지않다	6 (15.8)	5 (11.1)	12 (19.4)	8 (11.3)	13 (11.4)	17 (13.8)	19 (22.6)	14 (24.1)
조금 심각하다	15 (39.5)	19 (42.2)	34 (54.8)	21 (29.6)	51 (44.7)	47 (38.2)	29 (34.5)	23 (39.7)
매우 심각하다	15 (39.5)	21 (46.7)	16 (25.8)	40 (56.3)	47 (41.2)	58 (47.2)	34 (40.5)	19 (32.8)
전체	38 (100.0)	45 (100.0)	62 (100.0)	71 (100.0)	114 (100.0)	123 (100.0)	84 (100.0)	58 (100.0)

이러한 응답경향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심각한 정도를 많이 느끼고 있고, 실제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은 젊은 연령층에서 심각성을 더욱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강문제와 낮은 의료혜택”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심각하다’가 47.1%, ‘매우 심각하다’가 34.6%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 남자의 경우 ‘조금 심각하다’가 47.4%로 가장 높고, ‘조금 심각하다’ 28.9%로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 ‘조금 심각하다’ 48.9%, ‘별로 심각하지 않다’ 26.7% 나타났다.

40대의 경우, 남자는 ‘조금 심각하다’가 62.9%로 가장 높고, ‘별로 심각하지 않다’ 19.4%로 응답했고, 여자의 경우 ‘조금 심각하다’가 46.5%로 가장 높고, ‘매우 심각하다’ 36.6%로 나타났다.

50대의 경우, 남자는 ‘조금 심각하다’가 50.0%로 가장 높고, ‘매우 심각하다’ 35.1%로 응답했고, 여자의 경우 ‘매우 심각하다’가 42.7%로 가장 높고, ‘조금 심각하다’ 37.9%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경우 ‘조금 심각하다’가 46.4%로 가장 높고, ‘매우 심각하다’ 36.9%로 응답했고, 여자의 경우 ‘조금 심각하다’가 44.8%로 가장 높고, ‘매우 심각하다’가 각각 43.1%로 나타났다.

<표Ⅲ-27> 건강문제와 낮은 의료혜택

단위 : 명(%)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전혀 심각하지않다	-	-	-	-	-	2 (1.6)	1 (1.2)	1 (1.7)
별로 심각하지않다	11 (28.9)	12 (26.7)	12 (19.4)	12 (16.9)	17 (14.9)	22 (17.7)	13 (15.5)	6 (10.3)
조금 심각하다	18 (47.4)	22 (48.9)	39 (62.9)	33 (46.5)	57 (50.0)	47 (37.9)	39 (46.4)	26 (44.8)
매우 심각하다	9 (23.7)	11 (24.4)	11 (17.7)	26 (36.6)	40 (35.1)	53 (42.7)	31 (36.9)	25 (43.1)
전체	38 (100.0)	45 (100.0)	62 (100.0)	71 (100.0)	114 (100.0)	124 (100.0)	84 (100.0)	58 (100.0)

이러한 응답경향은 젊은 연령층인 30대 이하의 경우 보다는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문제의식이 높게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는 40대 이상부터 건강문제와 낮은 의료혜택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시설의 부족”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심각하다’가 49.8%, ‘매우 심각하다’가 29.9%, ‘별로 심각하지 않다’가 18.8%를 나타내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28> 복지시설의 부족

단위 : 명(%)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전혀 심각하지않다	-	-	1 (1.6)	2 (2.8)	2 (1.8)	2 (1.6)	1 (1.2)	1 (1.7)
별로 심각하지않다	7 (18.4)	10 (22.2)	15 (24.2)	11 (15.5)	20 (17.5)	25 (20.2)	14 (16.7)	10 (17.2)
조금 심각하다	16 (42.1)	20 (44.4)	32 (51.6)	30 (42.3)	62 (54.4)	63 (50.8)	45 (53.6)	29 (50.0)
매우 심각하다	15 (39.5)	15 (33.3)	14 (22.6)	28 (39.4)	30 (26.3)	34 (27.4)	24 (28.6)	18 (31.0)
전체	38 (100.0)	45 (100.0)	62 (100.0)	71 (100.0)	114 (100.0)	124 (100.0)	84 (100.0)	58 (100.0)

이를 성별·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 남자의 경우 ‘조금 심각하다’

가 42.1%로 가장 높고, ‘매우 심각하다’ 39.5%로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 ‘조금 심각하다’ 44.4%, ‘매우 심각하다’ 33.3% 나타났다.

40대의 경우, 남자는 ‘조금 심각하다’ 가 51.6%로 가장 높고, ‘별로 심각하지 않다’ 24.2%로 응답했고, 여자의 경우 ‘조금 심각하다’가 42.3%로 가장 높고, ‘매우 심각하다’ 39.4%로 나타났다.

50대의 경우, 남자는 ‘조금 심각하다’ 가 54.4%로 가장 높고, ‘매우 심각하다’ 26.3%로 응답했고, 여자의 경우 ‘조금 심각하다’가 50.8%로 가장 높고, ‘매우 심각하다’ 27.4%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경우 ‘조금 심각하다’ 가 53.6%로 가장 높고, ‘매우 심각하다’ 28.6%로 응답했고, 여자의 경우 ‘조금 심각하다’가 50.0%로 가장 높고, ‘매우 심각하다’가 각각 31.0%로 나타났다.

“농업·농업인에 대한 사회적 무시”에 대하여는 ‘조금 심각하다’가 40.6%, ‘별로 심각하지 않다’가 30.6%, ‘매우 심각하다’가 24.1%로 나타났다.

<표 III-29> 농업·농민에 대한 사회적 무시

단위 : 명(%)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전혀 심각하지않다	-	3 (6.7)	2 (3.2)	6 (8.5)	2 (1.8)	7 (5.7)	3 (3.6)	5 (8.8)
별로 심각하지않다	12 (31.6)	13 (28.9)	17 (27.4)	15 (21.1)	34 (29.8)	37 (30.1)	27 (32.1)	27 (47.4)
조금 심각하다	17 (44.7)	22 (48.9)	28 (45.2)	33 (46.5)	41 (36.0)	46 (37.4)	38 (45.2)	16 (28.1)
매우 심각하다	9 (23.7)	7 (15.6)	15 (24.2)	17 (23.9)	37 (32.5)	33 (26.8)	16 (19.0)	9 (15.8)
전체	38 (100.0)	45 (100.0)	62 (100.0)	71 (100.0)	114 (100.0)	123 (100.0)	84 (100.0)	57 (100.0)

이를 성별·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 남자의 경우 ‘조금 심각하다’가 44.7%로 가장 높고, ‘별로 심각하지 않다’ 32.4%로 나타났고, 여자

의 경우 ‘조금 심각하다’ 48.9%, ‘별로 심각하지 않다’ 28.9% 나타났다.

40대의 경우, 남자는 ‘조금 심각하다’가 45.2%로 가장 높고, ‘별로 심각하지 않다’ 27.7%로 응답했고, 여자의 경우 ‘조금 심각하다’가 46.5%로 가장 높고, ‘매우 심각하다’ 23.9%로 나타났다.

50대의 경우, 남자는 ‘조금 심각하다’가 36.0%로 가장 높고, ‘매우 심각하다’ 32.5%로 응답했고, 여자의 경우 ‘조금 심각하다’ 37.4%로 가장 높고, ‘별로 심각하지 않다’가 30.1%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경우 ‘조금 심각하다’가 45.2%로 가장 높고, ‘별로 심각하지 않다’가 32.1%로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 ‘별로 심각하지 않다’가 47.4%로 가장 높고, ‘조금 심각하다’가 28.1%로 나타났다.

“여성농업인의 고령화 문제”에 관하여는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심각하다’가 43.0%, ‘조금 심각하다’가 40.2%로 심각성에 대해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 남자의 경우 ‘조금 심각하다’가 48.6%로 가장 높고, ‘매우 심각하다’ 32.4%로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 ‘조금 심각하다’ 48.9%, ‘매우 심각하다’ 33.3%로 나타났다.

40대의 경우, 남자는 ‘조금 심각하다’가 48.4%로 가장 높고, ‘매우 심각하다’ 38.7%로 응답했고, 여자의 경우 ‘매우 심각하다’가 43.7%로 가장 높고, ‘조금 심각하다’ 42.3%로 나타났다.

50대의 경우, 남자는 ‘매우 심각하다’가 44.7%로 가장 높고, ‘조금 심각하다’ 40.4%로 응답했고, 여자의 경우 ‘조금 심각하다’ 35.5%로 가장 높고, ‘별로 심각하지 않다’가 14.5%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경우 ‘조금 심각하다’와 ‘매우 심각하다’가 각각 39.3%로 가장 높고, 여자의 경우 ‘매우 심각하다’가 50.0%로 가장 높고, ‘조금 심각하다’가 27.6%로 나타났다.

<표 III-30> 여성농업인의 고령화 문제

단위 : 명(%)

	30대이하		40대		50대		60대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전혀 심각하지않다	-	1 (2.2)	-	-	-	1 (.8)	1 (1.2)	2 (3.4)
별로 심각하지않다	7 (18.9)	7 (15.6)	8 (12.9)	10 (14.1)	17 (14.9)	18 (14.5)	17 (20.2)	11 (19.0)
조금 심각하다	18 (48.6)	22 (48.9)	30 (48.4)	30 (42.3)	46 (40.4)	44 (35.5)	33 (39.3)	16 (27.6)
매우 심각하다	12 (32.4)	15 (33.3)	24 (38.7)	31 (43.7)	51 (44.7)	61 (9.2)	33 (39.3)	29 (50.0)
전체	37 (100.0)	45 (100.0)	62 (100.0)	71 (100.0)	114 (100.0)	124 (100.0)	84 (100.0)	58 (100.0)

## 마. 농업정책에 대한 인식

### (1) 농가도우미 제도

“농가도우미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잘 모른다’가 81.4%로 가장 높고,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가 14.5%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잘 모른다’ 75.8%로 가장 높고, ‘들어 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가 19.2%로 나타났는데, 여자의 경우 ‘잘 모른다’가 87.2%로 가장 높고, ‘들어 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가 9.7%를 나타내 성별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Ⅲ-31> 농가도우미 제도에 대한 인식여부

단위 : 명(%)

		잘 모른다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들어본 적이 있으며 내용에 어느 정도 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chi^2$
성별	남	225(75.8)	57(19.2)	12(4.0)	3(1.0)	13.440**
	여	260(87.2)	29(9.7)	8(2.7)	1(0.3)	
	합계	485(81.5)	86(14.5)	20(3.4)	4(0.7)	
연령	30대 이하	65(78.3)	13(15.7)	4(4.8)	1(1.2)	23.065**
	40대	92(69.7)	32(24.2)	7(5.3)	1(0.8)	
	50대	209(87.8)	24(10.1)	3(1.3)	2(0.8)	
	60대 이상	119(83.8)	17(12.0)	6(4.2)	-	
	합계	485(81.5)	86(14.5)	20(3.4)	4(0.7)	

\*\*p<.001

연령별로도 30대 이하의 경우 ‘잘 모른다’ 78.3%로 가장 높고,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15.7%를 나타냈고, 40대의 경우 ‘잘 모른다’ 67.7%로 가장 높고,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24.2%를 나타냈으며, 50대는 ‘잘 모른다’ 87.8%로 가장 높고,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10.1%를 나타냈으며, 60대 이상의 경우 ‘잘 모른다’ 83.8%로 가장 높고,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12.0%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농가도우미 제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 (2) 후계농업인에 대한 인식

“후계농업인인가?” 라는 질문에는 ‘아니다’가 92.1%, ‘그렇다’가 7.9%로 나타났다. 농업후계자의 수는 적었으며, 여성의 경우 조상대상자의 극히 일부만이 농업후계자인 것으로 나타나 성별간, 연령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만일 자격이 갖추어진다면 후계농업인이 되기를 바라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아니다’가 53.8%, ‘그렇다’가 46.2%로 나타났다.

<표 III-32> 후계농업인 여부

단위 : 명(%)

		예	아니오	$\chi^2$
성별	남	41(13.8)	257(86.2)	28.295**
	여	6(2.0)	292(98.0)	
	합계	47(7.9)	549(92.1)	
연령	30대 이하	16(19.3)	67(80.7)	44.531**
	40대	22(16.5)	111(83.5)	
	50대	5(2.1)	233(97.9)	
	60대이상	4(2.8)	138(97.2)	
	합계	47(7.9)	549(92.1)	

\*\*p<.001

#### 4.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활동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내용은 부녀회와 부락회의 참여형태를 중심으로 실태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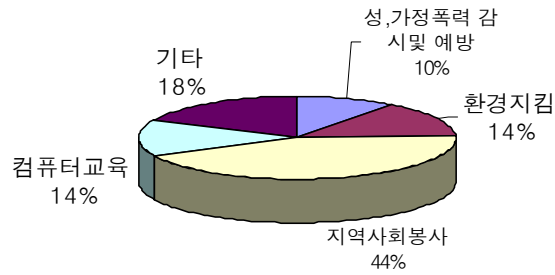
##### 가. 부녀회

부녀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여성의 51.7%였고,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48.3%였다.

부녀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는 ‘지역사회봉사’가 43.2%로 가장 높고, ‘환경지킴’ 14.3%, ‘컴퓨터교육’ 14.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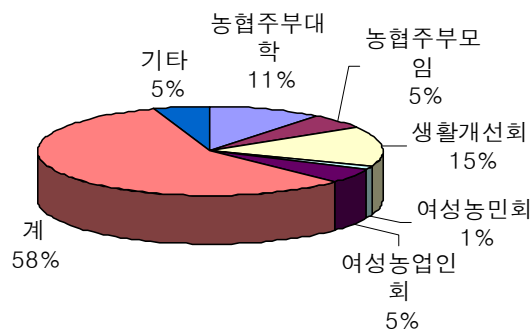
<그림 III-21> 부녀회의 희망 활동분야





부녀회 이외의 공동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는 ‘계’가 57.3%, ‘생활개선회’ 14.7%, ‘농협주부대학’ 10.7%로 나타났다.

<그림 III-22> 부녀회 이외의 공동모임 현황



농촌지역에서 부녀회와 계는 여성들의 중요한 공동체 활동으로 보인다. 아직도 농촌지역에서는 경조사를 부락단위의 부녀회와 계를 중심으로 치르고 있으며, 이는 상호부조의 문화가 중요한 농촌문화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농촌지역의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인식 개선의 시작단위가 부락단위의 소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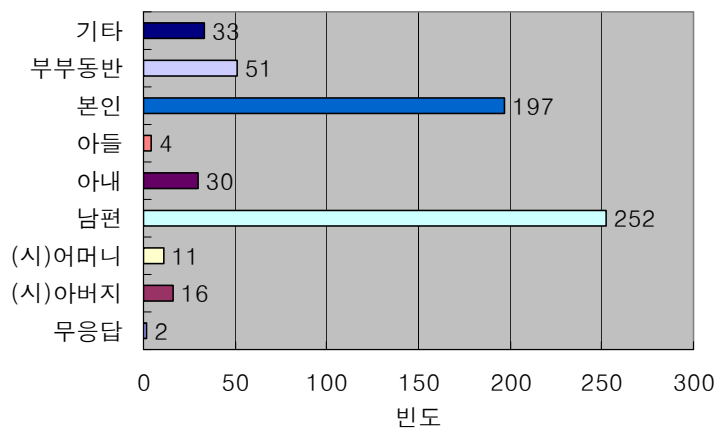
## 나. 부락회의 참여형태

“마을의 부락회의에 주로 누가 참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남편’ 42.3%, ‘본인’ 33.1%, ‘부부동반’ 8.6%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이 질문에서 여성을 기준으로 보면, 여성본인이 참석한다고 응답한 15.8%와 부부동반으로 참석한다고 응답한 8.1%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률 76%정도가 남성의 참여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으로 미루어볼 때, 마을의 중요사안을 결정하는 부락회의에서 여성의 참석률은 매우 낮으며, 여성 의견의 반영율도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남자만 참석한다고 응답한 경우 남성이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도 나타나듯이 ‘집을 대표하므로’가 50.9%, ‘의례 남자가 가니까’가 33.1%, ‘농사일을 많이 알고 있으므로’가 6.0%로 나타나 농촌지역사회에서 살림을 대표하는 사람은 남성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II-23> 부락회의 참여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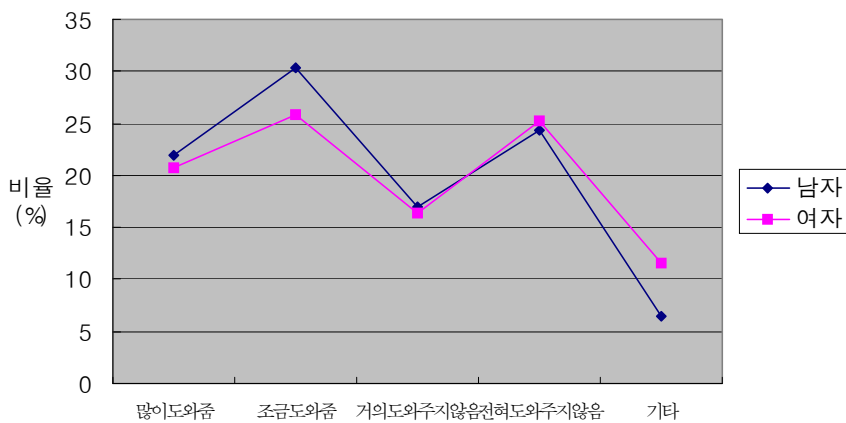
## 5. 농촌지역의 전통적 남녀차별문화

농촌지역의 전통적 남녀차별문화는 가사분담, 자녀양육 형태, 부부간의 불평등한 지위관계, 가정에서의 남녀역할 인식에 대한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가. 가사분담

“귀하의 가정에서 남성이 가사일을 어느 정도 도와주십니까”라는 질문에 ‘조금 도와준다’가 27.9%로 가장 높고,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가 24.5%, ‘많이 도와준다’가 21.4%, ‘거의 도와주지 않는다’가 16.4%로 나타났다.

<그림 III-24> 남성의 가사분담정도



### 나. 가사노동 시간

아내와 남편의 농번기와 농한기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질문에는 아내의 경우 농번기에는 평균 3시간 13분, 농한기에는 3시간 49분 일한다고 응답했으며, 남편의 경우 농번기에는 44분, 농한기에는 43분 일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을

농번기에 3시간 14분, 농한기에 3시간 48분 일하는 것으로 응답했고, 여성의 경우 농번기에 3시간 11분, 농한기에 3시간 48분 일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여성의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해 농번기에는 37분, 농한기에는 37분으로 응답했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농한기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하여는 40대가 가장 많은 시간 가사노동을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농한기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해서는 30대 이하가 가장 적고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가장 많은 시간 가사노동을 분담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표 III-33>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인식

단위 : 시간

		농번기 아내	농한기 아내	농번기 남편	농번기 아내	농번기 다른 가족	농한기 다른 가족
30대 이하	M	3.13	3.59	.55	.31	.43	.49
	N	83	83	83	83	83	83
	SD	2.35	2.72	.91	.73	1.13	1.47
40대	M	3.60	4.38	.53	.78	.31	.22
	N	133	133	133	133	133	133
	SD	2.25	2.11	.79	1.49	.90	.74
50대	M	3.02	3.73	.80	.76	-	-
	N	238	238	238	238	238	238
	SD	1.63	1.90	1.23	1.02	.41	.41
60대이상	M	3.22	3.54	.89	.81	.25	.12
	N	142	142	142	142	142	142
	SD	2.90	2.49	2.67	1.47	1.14	.67
합 계	M	3.21	3.81	.73	.71	.22	.17
	N	596	596	596	596	596	596
	SD	2.23	2.24	1.60	1.24	.86	.78
F값		1.972	4.023*	1.668	3.466*	4.246*	6.544**

\*P<.05, \*\*P<.001 (M=평균, N= 사례수, SD=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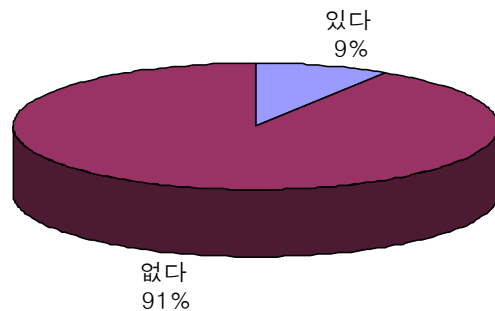
이러한 응답경향은 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연령별로는 농한기 아내의 가사노동시간과 농한기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시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여성의 경우 가사노동시간이 적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경북여성농민회연합(2000)의 연구보고서에서 나타난 농한기 여성가사노동시간 5시간 35분, 농번기의 가사노동시간 4시간 52분과 비교해 볼 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농촌여성이 자신의 가사노동시간을 저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다. 자녀양육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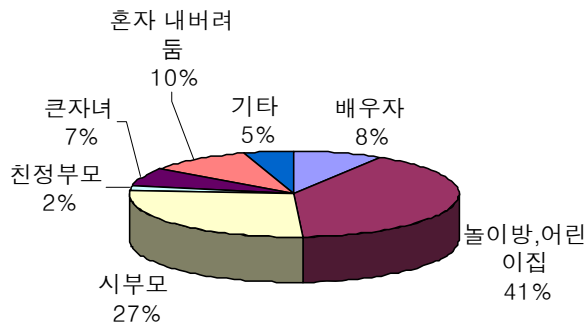
취학전 초등학교 어린이가 있는 경우에 대한 질문에 ‘있다’가 9.0%, ‘없다’가 91.0%를 나타냈다.

<그림 III-25> 취학전 어린이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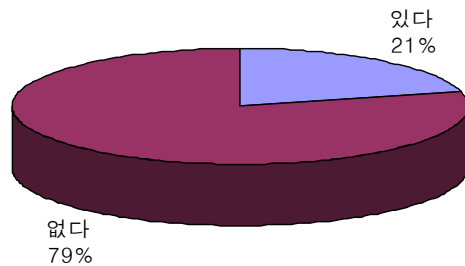
취학전 어린이가 있는 경우 농사일을 나간 동안 아이들은 누가 돌보느냐는 질문에는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0.7%로 가장 높고, ‘시부모’가 27.1%, ‘혼자 내버려둔다’도 10.2%로 나타났다.

<그림 III-26> 농사일을 할 때 자녀를 돌보는 형태



취학전 아이가 없는 경우 아이를 키울 때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없다’가 78.2%, ‘있다’가 20.5%로 나타났다.

<그림 III-27> 놀이방 이용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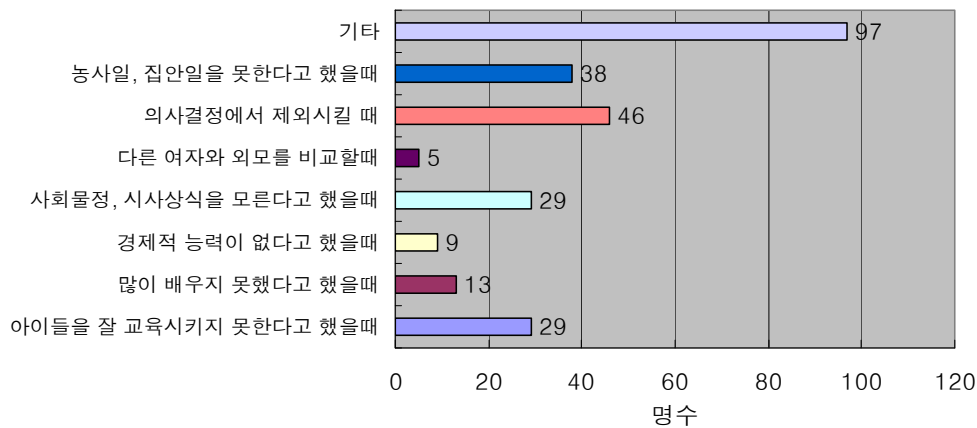


이러한 응답경향은 젊은 세대들은 농사일을 나갈 때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지만, 이전의 세대에서는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을 이용한 양육형태는 드문 것으로 보인다.

## 라. 부부간의 불평등한 지위 관계

유배우 여성의 경우 “남편에게 가장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 때는 언제인가” 하는 질문에는 ‘의사결정에서 제외시킬 때’가 17.3%, ‘농사일, 집안 일을 잘 못한다는 말을 들을 때’가 14.3%,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지 못한다는 말을 들을 때’와 ‘사회물정, 시사상식을 모른다는 말을 들을 때’가 각각 10.9%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경향은 농촌여성들이 집안 일이나 농사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자신이 제외될 경우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담당하는 일을 잘 못한다는 말을 들을 때 자신의 인격이 존중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타에 응답한 경우도 36.5%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기타에 응답한 경우의 대부분은 ‘무시당한 적이 없다’라고 직접 표기했고, 그 외에 ‘욕을 할 때’, ‘때릴 때’ 등의 응답이 나왔다.

<그림 III-28> 부부간의 인격존중관계



여성만 응답한 경우 “여성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있는가”하는 질문에 ‘없다’가 78.2%, ‘있다’가 21.8%였다.

### (1) 가정에서의 남녀 역할 인식

가정에서의 남녀 역할에 대한 인식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녀역할

에 관한 인식 및 태도를 묻는 질문을 11개의 항목으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았다.

항목의 1, 2, 4, 6, 7, 10번 문항은 ‘매우 그렇다’에 4점, ‘대체로 그렇다’에 3점, ‘대체로 아니다’에 2점, ‘전혀 아니다’에 1점을 부여했고, 3, 5, 8, 9, 11번 문항의 경우는 ‘매우 그렇다’에 1점, ‘대체로 그렇다’에 2점, ‘대체로 아니다’에 3점, ‘전혀 아니다’에 4점을 주어 평균을 구했다. 각 항목의 평균점수가 1점에 가까울수록 진보적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아래의 <표Ⅲ-34>의 1, 2, 3, 4, 5, 6, 7, 8, 9, 10, 11은 각 항목을 나타낸다.

<표Ⅲ-34> 성별 가정에서 남녀 역할 인식

성별		1	2	3	4	5	6	7	8	9	10	11
남자	M	1.85	1.72	2.56	2.01	2.89	2.08	1.90	3.14	2.71	2.44	2.71
	N	296	297	295	297	298	298	297	298	295	298	297
	SD	.69	.78	.85	.66	.64	.71	.65	.56	.73	.73	.72
여자	M	1.76	1.78	2.64	2.16	3.02	2.09	2.13	3.15	2.92	2.30	2.92
	N	297	296	297	297	294	297	298	297	296	297	295
	SD	.72	.83	.87	.80	.60	.77	.77	.63	.77	.82	.79
합계	M	1.80	1.75	2.60	2.08	2.95	2.09	2.01	3.15	2.81	2.37	2.81
	N	593	593	592	594	592	595	595	595	591	595	592
	SD	.70	.81	.86	.74	.62	.74	.72	.59	.76	.78	.76
F값		2.639	.724	1.196	6.316*	6.242*	.051	15.869**	.047	11.644*	4.809	11.648*

\*P<.05 \*\*P<.001 4점 만점. 1점에 가까울수록 진보적 성향을 나타냄.  
(M=평균, N= 사례수, SD= 표준편차)

응답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번 문항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해서 가장 진보적 경향을 나타냈으며, 8번 문항 ‘학교에서 여학생에게 전자제품 수리 등 기계·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찬성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가장 보수적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 1.72, ‘결혼한 여자는 친정보다 시댁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 1.85, ‘가족의 생계는 남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에 비교적 진보적 성향을 나타내었고, ‘학교에서 여학생에게 전자제품 수리 등 기계·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찬성한다’는 견해는 3.14, ‘결혼한 남자는 처가 쪽의 대소사를 자기 집과 똑같이 챙겨야 한다’는 견해 2.89, ‘재산을 딸 아들 구별없이 똑같이 물려주겠다’는 견해는 2.56으로 비교적 보수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여자의 경우는 ‘결혼한 여자는 친정보다 시댁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1.76)는 견해와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1.78), ‘여자의 본분은 자녀를 키우고 가사일을 돌보는 것이다’(2.09)라는 견해에서 비교적 진보적 성향을 나타내었고, ‘학교에서 여학생에게 전자제품 수리 등 기계·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찬성한다’(3.15)는 견해, ‘결혼한 남자는 처가 쪽의 대소사를 자기 집과 똑같이 챙겨야 한다’(3.02)는 견해, ‘부부는 결혼 중 얻은 재산을 공동명의로 해야 한다’와 ‘여자가 직장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2.92)에서 비교적 보수적 경향을 나타내었다.

성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가족의 생계는 남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남자 1.90, 여자 2.13)와 ‘부부는 결혼 중 얻은 재산을 공동명의로 해야 한다’는 견해(남자 2.71, 여자 2.92)로 남자가 보다 진보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또 ‘가사일에는 남자의 할 일과 여자의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견해(남자 2.01, 여자 2.16)와 ‘결혼한 남자는 처가 쪽의 대소사를 자기 집과 똑같이 챙겨야 한다’는 견해(남자 2.89, 여자 3.02), ‘여자가 직장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는 견해(남자 2.71, 여자 2.92)로 역시 남자가 비교적 진보적 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성별간에는 “결혼한 여자는 친정보다 시댁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는 견해”와 “결혼한 여자가 친정 부모를 모시는 것은 시집식구에게 미안한 일이다” 라는 견해의 항목을 제외한 전 항목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진보적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Ⅲ-35> 연령별 가정에서 남녀 역할 인식

		1	2	3	4	5	6	7	8	9	10	11	F
30대 이하	M	2.02	2.15	2.66	2.34	2.96	2.35	2.18	3.00	3.04	2.58	2.90	12.028**
	N	82	82	82	83	81	83	83	82	83	83	83	
	SD	.68	.82	.85	.75	.68	.76	.72	.67	.76	.75	.69	
40대	M	1.99	2.06	2.72	2.20	2.97	2.25	2.11	3.08	2.89	2.52	2.72	25.274**
	N	132	132	133	133	132	133	133	133	133	132	133	
	SD	.77	.87	.79	.67	.57	.67	.68	.57	.69	.77	.77	
50대	M	1.76	1.65	2.58	2.01	2.92	2.04	2.01	3.20	2.79	2.32	2.91	2.117
	N	238	237	237	238	237	237	238	238	237	238	234	
	SD	.70	.77	.85	.73	.61	.72	.73	.58	.77	.76	.74	
60대 이상	M	1.57	1.42	2.47	1.94	2.98	1.87	1.83	3.21	2.64	2.18	2.68	7.262**
	N	141	142	140	140	142	142	141	142	138	142	142	
	SD	.58	.60	.92	.75	.67	.76	.71	.58	.76	.79	.80	
합계	M	1.80	1.75	2.60	2.08	2.95	2.09	2.01	3.15	2.81	2.37	2.81	.288
	N	593	593	592	594	592	595	595	595	591	595	592	
	SD	.70	.81	.86	.74	.62	.74	.72	.59	.76	.78	.76	

\*P<.05 \*\*P<.001, 4점 만점. 1점에 가까울수록 진보적 성향을 나타냄.

(M=평균, N= 사례수, SD= 표준편차)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1. “결혼한 여자는 친정보다 시댁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는 30대 이하는 2.02, 40대는 1.99, 50대 1.76, 60대 이상 1.57로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진보적 성향을 보인다.

2. “대를 잇기 위해서 아들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하여는 30대 이하 2.15, 40대 2.06, 50대 1.65, 60대이상 1.42로 역시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진보적 성향을 보인다.

3. “재산을 딸 아들 구별 없이 똑같이 물려주겠다”는 견해에는 30대 이하 2.66, 40대 2.72, 50대 2.58, 60대이상 2.47로 40대가 가장 보수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4. “가사일에는 남자의 할 일과 여자의 할 일이 따로 있다”라는 견해에는 30대 이하 2.34, 40대 2.20, 50대 2.01, 60대이상 1.94로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진보적 경향을 보인다.

5. “결혼한 남자는 처가 쪽의 대소사를 자기 집과 똑같이 챙겨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는 30대 이하 2.96, 40대 2.97, 50대 2.92, 60대이상 2.98로 50대가 가장 진보적 경향을 보였다.

6. “여자의 본분은 자녀를 키우고 가사일을 돌보는 것이다”라는 견해에 대하여 30대 이하 2.35, 40대 2.25, 50대 2.04, 60대이상 1.87로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진보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7.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30대 이하 2.18, 40대 2.11, 50대 2.01, 60대이상 1.83으로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진보적 경향을 나타냈다.

8. “학교에서 여학생들에게 전자제품 수리 등 기계, 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찬성한다”라는 견해에는 30대 이하 3.00, 40대 3.08, 50대 3.20, 60대 이상 3.21로 전체적으로 모든 문항 중 가장 보수적 응답경향을 나타냈으나,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보다 보수적 경향을 나타내었다.

9. “부부는 결혼 중 얻은 재산을 공동명의로 해야한다”는 견해에는 30대 이하 3.04, 40대 2.89, 50대 2.79, 60대이상 2.64로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보다 진보적 경향을 나타내었다.

10. “결혼한 여자가 친정 부모를 모시는 것은 시집식구에게 미안한 일이다”라는 견해에 대하여는 30대 이하 2.58, 40대 2.52, 50대 2.32, 60대 이상 2.18로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보다 진보적 경향을 나타내었다.

11. “여자가 직장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는 견해에는 30대 이하 2.90, 40대 2.72, 50대 2.91, 60대 이상 2.68로 60대 이상이 가장 진보적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볼 때 농촌지역의 성역할 인식에 있어서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젊은 연령층보다는 연령층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진보적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젊은 연령층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농촌지역 여성들이 성차별적 현실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점은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겠지만, 농촌지역의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 볼 때, 여성의 경우 가사노동과

농업노동에 대한 부담이 과중하고 사회활동을 하는 빈도가 낮아 전통적  
성역할관이 보다 뿌리깊음을 알 수 있다. 남성들의 경우, 부락회의나 교  
육에 참여할 기회가 많고, 신문이나 방송 등에 접근도가 높은 반면, 여  
성들은 남성보다 교육접근 기회가 매우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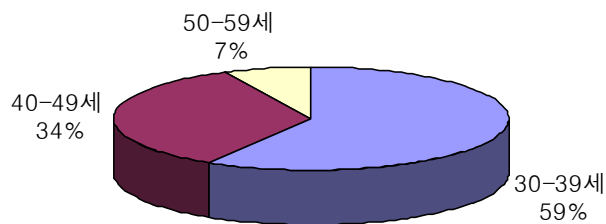
이러한 원인에 대한 설명은 여성농민단체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보면(경북, 2000, 전북, 2000) 본 연구의 결과보다 농업노  
동에 대한 인식이나 농업의 당면문제, 농업노동 종사시간 등에서 진보적  
인 성향의 응답결과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농촌지역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양성평등한 성역할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다 하겠다.

## 6. 농촌지역 여성담당 공무원 조사 결과

### 가. 조사대상자의 연령분포

응답자의 연령분포는 30~39세가 58.5%, 40~49세가 34.1%, 50~59세가 7.3%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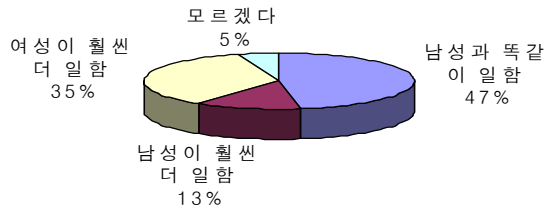
<그림 III-29> 응답자의 연령별 특성



### 나. 농촌지역 여성의 농업참여에 대한 인식

“근무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여성들은 남성과 비교해서 농사일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여성이 훨씬 더 일한다’가 35%, ‘남성과 똑같이 한다’가 47.5%, ‘남성이 훨씬 더 일한다’가 12.5%, ‘모르겠다’가 5%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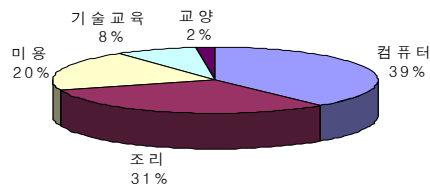
<그림 III-30> 농촌지역 여성의 농업 참여에 대한 인식



## 다. 농촌지역 여성에게 필요한 교육 및 기술훈련

농촌지역 여성담당 공무원들은 농촌지역 여성에게 필요한 교육 및 기술훈련에 대한 질문에 대해, 컴퓨터(39%), 조리(31%), 미용(20%) 등의 자격증에 취득에 관한 응답이 전체의 80%였다. 또한 양재, 홈패션 등의 부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교육이 8%, 그 외에 인성교육 등의 교양 강좌는 2% 등으로, 대다수가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얻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하고, 교육을 위한 강사의 확보의 어려움과 농촌지역이라 취업교육을 받아도 취직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의견이 있었다(부록 2 참조).

<그림 III-31> 농촌지역 여성에게 필요한 교육 및 기술훈련



## 라. 지역의 특수한 여성 교육 프로그램

지역의 특수한 여성교육 프로그램 여부에 대해서는 총 41명의 응답자 중 21명이 응답을 하였다.

그 종류로는 요리 등 자격증에 관한 것, 취미교실, 취업 교육, 교양강좌, 주부 대학 등이었으며, 외국인 결혼가정을 위한 우리문화 알기 교육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었다. 다음의 표는 응답 내용을 직접 기술한 것이다.

<표 III-36> 지역의 특수한 여성 교육 프로그램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직업훈련(한식 조리, 미용, 컴퓨터, 제과제빵)</li> <li>○ 가정 요리반, 폐백 요리반</li> <li>○ 직업훈련 중 요리사반</li> <li>○ 출장요리 : 백일, 돌 등 가정에서 행사시 필요한 요리</li> <li>○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촌여성 사회교육」 -농한기 이용 3개월 과정의 취미교육</li> <li>○ 요리강습과 요리사(조리사)자격증 시험을 대비한 조리사 과정반 등 다수</li> <li>○ 모자가정 취업기술 교육</li> <li>○ 농촌여성을 위한 식생활 개선 및 전통음식 만들기(농업 기술센터주관)</li> <li>○ 여성회관(개관2000년 8월 29일)에서 2000년도 하반기 교육으로 수지침과 다도 예절을 교육</li> <li>○ 「외국인 결혼가정 우리 문화 알기 교육」 -한국문화, 예절, 음식, 한국어 교육</li> <li>○ 「여성취미생활운영」을 매년 상·하반기 3개월 과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용은 꽃꽂이, 종이 접기, 스포츠댄스, 서예, 일어, 에어로빅, 풍물놀이 등이며 발건강법이나 종이 접기는 부업 추진</li> <li>○ 스포츠 댄스</li> <li>○ 수지침 교육으로 오지마을 순회 자원봉사(15명)</li> <li>○ 여성자치 대학</li> <li>○ 여성복지관련법 강좌 및 사례</li> <li>○ 컴퓨터 기본 조작 및 인터넷 교육(주부대상), 컴퓨터 교육, 농촌여성 인터넷 교육</li> <li>○ 주부대학</li> <li>○ 여성 자원 활동자 교육</li> <li>○ 기술 및 교양교육(2000년 부터 여성회관 운영)</li> </ul>

## 마. 농촌지역 여성 정보화 정책

농촌 여성의 정보화를 위한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95%의 응답자가 컴퓨터 교육을 실시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군부의 컴퓨터 교실 등을 자체 운영하는 형태와, 순회지도 하는 형태, 사설 학원등 위탁지도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였다(표Ⅲ-37 참조).

## 바. 지역별 중점 여성복지사업

지역별 중점 여성복지사업의 종류로 ‘모자가정 보호지원 사업’, ‘여성 정보화 교육’, ‘취미교육’, ‘교양교육’, ‘직업·기술 교육’, ‘장애인 여성 지원’, ‘재활용 사업’, ‘봉사활동’, ‘국제 결혼가정 및 여성 상담사업’, ‘문화교실 운영’, ‘여성단체 지원사업’, ‘부업 지원사업’ 등이 있었다(표Ⅲ-38 참조).

## 사.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대책

가정 폭력을 당한 여성 피해자를 위한 대책에 관한 질문에 95%가 응답이 하였는데, ‘상담 및 보호시설 제공(62.7%)’, ‘법률적·의학적 정보제공(11.7%)’, ‘의식교육의 측면(9.8%)’, ‘자립의 기반마련(4%)’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상담 및 보호 시설 제공에 관한 의견으로는 쉼터 등 정신적·신체적으로 편안히 쉴 수 있는 격리된 공간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부부가 함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의식 교육의 측면에서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여자가 맞을 짓을 했다’는 식의 사회 일반의 편견을 타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또 피해자 자신의 신고정신 함양과 자기 보호, 대처 방법 주지 등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부록 2 참조).



<표 III-37> 농촌지역 여성 정보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정책

연번	내 용
1	여성정보화 교실 운영 2개월 과정(60명)
2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교육을 사설학원에 위탁 실시
3	이동부녀교실, 주부 정보화 교육
4	직업훈련교육으로 컴퓨터, 미용, 도배 등 기술교육 실시
5	노인, 여성복지회관 운영, 여성자치 대학 운영
6	군청, 자치행정과 전산정보계에서 컴퓨터 무료 교육
7	컴퓨터 교육
8	여성 인터넷 교실, 여성 컴퓨터 자격증 반 운영 등
9	컴퓨터 교육
10	정보(컴퓨터) 교육, 기술, 취미 교육
11	농촌 주부 컴퓨터 교실 운영(전산 교육장)
12	컴퓨터 교육-인터넷
13	컴퓨터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각 읍면에서 컴퓨터 지도, 순회지도
14	컴퓨터 교육
16	컴퓨터 교육 실시(월~금: 1시간)
17	「여성 컴퓨터 교육」연중 수시 접수, 교육. 문화의 집 내 PC방 개설운영
18	주부 인터넷방, 운전교육, 각종 여성들을 위한 스포츠 등
19	컴퓨터 교육(인터넷, 한글97)
20	농한기 이용 농어촌 여성 컴퓨터 무료 교육실시(주5일 2회, 3회등)
21	여성 정보화 능력 배양 교육(컴퓨터)
22	컴퓨터, 인터넷 교육
23	주부 컴퓨터, 인터넷 교육
24	주부 컴퓨터 교육(40명 대상, 연2회 개최), 컴퓨터 학원 위탁 교육(34명의 주부, 년 1회), 농촌지도소, 새마을 부녀회에서 회원 중심으로 년 2회 개최하고 있음
25	여성 인터넷 교육(50명, 1개월 씩)
26	군민 정보화 무료 교육
27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자 장비를 확보 중에 있음
28	농촌 여성을 위한 인터넷 교육
29	컴퓨터 교육
30	정보화 교육(연중)→한글97, 인터넷 등
31	전산교육, 무료 인터넷 교육
33	여성 직업 훈련
34	주부 인터넷 교육
35	여성 정보화 능력배양 교육, 여성 취미 교실(인터넷 과정)
36	여성회관에서의 취미, 기술 교육 등으로 사회참여 기회 부여
37	주부 컴퓨터 교실 운영
38	‘인터넷과 주부’ 프로그램 실시. 컴퓨터 학원 위탁교육, 군 자체 교육 실시
39	정보화 교육(인터넷)
40	전 군민 전산화
41	컴퓨터 교육(주, 야간 실시)- 년 3회(4개월 과정)

\* 연번(1~41)은 편의상 군부 조사 대상지역을 표시한 것임.

<표 III-38> 지역별 중점 여성복지사업

연번	내 용
1	요보호 여성(모자가정) 보호지원, 여성 사회교육(문화교실, 정보화, 의식 교육)
2	여성 교양 사업: 의식향상, 취미, 기술: 여가를 활용 적절한 교육과목
3	저소득계층 여성 보호, 가정 성폭력 예방, 여성단체 활동지원
4	여성(주부)들을 위한 취미 교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5	여성단체 운영, 자원활동(봉사), 중국 교포 보호, 모부자 보호
6	여성발전기금, 주부 합창단 구성, 각종 행사시 자원봉사
7	직업훈련
8	여성 교양 지도 사업(취미 및 기술교육)
9	여성 정보화 교육, 여가 선용 프로그램
10	여성 능력 개발교육 실시
11	군청: 여성 취미교실 운영(생활요리, 혼패션, 각종 공예 등), 농업기술센터: 조리사, 제과·제빵 자격증 반 운영
12	장애인 여성 취미·기술 교육, 장애인을 둔 부모 기술 교육
13	자원봉사 체계 일원화 및 제도 구축
14	독거 노인과 결연(생신상 차림, 방문 봉사활동), 재활용 사업
16	자원봉사 업무, 여성단체 업무, 여성 공무원 우대
17	여성자원 봉사활동, 잉여식품 나눔 은행 운영, 여성 취미 생활 운영, 모·부자 가정 복지 증진, 여성단체 운영, 중고품 교환 판매장 운영, 경로식당 무료 급식 봉사활동
18	자원봉사 활동 지도 육성, 여성단체 지도 육성, 생활개선 사업 및 여성농업인회 육성
19	여성 기술, 취미 교육
20	모자가정 지원, 여성자원 봉사실 운영, 농도 여성 하나되기, 국제결혼 가정(중국, 동남아등) 상담 지원
21	여성직업 훈련
22	여성 자원 활동 센터
23	어려운 여성 지원, 관내 여성 각종 교육 및 훈련
24	모자가정 상담 및 지원, 직업훈련 기술 교육 실시, 여성단체 육성 및 지원, 「푸드뱅크」 센터 운영, 자원 봉사 활동 전개
25	「담양군 여성 문화 교실」 운영: 200명 대상 7개 과목 운영 교양강좌: 연 7회 운영, 관공서 내 여성 단체 회의실 및 다용도(교육장) 제공
26	여성지도자 양성 교육
27	건강생활의 확산 보급을 위한 12개 여성 단체를 읍면과 자매결연→일손돕기, 불우이웃 돕기, 농산물 판매 등 사업실시. 자원봉사 활동을 중심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생활을 유지·발전.
28	여성회관 운영, 실내 수영장 활성화로 군민 복지 및 건강 증진 도모.
29	주부의 날 행사, 부모 교육, 여성지도자 수련대회, 자원봉사 활동, 여성 문화교실 운영
30	여성상담 문화의 대중화, 모자가정 기술 교육, 중국교포 여성 정착화
31	여성 사회 교육
32	-
33	저소득 모자가정 자립을 위한 자체 사업비 확보로 지원(동절기 난방비, 학용품비 등)
34	모자가정 주거 환경 개선사업, 여성단체 지원
35	여성교육, 여성단체 지원
36	마을 단위 부업 지원사업, 여성직업훈련, 여성 단체 특색사업, 여성 취미교실
37	저소득 여성 지원 및 여성회관 운영, 여성단체 활동
38	여성 의식 개혁을 위한 교양 교육
39	여성단체 활성화, 여성상담사업, 여성자립기반 조성사업, 모자가정 요보호 여성 기술 습득 기회 확대
40	여성단체 지원, 사회교육
41	요보호여성(모자가정, 가출여성, 저소득층 여성 등)보호비 지원 및 상담, 여성자질 향상을 위한 교양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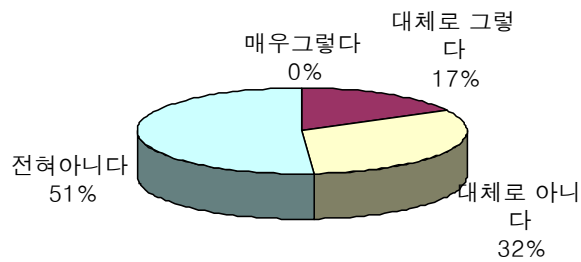
\* 연번(1~41)은 편의상 군부 대상지역을 표시한 것임.

### 아. 여성담당 공무원의 남녀 평등의식

남녀평등의식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여성담당 공무원들은 남녀평등의식에서 진보적 성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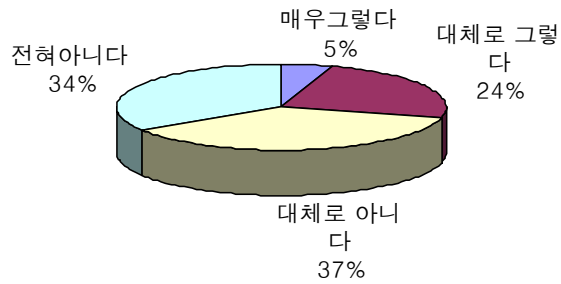
응답자들은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에 대해 ‘전혀 아니다(51.2%)’, ‘대체로 아니다(31.7%)’, ‘대체로 그렇다(17.7%)’, ‘매우 그렇다(0%)’로, 83%가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III-32>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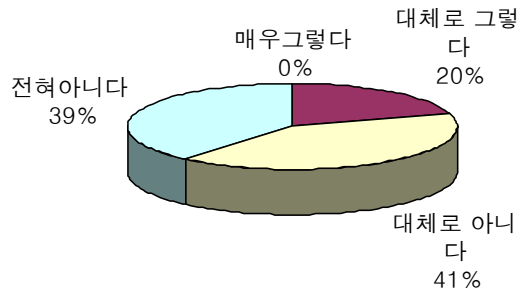
“가사일에는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에 대해 ‘전혀 아니다(34.1%)’, ‘대체로 아니다(34.1%)’, ‘대체로 그렇다(24.4%)’, ‘매우 그렇다(4.9%)’로 응답해, 응답자의 70%의 응답자가 “가사일에는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라는 견해에 대해 ‘아니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III-33> 가사일에는 남자와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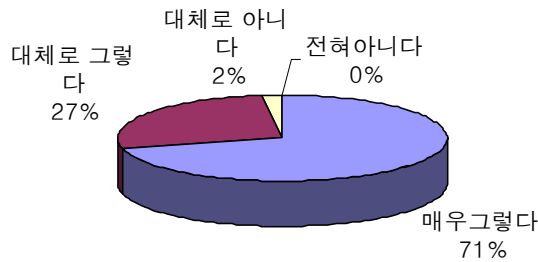
응답자들은 “여자의 본분은 자녀를 키우고 가사일을 돌보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 ‘전혀 아니다(39%)’, ‘대체로 아니다(41.5%)’, ‘대체로 그렇다(19.5%)’, ‘매우 그렇다(0%)’로, 응답자의 81%가 여자의 본분은 자녀를 키우고 가사일을 돌보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다.

<그림 III-34> 여자의 본분은 자녀를 키우고 가사일을 돌보는 것이다



응답자들은 “학교에서 여학생들에게 전자제품 수리 등 기계·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찬성한다”에 대해 ‘매우 그렇다’는 70.7%였고, ‘대체로 그렇다’는 26.8%, ‘대체로 아니다’는 2.4%에 불과하였으며, ‘전혀 아니다’에 응답한 사람은 없어, 98%가 학교에서 여학생들이 기계·기술을 배우는 것에 찬성했다.

<그림 III-35> 학교에서 여학생들에 대한 기계·기술 교육에 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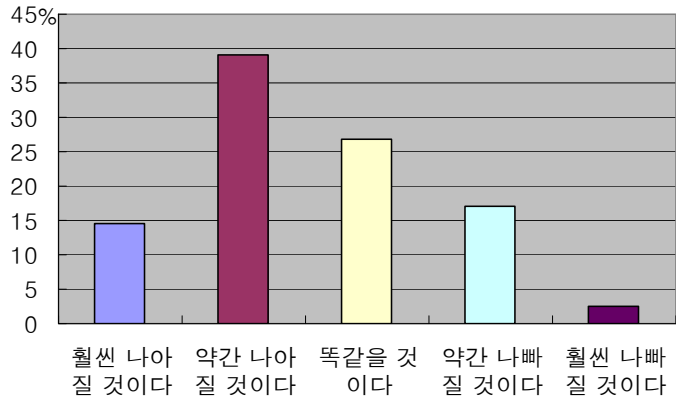
### 자. 농촌의 미래에 대한 기대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나라의 농촌생활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14.6%가 ‘훨씬 나아질 것이다’, 39.0%가 ‘약간 나아질 것이다’, 26.8%가 ‘똑같은 것이다’, 17.1%가 ‘약간 나빠질 것이다’, 2.4%가 ‘훨씬 나빠질 것이다’라고 응답하여, 54%의 응답자가 농촌의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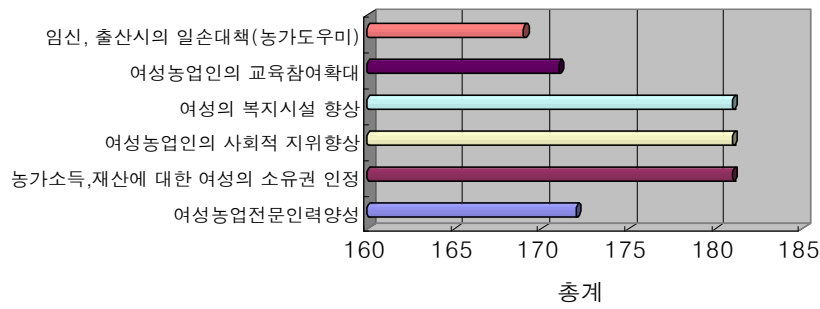
### 차. 여성농업인 정책에 관한 인식

각 지역에서 필요한 여성 농업 전문인력 육성, 농가소득·재산에 대한 여성의 소유권,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 여성의 복지시설 향상, 여성농업인의 교육참여, 임신·출산시의 일손 대책 등의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다. 이 정책 중에서, ‘농가소득·재산에 대한 여성의 소유권’,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 ‘여성의 복지시설 향상’등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고, ‘여성 농업 전문인력 육성’, ‘여성농업인의 교육참여’, ‘임신, 출산시의 일손대책(농가 도우미)’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였다.

<그림 III-36> 농촌의 미래에 대한 기대



<그림 III-37> 여성농업인 정책에 관한 인식



---

---

## IV. 양성평등 실천사례

---

---

## 가. 호주의 여성농민상(ABC Radio's Australian Woman of the Year Award)

ABC Radio's Australian Woman of the Year Award는 1994년 ABC Radio의 Wide Bay Burnett 농촌 지역 리포터 Lisa Palu에 의해서 제안되었다.

1995년에는 350명의 호주 전 지역의 농촌 여성들이 후보자로 추천되었다.

1995년 캔버라에서 처음 시작된 ABC Radio Rural Leadership Seminar에는 호주 전 지역의 ABC Radio Rural Women's Award의 수상자들이 참석하기도 하였다.

이 세미나는 ABC Radio Rural의 임원과 ABC Radio Training 에 의해서 계획되었는데, 농촌 여성들로 하여금 network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회에 진출을 확대시키고 언론과 정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증대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세미나에는 최고 명사들과 국회의원들을 연사와 강사로 초빙하고, 농촌산업과 관련된 패널도 운영한다.

많은 농촌 여성들은 이러한 세미나에서 발표력, 미디어 기술, 지도력, 경영훈련, 네트워크 등의 교육을 통해 호주의 농촌여성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킨다.

1996년 수상자는 Barbara Scott로 모직 가공업자이며 의지력 있는 여성농업인으로 고위정책 결정자들, 지도자들과 언론인들이 모인 가운데 수상하였고, 그 후 지속적으로 유능한 여성농업인들이 수상하였다.



## 나. 북아일랜드의 농촌여성 교육훈련지원

북아일랜드 농촌개발 프로그램은 농촌재건에 대한 이상과 접근을 논의하기 위해 많은 여성기구와 연결하여 형성되어왔다. 농촌개발전략(1995~1999년)은 농촌여성을 포함하여 불리한 집단의 요구를 대상으로 하기위해 이 집단들이 지역개발과정에 포함되고, 농촌개발 프로젝트로부터 더 큰 이익을 얻게 하는 데에 우선점을 둔다.

또한 특별 교육과 훈련제도는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증가시키는 농장사업의 운영과 경영에 여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된 음식과 수공예품, 선물용을 판매할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150명 가량의 여성을 포함하는 주 시장단체에 교육과 훈련 지원이 제공되어 왔다.

현재 농촌 개발 위원회는 농촌사회 파트너쉽 기금을 통해 지역사회 집단의 조직의 RSA 고등학위를 통해 여성의 자발적 경험을 인정하는 여성 기관의 기존 프로그램의 전국 연합을 확장하고 개발하기 위한 3개년 프로젝트를 제정·지원하고 있다.

## 다. 이스라엘의 집단협동농촌 (Moshav Shittufi)

모샤브 쉬투피는 1936년 최초로 설립되었고, 1973년 총 6,500여명의 29개 모샤브 쉬투피 부락이 생겼고, 6개 연합을 조직하여 상호협동을 꾀하고 있다. 생산과 분배는 구분되어 있고 부락의 토지와 시설물은 키브츠와 같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사용하지만 각 가정은 자신들의 주택을 가지고 식사, 가정경제, 자녀의 보호와 같은 일들은 회원 자신들이 책임을 가진다.

여성들도 공동사회내의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모든 자녀들은 지역사회외의 비용으로 교육된다. 여성의 작업은 자녀의 수와 나이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어머니들은 주 5일 중 하루 2~3시간씩 밖에서 일을 하며 부락내의 각종 사업을 통한 수익은 그들이 필요한 만큼씩 배당되며 자녀교육, 의료혜택, 문화활동 등의 일은 부락 총괄적으로 모든 회원에게 공급된다.

## 라. 북한의 협동농장

“봄이 오면 봄에 할 일을 찾고 가을이 오면 가을에 할 일을 생각하면서 농장의 참된 주인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녀맹원들” (「조선녀성」 1998년 5월)

북한여성의 직업별 구성비율에서 농업부문은 약 55.5%(1980년 현재, 「북한의 여성생활」로 농업인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의 농촌여성들은 모두가 협동농장의 일원으로, 조선민주여성동맹(이하 여맹)이라는 여성조직을 통해 조직적으로 농사일에 참여한다.

북한의 협동농장은 리 단위의 규모가 작은 농장과, 리 단위를 몇 개 합친 농장, 그리고 군 단위의 농장이 있다. 군 단위 농장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것으로 ‘전인민적 소유’라고 부르며, 리 단위나 리 단위를 합친 협동농장은 농장원 공동소유로 ‘협동적 소유’라고 불린다. 농장원 중에서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로만 작업반으로 나누어 모든 농장 일이 작업반 중심으로 움직여 나간다. 또한 구체적으로 작업반을 각기 전문화시켜 알곡작업반, 남채(채소)작업반, 과수 작업반, 축산작업반으로 편성하고 있다. 이 작업반은 다시 ‘분조’라는 작은 규모의 노동단위로 나뉘어 지는데 작업반 하나가 보통 4-5개의 분조가 되고, 1분조에 15-20명의 농장원으로 구성된다. 분조에는 분조장이 있고, 작업반에는 작업반장이 있는데 이들은 1년마다 소속원들이 선출한다.

농장이 운영되는 방식은 우선 중앙에서 각 농장에다 금년 생산량을 배당하는데서 시작된다. 농장은 이 계획량을 할당받으면 그것을 작업반 별로 분담을 해주고, 작업반은 다시 산하 분조에다 계획량을 정해준다. 분조원들은 공동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개인의 능력차이와 성실성, 열성의 차이가 생기게 마련이다. 따라서 분배의 개념은 일한 만큼 나누는 것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은 그만큼 이익 배분을 많이 준다. 그것을 평가하기 위하여 ‘노력일’이라는 점수제도를 사용한다. ‘노력일’이란 작업량을 측정하는 평가단위로, “오늘 3백 평의 김매기를 했다고 할 때 저녁에 일이 끝난 후 작업을 총화하고 평가한다. 총화, 평가모임을 가지기 전에 분조장과 평가성원이 한자리에 모여 분조원의 일

량을 점수로 정한다. 평가성원은 분조원의 작업량을 평가하는 사람으로 1분 조에 2-3명이 있다. 또한 점수를 평가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데 작업 종류에 따라 급수가 있다. 분조장과 평가성원이 분조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점수를 토론했어서 정한 후 총괄모임을 가지고 그 점수를 발표하고 왜 점수를 그렇게 줬는지를 공개적으로 설명한다.

협동농장 내에는 인민학교(초등학교), 고등중학교(고등학교), 병원, 진료소, 부락마다 탁아소와 유치원이 있다. 병원과 학교는 국가가 운영하고 탁아소는 협동농장이 운영한다.

평양근교인 학산리의 경우 마을 병원에는 의사 20명, 주사실, 보철실(치과), 산과, 내과 수술실을 갖추고 있으며 30개의 침실이 있는 입원실이 있다. 학산리의 경우 의사 한 사람당 100세대의 농장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이 마을에 직접 다니면서 검진과 치료를 다닌다.

농장원들 중에는 농사를 짓지 않는 겨울철을 이용하여 통신대학에 등록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농업대학에서 교수들이 나와서 학습하기도 한다.

주택은 일을 잘하는 모범 농민에게 우선 좋은 집이나 새집을 주는 혜택이 주어지고, 농촌주택은 도시 노동자들이 매달 지급하는 사용료를 내지 않으며, 한집에 30평까지 개인의 텃밭을 주어, 필요한 것들을 심어서 먹은 후 남은 것은 시장에 팔 수도 있으나 파는 사람은 거의 없고 이웃간에 나누어 먹는다.

북한은 또한 농업협동화를 완성한 이후 농촌의 기계화를 위한 사업에 특히 여성노동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하였다. 초기에는 인민군 출신의 군 전사 출신의 여성들을 트랙터 운전수로 기용하는 정도였으나 남성노동력의 부족한 것을 메우려고 트랙터 운전은 여자도 능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선전하면서 체력이 강한 여성들을 뽑아 트랙터 운전수로 배치하였다. 그결과 1963년에는 평안남도 숙천군 농기계 작업소에 트랙터 운전수 대대를 여성들로만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여성트랙터 운전수 대대란 21대내지 23대의 트랙터를 보유하고 그것을 다루는 운전수들의 조직체를 말한다. 트랙터 2~3대로 1개 소대가 조

직되며 3개 소대로 1개 중대가 되고 3개 중대로 1개 대대가 조직된다.

## 마. 충남 예산군의 귀농여성

귀농여성인 정해경 씨는 5년전에 서울에서 내려와 충남 예산에서 양돈과 약용식물을 재배하고 있다. 서울 출신으로 농사일에는 근처에도 못가본 정해경씨가 걱정반 기대반으로 농촌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

농촌의 농사일은 남자들이 삽질이며 밭갈기, 농기계로 하는 힘든 일을 더 많이 하지만, 여자들 손이 안가는 일이 없고 밭일은 퇴약밭에서 여자가 훨씬 더 많이 한다. 고추, 참깨, 들깨, 배추, 무, 마늘 등 밭작물의 씨뿌리기부터 거두는 일까지 여자들이 다한다. 축산도 예외가 아니었다. 25kg짜리 사료포대 날라다 가축 먹이를 주는 일부터 분뇨처리, 축사 청소 등의 일도 남편과 똑같이 한다. 남편이 다치거나 건강이 안 좋을 경우 모든 농사일을 다해야 한다. 동시에 여성은 집안일, 육아까지 전담한다. 가사분담이니 평등 명절 보내기니 공동명의의 부동산이니 하는 말은 다 남의 나라 이야기였다. 일한 만큼 대우도 못 받으면서 살아가는 농촌 여성의 삶은 답답하고 막막했다.

정해경씨는 작년부터 50여 농가가 살고 있는 마을의 부녀회 총무일을 보기 시작하면서 부녀회를 통해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작년에 한 농가에서 생산된 쌀 70가마를 도시의 40여 가구에 판매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소농 5-6가구가 모여 각 농가 당 10가마에서 20가마 정도를 판매하고 있다. 현재까지 팔린 것은 30여 가구에 40가마이며 내년 봄까지는 약 100여 가마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직거래 소모임을 토대로 향후 마을 이름을 따 '복당리 1구 생산자협의회'를 발족해서 쌀뿐만 아니라 고추, 콩 등의 밭작물로 확대할 계획이다. 된장, 고추장 등 가공 식품 판매도 구상 중에 있다. 가공식품을 제조, 판매하게 될 경우는 부녀회가 중심이 되어 작물의 공동생산과 공동제조를 하려고 한다. 직거래를 통하여 얻어지는 수익을 통하여 여러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공동체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으로 보육, 탁아문제 해결을 위하여 마을 학교 운영과, 마을 도서관 설립을 제안하고 시작하였다. 마을학교를 만들어서 농한기인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어른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잘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씩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보자고 제안하였다. 한자교실, 간단한 요리를 만드는 방법, 쌀매타기, 연만들어 날리기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 부락에도 마을회관이 있다. 시설도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는데 사용은 거의 안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장소를 활용하여 혼자 사는 노인에게 식사대접을 할 수 있는 공동식당 마련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부녀회원들이 단합만 잘된다면 부녀회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여 식당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 장성의 경우에도 이런 사례가 있다. 그리고 영화 감상실 등의 오락과 건전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도 만들어 볼 계획이다.

## 바. 전북 정읍군의 부부 후계 농업인

김성숙씨는 학교를 마치고 농업을 지키고자 하는 뜻을 가진 남편과 결혼해서 전남 정읍에 정착하였다. 결혼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은 밭 400평과 한우 50마리 정도를 키우고 있는 전형적인 축산 전업농가의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노동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면서 남편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다.

김성숙씨는 만 32세가 되던 해인 1995년 1월 예비 후계 농업인으로 등록하였다. 여성농업인인 자신도 전문성을 가지고 농사일을 하고 싶었고, 남편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농사일도 하고 사회활동을 할 때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도 보다 풍부해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농업 유지와 발전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남편도 반대하였다. 남편이 후계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내도 후계자 신청을 하는 것을 주위에서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농촌에서는 도시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더 많이 의식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신이나 의지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남성들의 경

우 아내와 같이 평등하게 가사일을 분담하거나 아내에게 배려를 한다면 주위에서 남자답지 못하다고 못한 사람 취급을 하거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결혼 초기에는 아내에게 잘해 주던 남편도 농촌 지역사회에서 오래 살다 보면 점점 권위적이고 봉건적인 분위기에 휘말려 간다고 한다.

김성숙씨는 남편도 문제이지만, 여성농업인들을 농업의 주체라고 생각하지 않고 농업의 보조자 정도로만 여기는 관행도 문제이므로 깨뜨려야겠다고 결심하고 후계인력으로 되기 위한 예비 후계 농업인 등록을 강행하였다. 그리고 여성 후계농업인 지정을 받는데 나이 제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후계농업인이 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싶어 서둘러 등록을 하게 되었다.

후계농업인 신청을 하겠다고 지도소장에게 처음 말을 했더니 난색을 표시하였다. 남편이 후계자인데 또 지정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남편이 후계농업인이고, 여성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원칙이 어디 있느냐? 근거를 제시해 보라”고 요구하면서 일단 한번 내보기라도 하겠다고 밀어 부쳤다.

후계농업인이 되기 위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경력은 결혼 전부터 계산하였다. 친정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어렸을 적부터 농사일을 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정부의 여성후계자 정책에서 여성들의 결혼전 경력까지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중에 김성숙씨는 예비후계 농업인으로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지역 농민회 조직이 열심히 농업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힘써온 성과라고 생각한다.

선정된 후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군단위 교육이 2일간, 도단위 교육이 2박 3일간 있었다. 교육을 받은 것 중 기억에 남는 내용으로, 한 강사는 후계농업인 자금을 받으면 농촌에 투자하지 말고 한살이라도 젊었을 때 도시로 나가라는 얘기를 하였고, 다른 강사는 중국연수를 다녀온 경험을 말하면서 포크레인을 사 가지고 중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도 하였다.

김성숙씨는 정부의 후계농업인 정책이 단순한 자금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농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기반하여 농업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농업 경영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지원된 돈이 정말 농업에 투자되고 농업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실적에 따른 추가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사. 전남 영광 「영광여성의 전화」의 지역 소모임활동

### (1) 조직의 기틀이 된 ‘여성학 모임공부’팀

전남 영광은 군 전체 인구가 7만5천 밖에 되지 않는 작은 농촌 지역이다. 이렇게 작은 농촌지역 군단위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영광여성의 전화가 설립되었다. 농사일로 늘 바쁜 농촌에 여성조직을 새로 결성하기는 무척 어렵고 더구나 여성주의 시각이 확고하지 않으면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여성의 전화 같은 여성상담 단체는 그런 의미에서 농촌지역 여성 소모임의 성공 사례로서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

이 단체를 태동시킨 소모임의 역사는 3년 전인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산원 불교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장인 현재의 회장님과 지역 여성들이 한 달에 두 세 번 씩 만나 여성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 시작했던 팀은 7~8명의 20~30대의 농민운동을 하는 여성들과 직장여성들이었다. 가부장성이 강하고 혈연중심, 남성중심의 농촌사회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여성학은 모임 구성원들에게 가뭄에 단비처럼 받아들여졌고 생활 속에서의 여성의식을 싹틔우기 시작했다.

농사짓는 여성들과 직장인들로 구성된 팀은 저녁시간을 이용해 공부했다. 공부방식은 커리큘럼에 따라 각자 공부해오고 한사람이 발췌한 뒤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이 모임을 통해 자신 내부와 가족관계에 공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가부장성을 확인하였고 지역사회의 반여성적 현상도 비판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여성의식의 기틀을 잡아갔다. 몇 개월의 공부기간을 거치면서 직장여성반을 새로 꾸리고 지역여성대중들이 참여

하는 팀(세상을 밝히는 여성들의 모임)등 3개의 여성학 모임 공부팀이 꾸러졌다. 3개팀 중 나중에 꾸러진 세상을 밝히는 여성들의 모임의 회원은 여성의 전화 활동에 많은 힘이 되었다.

직장여성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모임은 생각보다 결속력있게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직장여성들에게 여성의 전화를 홍보하고 회원활동을 하게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때 함께 했던 회원들은 현재 성교육 강사모임 등을 하고 있다.

#### (2) 여성의 전화 준비위원회 발족

여성학 모임공부 회원들이 여성의 전화 추진위원들로 등록되고 99년 2월 영광여성의 전화 준비위원회로 인준받으면서 그간 여성학 공부로 해 온 회원들의 변화에 따라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1년여 동안 연중무휴로 진행된 공부모임으로 인해 많은 진척이 있었지만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지쳐가는 회원들이 많아 집중기간과 휴식기간을 갖기로 했다.

직장팀과 세상을 밝히는 여성들의 모임은 주간·야간으로 나눠 실시하였다. 시간은 주로 농촌지역의 특성상 농한기를 이용해 공부하고 농번기에는 휴식하는 방법 등으로 진행했다.

#### (3) 소모임으로 정착 그리고 새로운 모색

여성주의 의식으로 무장한 회원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양한 소모임을 구성하면서 자리를 잡았다. 선요가 교실, 성교육 강사모임, 상담원 모임 등 다른 소모임이 생겨난 것이다. 이 소모임들은 초기에 여성학 기초를 공부하고 여성주의에 눈을 뜬 여성들은 관심분야에 따라 다른 소모임으로 뻗어 나감에 따라 다양해진 것이다.

즉 여성학 공부를 통해 여성주의에 눈을 뜬 여성들이 다른 소모임을 꾸리며 전문성을 갖춰가고 한편으론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학 강좌'를 열어 여성주의의 저변을 넓히고 신입회원을 교육하는 장으로 형식과 내용이 꾸러지게 되었다.

#### (4) 소모임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

여성의 전화 조직화의 큰 밑거름은 바로 소모임이었다. 농촌지역의



작은 소모임이었지만 이를 통해서 더디지만 원칙을 고수하는 힘, 그리고 대중을 무한히 신뢰하게 되는 경험, 대중의 성장을 목격하게 되는 장이 바로 소모임이었다.

활동가들만의 모임보다는 지역회원들의 소모임 속에서 결합함으로써 회원들의 생활 속에 들어 있는 욕구를 알 수 있었고 여성주의 원칙을 같이 체험하는 동료의식이 자랄 수 있었다. 이런 소모임들의 활성화는 조직을 건강하게 하고 항상 새로운 바람과 힘을 불어 넣어줄 것이다.

#### (5) 소모임은 사람을 키우는 나무다

농업지역여성 소모임은 사람의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엿보게 하였다. 처음에는 어색한 낯으로 들어온 신입회원이 그리 길지 않는 기간동안 소모임 공부를 하면서 준비위원, 회원활동, 임원활동가 등으로 성장한 과정을 목격하기도 했다. 그 동안 여성의 고유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자신의 삶을 바라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었을까. 의식변화와 자기 삶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이끌어내는 회원들을 볼 때면 서로가 가슴이 벅찬 경험을 하였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에게 힘을 느낄 수 있었다.

#### (6) 지역 소모임 운영의 어려움과 즐거움

여성의 전화를 움직이는 힘의 뿌리는 지역여성 소모임이었다. 여성의 전화 창립 전에는 여성학 모임공부에 주력했기 때문에 문제를 제시하고 서로를 끊임없이 챙기고 해결을 같이 모색했지만 조직이 커지면서 지금은 소모임 회원의 자발성이 요구된다.

여성의 전화의 고민은 소모임 회원의 자발성과 활동성을 계속 상승시켜야 하는 문제이다. 절대적으로 적은 인구, 낮은 경제력, 고령의 사회, 남성중심적 의식 등의 조건들은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소모임 회원들은 겹치기 활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2~3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 지쳐서 흔들리는 회원들도 생긴다. 활동가가 적다보니 회원들이 빨리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러다 보니 요구치가 높고 활동가도 회원도 지치게 된다.

그러나 동원화되고 대상화되기 쉬운 회원 한사람 한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면에서 소모임은 조직의 활력이 된다. 함께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자기의사를 표현하고 서로 토론하다보면 자기성장과 여

성의식향상은 뒤따르게 마련이다. 젊은 조직, 발전하는 조직을 원한다면 자발적 소모임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7) 농촌지역의 양성평등의식에 기반한 소모임 조직화를 위해

농촌지역 여성들을 조직하기란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강도높은 노동과 가사·육아·자녀교육까지 떠맡아야 하는 실정이고 보면 여성농업인에게 딱 생각이란 일종의 사치와도 같다. 그러다 보니 우리지역에서 진행되는 소모임에 농촌여성이 일상적으로 참여하기란 무척 어렵고 처음에 시작했던 여성농업인들이 일과 거리상의 문제를 이유로 끝까지 함께 하진 못한다.

그래서 올겨울엔 농촌여성들을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잘 지어진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이용해 지역농촌 여성단체등과 연계해 농촌지역 여성들을 위한 겨울프로그램을 계획중이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농촌여성들도 알고싶어하는 지적욕구와 행동하고 싶어하는 실천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점이다.

99년 겨울 영광여성의 전화 회장님(영산원 불교대학교 교수, 원불교 교무)은 시골교당의 요청으로 3회에 걸쳐 여성학 강좌를 한 경험이 있다. 산골의 60~70대의 인구비율로 고령화된 마을에서 이뤄진 여성학 강좌는 당시 여성계의 이슈였던 '군가산점' '호주제' '가사노동' '재산 공동명의제' 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었다. 바로 당신들의 삶 속에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문제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고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상기시켰을 때 어르신들의 반응은 긍정적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도시에 비해 농촌사회의 양성평등의식은 극히 낮다. 그러나 몸으로 겪은 불평등과 불합리성을 일깨울 기회가 많아지고 자각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하리라 본다.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농촌여성들의 삶을 들여다 본다면 실천 속에 답이 있으리라 본다.

## 아. 「농촌형 양성평등 교육모형」 개발

본 연구진이 농촌지역 양성평등 실현방안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농촌형 양성평등 교육」을 개발하여 실제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1) 프로그램명 : 농촌형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

(2) 교육목적

- 농촌공동체 형성에 대한 중요성과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농촌여성의 역할 이해
- 농촌지역에서의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확립
- 환경친화적 영농방법 모색

(3) 교육내용

- 한국농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
- 평등한 부부
- 하나된 마음으로
- 평등한 가족문화 만들기
- 환경친화적 영농

(4) 교육의 운영

- 1) 교육 일시 : 2000년 12월 18일~19일(1박 2일)
- 2) 교육 장소 : △△시 농협중앙회 연수원
- 3) 교육참가자 : 농업 후계자 부부 총 12쌍
- 4) 교육 일정(부록 2 참조)
- 5) 교육운영의 실제(부록 2 참조)
  - 두레 만들기
  - 한국농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
  - 평등한 가족문화 만들기
  - 평등한 부부
  - 지구환경의 위기와 대책

(5) 교육의 결과

- 교육참가자의 일반적 특성

교육참가자의 연령분포는 20대가 1명, 30대가 3명, 40대가 18명, 50대가 2명이었고,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4명, 중학교 졸업이 7명, 고

등학교 졸업이 10명, 전문대학 이상이 3명이었다. 주 재배작물은 논농사, 밭농사, 과수농사, 축산이었다.

○ 교육참가자들의 농사를 짓게 된 경로는 남자와 여자가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의 경우,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명예퇴직한 한 가족과 대학을 졸업하고 축산업을 하기 위해 농촌에 정착한 젊은이를 제외하고는 농토를 물려받아 농사를 짓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여자의 경우는 공장 생활을 하다가 처녀시절에 농촌에 정착하게 된 한 가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결혼과 동시에 농사를 시작하였다.

○ 교육참가자들은 모두 후계농업인과 그 가족이기 때문에 비교적 성역할에서 진보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하지만 연령별로, 여성농민단체 활동 경력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여성의 경우 젊은 연령층 일수록, 여성농민단체 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의 경우는 지속적인 활동과 교육으로 성역할에 관해 상당히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남성들의 경우 젊은 연령층보다는 40대 이상의 경우가 보다 진보적 성향을 나타냈다.

○ 교육초기에는 양성평등한 가족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교육이라는 데 반감을 가지는 참가자들이 소수 있었다. 그러나 첫째날 교육 프로그램이 끝나고 뒷풀이 시간에 교육전반에 대한 기획의도를 설명하고 교육방식에 대해 설명하자 수긍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둘째날 교육은 교육효과를 배가하게 되었고 교육마무리 단계에서 교육생 대부분이 교육시간이 부족함을 호소하였다.

○ 평등한 부부라는 강좌에서는 역할극을 하고 토론을 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는데, 4개조로 나누어 역할극을 해 보고 각 상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역할극을 할 때도 참가자 모두 진지한 자세로 참여하였고, 토론시에도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결과를 발표하도록 하였는데 현재 자신의 부부의 모습에 대해 반성하고 향후 평등한 부부

가 될 것을 약속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 성격유형검사를 통한 성격유형에 따른 부부의 대화양상과 갈등양상에 대해 설명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평등한 가족문화 만들기라는 주제의 강의에서는 남성참여자보다 여성참여자의 호응이 더 높았다. 여성참여자의 경우 진지하게 갈등양상과 해결방안에 대해 강의를 듣고 질문하는 모습을 보였다.

○ 교육평가를 통해 교육참가자들은 「농촌형 양성평등 교육모형」이 농촌과 농업인의 실정에 맞게 변형되어야 하고, 농촌의 형편상 부부의 숙박교육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당일교육으로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기를 원하였다.

#### (6) 기대효과

- 농촌지역의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정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 자신의 직업영역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전문성을 함양한다.

#### (7) 활용방안

○ 농촌의 기반 조직들(농협연수원 교육 프로그램, 후계농업인 교육프로그램, 농협주부대학, 생활개선회 교육프로그램, 새마을 부녀회, 여성농민단체 교육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확립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활용한다.

---

---

## V. 농촌지역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

---

- 
1. 기본방향
  2. 정책방안
-

## 1. 기본방향

농촌지역 양성평등을 실현시키는 방안을 탐색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한다.

가.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나.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을 통한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다.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복지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라.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문화·지역사회활동 확대를 위한 기반구축

마. 농촌지역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평등가정의 구현

## 2. 정책방안

이러한 기본방향에 기초하여 농촌지역에서 양성 평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한다.

각 방안에 대하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가.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1) 농업경영의 공동경영자로서의 지위 부여

□ 필요성

여성농업인이 농업노동력의 반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여전히 여성농업인은 무급의 조력자, 농업보조자로 평가되고 있고, 여성노동은 무가치한 것으로 인식되거나 노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00년 현재 농협의 여성조합원 비율은 17% 수준이며, 농업정책과정에 여성의 낮은 참여율 등 불평등한 위치에 있다.

여성농업인은 자영업자로서의 권리와 지위는 인정되지 못하고 의무와 책임이 강요되고 있다. 근로자, 보조자의 위치가 아닌 농업 경영자·기술자로서의 지위 부여를 통해 여성농업인들이 농업활동에 주체적 생산자로서 자리매김이 요구된다.

□ 추진방안

- 여성농업인에 대한 경제활동의 적극적 평가
  -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참여와 임금 차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 농림축산 분야 성인지적 여성관련 통계를 산출한다.
- 여성농업경영자·기술자등 주체적 생산자로서 육성
- 여성의 경제권 향상을 위한 부부공동재산제의 제도화
  - 현재 공동 명의가 제도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반화되고 있지 못하고 이러한 점은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을 독립적으로 설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부부 공동 재산제를 제도화하고, 농협과 정부의 농업정책은 부부공동재산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2) 여성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산기반 정비

□ 필요성

농가인구의 여성화·노령화 추세와 영농형태가 벼농사 위주에서 과수, 하우스 재배 등 밭작물로 전환되면서 여성의 농작업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남성의 참여도가 높은 벼농사의 농작업은 기계화 단계에 있으나 여성참여도가 높은 농작업은 여전히 주로 사람의 손에 의한 전통적 노동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예작물의 10ha당 노동투하 시간은 수도작에 비하여 매우 느리게 감소하고 있어 여성의 노동부담 절감을 위한 밭농사용 농기계의 개발 및 개량이 추진되어야 한다.

본 조사에서도 여성들의 경우 반 이상이 농기계를 다룰 줄 모르는 점이 ‘매우 심각(8.7%)’하거나, ‘조금 심각한 것(44.0%)’으로 여성들에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또 여성들의 9.1%(남성 78.9%)만이 농기계 사용 경험이 있고, 여성들은 농기계 사용에 대한 교육받은 기회도 낮다.

□ 추진방안

- 여성농업노동의 기계화를 위한 농기계의 개발 및 보급
  - 주로 여성이 이용하는 농기계는 밭작물 농작업용 기계 30여종이 개발되었으나, 농기계의 개발 및 보급이 불충분한 상태이다. 여성 친



화적 농기계, 농작업 보조기구를 개발, 보급하여 여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한다.

- 적절한 공급과 수요조사를 통해 농기계 보급을 확대한다.
- 여성 대상 농기계 교육 확대
  - 여성농업인의 기계조작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농기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여성 과제교육”등을 통한 영농기술 및 농기계 운전 및 농기계 전문교육을 확충한다.
  - 초·중등학교에서 조기에 여학생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킨다. 더 나아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킴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 (3) 농촌여성 후계 인력화를 위한 여건 조성

#### □ 필요성

'94년 이후 후계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시책이 추진된 결과 후계여성농업인의 참여도가 높아졌으나 전체 후계농업인중 여성비율은 2000년 7.7%이다. 본 조사에서도 남자응답자의 13.8%가 후계농업인인데 반해 여성은 2.0%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선발과정에서 후계여성농업인의 실질적 우대 조치로 전문 여성농업인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농업고등학교 농업교육과정을 보면 여학생은 전통적으로 여성적 분야로 간주되는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 □ 추진방안

- 후계 농업인 선발시 가산점 부여 제도의 현실화
  - 여성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해 선발과정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과도기적으로 30% 할당제를 현실화한다.
- 농업계 고등학교와 농업 전문학교 등에 여성후계인력 유치
  - 농업계 고등학교와 농업전문학교 등의 비전통적 여성 분야로 여학생 진출을 확대하므로 미래 농촌·농업의 기반이 되는 분야에서 여

성농업인 양성을 유도한다.

#### (4) 여성 농업 전문 경영인 육성

##### □ 필요성

농가 경영주의 성별 분포는 여자 15.5%, 남자 84.5%이며, 40대 이하에서는 대부분 남성 경영주이나 60대 이후에서는 여성 경영주가 20%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00). 이러한 결과는 독신, 60대 독거노인, 부부가 별도로 농사짓는 경우 등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남성 경영주의 비율이 훨씬 높다.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이 확대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전문적 여성농업인 대상 보다 광범위하게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으로서 전문적 경영능력을 육성개발하기 위해서 대상별로 특화된 교육기회, 과정 및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이 확대되어야 한다.

##### □ 추진방안

###### ○ 여성 전문 농업 경영인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영농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와 농협 등에 여성전문농업 경영인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한다.

###### ○ “농업경영자과정 여성반” 또는 “여성농업인 경영자 과정” 설치 운영의 확대

· 현재 경북대, 충남대, 제주대, 안동대, 순천대 등은 「최고농업경영자과정」에 “여성반”을 운영하여 여성농업경영인을 육성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지방 소재 대학에 확대한다. 지역내 대학의 사회교육원이나 평생교육원에 “여성농업인 과정”을 설치를 장려한다.

###### ○ 환경농업 분야의 여성 인적자원 개발

- 여성농업인의 친환경적 농업지식 및 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이용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 농업계 고등학교와 대학의 농과계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환경 분야 여성 전문인력으로 양성한다.
- 환경농업을 위한 여성농업인 단체의 국내외 교류를 지원한다.

(5)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령의 정비

□ 필요성

현행 농림축산업 관련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 대상 법령의 조사 검토 결과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의(농촌진흥법 : 농업인·농촌청소년·농촌여성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제2조 제③항의 3))’,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시행규칙 :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농업노동력을 보유하고 전업농업인으로서의 정착이 가능한 규모로 영농을 하고 있는 농업인 일 것(제12조 제①항의 가)’, ‘산림보호직원복제규칙’등이 지적된바 있다.

명시적으로는 성별 구분, 한쪽 성의 배제 또는 제한, 남녀차별적 해석이 가능한 문구, 성별에 따라 법규효과가 달라지는 규정은 크게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을 위한 기존 정책이나 신규정책 사업의 추진을 위한 근거조항과 지침, 조례 등의 제정이 마련되어야만 실질적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평등한 사회적 지위 확보를 위해 그들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각종 법령의 개정 및 제정 등을 통한 제반 법령의 정비가 절실히 필요하다.

□ 추진방안

○ 농촌여성·여성농업인 관련법의 제정

- 농업과 관련한 각종 법령에는 여성농업인의 기본 권리가 명시되어야 한다.
-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 확보를 위해 여성 농업인 관

련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 「농업·농촌 기본법」 14조에 명문화된 여성농업인 인력 육성에 관한 조항을 확대·개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시행령도 개정한다. 자치단체도 동법에 상응하는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 여성농업인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며, 특히 농촌 여성을 위한 도우미 제도의 현실화, 농촌여성 출산보조금 지급을 위한 조례제정을 모색한다.

○ 농림축산업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남녀차별조항의 지속적 발굴·조사

· 성별 구분, 한쪽 성의 배제 또는 제한, 남녀차별적 해석이 가능한 문구, 성별에 따라 법규효과가 달라지는 규정에 대한 지속적 발굴 및 조사를 실시한다.

#### (6) 「여성농업인상」 제정 및 수여

##### □ 필요성

여성농업인상의 제정은 농촌여성의 자존감과 자긍심을 키우고, 더 나아가 농업의 새로운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농촌 여성·여성농업인의 전문적 직업의식의 확립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여성농업인을 전국에서 발굴하여 정기적으로 「여성농업인상」을 수여한다.

##### □ 추진방안

###### ○ 「여성농업인상」 제정

· 분야별로 21세기 농업의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한 바람직한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을 지역별, 영농 분야별로 추천받아 가장 우수한 여성 1인을 선발하는 여성농업인상을 제정한다.

###### ○ 「여성농업인상」 기준 제정 및 수상계획 수립

· 여성농업인상 수상 신청 접수, 심사 및 시상계획을 수립한다.

· 정기적으로 여성농업인대회에서 선발하여 시상한다.

(7)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주류화를 위한 정책개발

□ 필요성

전국 1132개 지역농협의 여성이사 14명, 여성대의원 193명으로 2000년 현재 여성 조합원 비율이 17.0%에 비하면 극히 낮고, 통합농협의 여성이사는 총 31명 중 1명으로 의사결정에 과소 대표 현상을 보인다.

농업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참여가 낮은 원인으로 관련 분야의 여성 전문 인력 부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전문인력 양성과 개발을 통해 여성 참여를 확대 할 필요가 있다.

국제기구 차원의 여성농업인 정책도 최근에는 농업개발과 국내외의 관련정책에 여성의 관점을 도입하고, 여성농업인의 의사결정권 강화를 정책의 방향으로 강조하고 있다.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주류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농업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개발하고, 그에 따라 운영과 평가가 실시되도록 한다.

□ 추진방안

- 농업개발 관련 정책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 농업정책 수립과정에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의사결정권을 높이기 위해 정책담당자의 양성평등의식이 고양되어야 한다.
  -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시도·시군 등 지방자치단체 및 농축산 관련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 목표 비율 30%를 이행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농업인 전담 부서 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농업인 관련 업무 수행체계가 시도여성정책과, 농업기술원, 농정과 등으로 나뉘어져 비효율적이므로, 여성농업인 전담 부서를 설치한다.
- 시·군에 시장·군수 직속으로 “평등조정 위원회” 설치
  - 농촌지역의 뿌리깊은 성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군) 단체에 여성농업인이 경험하는 개인적·집단적 불평등을 조정하고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여성농업인 지도자 인명부 작성
  - 농업·농촌 정책 관련 의사결정에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농업

분야별 여성농업인 지도자 DB를 구축한다.

## 나.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을 통한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 (1) 농촌 여성 직업능력 개발 강화

#### □ 필요성

현재 WTO와 UR 체제는 우리 농업의 세계화와 시장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지속적인 농업 성장을 담보 할 농촌의 인적자원 개발의 관점에서 여성의 능력개발은 큰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이미 농업인력의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농가여성을 핵심 인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농촌여성의 능력개발은 높은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농촌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은 평생학습 차원에서 전생애 단계별 수준에서 각각 자아실현과 능력개발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 추진방안

##### ○ 농촌지역 여학생의 진로 및 생애 교육 확충

· 농촌 지역 초·중등학교단계부터 여학생들을 새로운 농업환경에도전할 수 있는 전문여성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직업기초능력을 개발한다.

· 농업고등학교와 농업전문학교 등에 여학생 입학률 확대하여, 부가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창의적 여성농업인을 양성한다.

· 충청북도 교육청의 국내외 농업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하는 “영농 학생 전진대회” 개최는 농촌지역 학생들의 직업의식을 고양 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된다.

##### ○ 농협중심의 농가주부 대학 교육과정 개선 및 확충

· 농협은 주요 농업인 교육기관의 기능을 담당해오고 있으나, 교육 내용 면에서 일반교양 교육과 취미교실등 전통적 여성사회교육이 중심이 되고 있다. 농가주부대학의 교육내용인 기존의 교양 및 취미 중심의 사회교육은 농촌사회의 변화에 부응 할 수 있는 농촌여성·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 (2) 농가부업을 위한 농외소득부문 여성 취업 교육 실시

### □ 필요성

현재 농촌지역 여성의 능력개발은 전문적 여성농업인 육성이 정책적으로 핵심 과제가 되고 있으나, 농외소득 부문 취업을 위한 여성 능력개발도 동시에 중요한 부분이다.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농업·농촌사회에서 주요 인적 자원으로서의 여성인력은 잠재력 개발이 지체 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적 요인들로 인해 농촌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농촌과 도시의 경계가 약화되고, 교통 및 통신 발달 가속화로 인한 농촌사회 이동성의 증가 및 농업산업의 확대는 농외소득 부문 취업을 위한 여성의 능력 개발이 요구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본 조사에서도 여성들은 교육참여 계획에 대한 응답에서 직업교육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농외소득 부문 취업을 위한 교육은 농촌여성의 안정적 농촌정착을 위해서도 요구되고 있다.

### □ 추진방안

#### ○ 농가 부업 기술을 위한 농외 소득 부문 교육 훈련 실시

· 농촌 여성의 실태와 그들의 교육요구에 기반을 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여성들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 취업을 위한 주문식 교육훈련 실시

· 농촌 여성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해 농촌지역 농외소득 부문 여성노동력의 수요·공급 실태를 분석한다.

### (3) 대상집단별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필요성

현재 농촌여성·여성농업인 대상의 사회교육은 기관별, 수준별 차별성이 부족하고 교육대상도 제한되어 있다. 농촌의 대내외 변화에 따라 농촌지역의 여성들간의 다양성과 이질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경향이므로 사회교육도 구체적인 다양한 농촌여성·여성농업인 집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 할 필요가 있다.

전문 인력으로서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교육은 시·군 단위 농업기술센터와 단위농협, 시·군청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농촌 성인 여성을 위한 사회교육은 개개인의 능력개발과 자아실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인적자원개발의 측면에서 수준별, 연령별등 교육대상 집단별로 사회적·개인적 요구와 실용성의 관점에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 □ 추진방안

- 농촌여성·여성농업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 농촌 여성·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기능적 문자해독 능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공식·비공식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한다.
- 농촌여성·여성농업인 교육프로그램 시범 실행
  - 개발된 프로그램들을 시범 대상 및 지역을 선정하여 실행한다.
  - 사회교육 운영기관들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교육내용을 차별화한다.
-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방법 개발
  -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학습자로서의 특성과 학습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한 탄력적(농한기, 농번기등)·효과적 교육방법을 개발한다.
  -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물리치료, 지압, 수지침 등 부가서비스를 지원한다.
  - 학습효과의 측면에서 부부통합교육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자녀와 가족을 돌볼 대체인력이 없어서 참여 할 수 없는 현실을 간



과하면 안된다.

#### (4) 농촌여성의 정보 문해 교육 실시

##### □ 필요성

본 조사에 의하면 농촌지역의 정보화 현황으로 컴퓨터 보유 현황은 35.9 %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농촌 여성의 정보교육의 현황은 남성에 비해 기회, 수준 면에서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컴퓨터 사용여부는 여성 11.9%, 남성17.5%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보화 사회의 소외집단으로 남지 않기 위해 농촌여성의 정보화 교육 기회의 확충, 정보화 마인드 확산 등, 농촌여성의 정보문해 교육 실시가 중요하다. 특히 지식정보사회에서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농촌현장교육 중심의 컴퓨터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

현재 농촌여성의 정보화의 중요성은 인식되고 있고 교육프로그램으로도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나, 실제적으로 접근기회, 교육프로그램의 공급 측면 등 많은 문제가 있다.

##### □ 추진방안

- 농촌지역 초·중등 학교 여학생 정보화 교육 확대
  - 초·중등학교 여학생이 농촌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정보통신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부족으로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화 취약 계층으로 낙오되지 않도록 정보화 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 농촌여성의 정보활용 능력 강화
  - 지역내 초등학교 시설 활용을 통한 부모교육에서 컴퓨터 문해교육을 실시한다.
  - 대학생의 각종 농촌활동을 활용하여 농촌여성 대상 컴퓨터 교육을 실시한다. 현재 전남 장성지역은 호남대학이 “농활정보화”를 실시한 바 있다.
- 농촌여성·여성농업인 대상 정보화 교육 기회 확충

· 여성농업인 대상 농촌 현장 순회교육을 통한 컴퓨터 교육을 활성화한다. 현재 각 도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이동훈련 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 군 면 단위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교실을 활용하여 영농과 관련된 수준에서 정보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한다.

○ 원격 「여성 농업교실」 개설 및 운영

· 현재 농림부의 「어린이농업교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여성농업교실을 개설·운영한다.

(<http://www.maf.go.kr/child/school/html/first.htm>)

· 여성농업교실의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 (5) 농촌 성인 여성 능력 개발을 위한 학습 조직의 육성

##### □ 필요성

농촌지역에는 생활개선회, 농가주부모임, 새마을 부녀회, 전국여성농민회, 한국여성농업인 연합회 등 여성농업인 단체가 많으나 회원일반의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농촌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기존의 각종 여성 조직을 평생학습조직으로 육성하므로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능력개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 추진방안

○ 여성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

- 여성회관을 활용한 농촌 여성능력 개발 체제를 마련한다.
- 부녀회 조직과 계를 활용한 여성학습 조직을 체계화한다.

○ 친여성적 학습조직의 육성

- 자조적 친여성적 학습 조직을 육성한다.
- 농업인 대상 학습에서 여성을 분리하여 여성의 흥미와 경험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한다.

- 농촌여성 활동 기금 지원
  - 현재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여성발전기금을 운영·조성 중에 있으나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을 위한 사업을 위해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 다.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복지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1)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을 위한 영농지원 체제의 정비

#### □ 필요성

농촌지역에서는 자녀 양육 및 교육, 노인부양등 여성의 가정내 전통적 역할을 지원할 사회적 서비스가 부족해 여성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지 못하고,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참여하는데 결정적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본 조사에서도 농촌의 복지시설부족에 대해 80%정도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자녀 교육, 보육서비스와 아동보호 서비스의 확대, 가사대행 서비스의 도입 등을 통해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농업인력 정책의 일환으로 필수적인 것이다.

#### □ 추진방안

- 농촌여성에 대한 해산 보호비의 사회부담화
  - 출산 후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모성보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가 보전해 주는 직접 지불형태로 실시한다.
  - 도·시립 산후조리원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 농가도우미제도 검토 및 활성화 방안
  - 농가 도우미 제도를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질병 및 영농활동 도우미로 확대 실시한다.
  - 다양한 농가도우미 제도를 활성화하고, 농가도우미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농가도우미 사용 금액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율을 높이고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서 농가도우미 제도를 활성화한다.

- 농가도우미의 체계적 양성방안을 마련한다.

- 지방자치단체 조례안 제정

- 각종 여성의 영농지원체제와 관련된 복지 과제들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제정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한다.

## (2) 농촌 노인 여성의 복지정책 강화

### □ 필요성

농촌여성 노인은 여성이면서 노인이라는 불리한 위치에 농촌의 지역적 조건으로 인하여 가장 소외된 계층이다. 사회복지 혜택에서도 여성이 차별 받고 있고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및 기관의 도시 편중으로 농촌여성노인들의 복지는 사각지대에 있다.

고령농업인이 농업의 실질적 인력임을 인식하고 농촌 노인여성을 위한 진료서비스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 □ 추진방안

- 시·군 보건소 기능의 확대 및 가정방문을 통한 진료단 순회 근무제 도입

- 면 수준에서 보건소가 있으나 노인이 이용하기에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방문을 통한 예방과 치료가 이루어 지는 진료체계를 도입한다.

- 여성상담, 여성 건강교육 등 노인 여성을 위한 사회서비스제공을 확충한다.

- 고령 농촌 여성을 위한 양로시설 설립 운영

- 농촌여성노인 단독세대의 위기 상황을 지원하기 위한 양로시설을 설립한다.

· 영농활동에서 여성노인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작목과 토지생산성이 높고 세심한 노동력이 필요한 작물 및 농법을 파악하고 지원한다.

### (3) 자녀의 교육 및 보육 서비스 확충

#### □ 필요성

농촌지역의 보통 부모들은 농사와 살림으로 인한 시간부족 등으로 자녀들의 방과후 생활에 신경 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농촌에 살아서 아이들 공부도 제대로 못시킨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 이제까지 농촌지역에서는 인구의 노령화를 전제로 각종보육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도시지역에 비해 낮았다. 그러나 실제로 읍면지역의 5세 미만 아동 수는 전국적으로 60만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지역의 특성에 따라 육아기 여성이나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도 많이 있다. 이들은 농업 노동과 가사노동으로 극심한 이중 부담을 지고 있으며, 교육 및 보육 서비스의 부재는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적극적 영농참여와 능력개발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 □ 추진방안

##### ○ 농촌형 보육서비스체계 확립

- 농촌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보육 형태의 다양화 방안을 마련한다(계절제, 시간제등).
- 부녀회등 기존의 여성조직을 통해서 품앗이로 공동육아를 실시한다.

##### ○ 방과후 아동교실 설치 및 운영 확충

- 방과후 아동지도 제도의 도입은 학력저하, 사회성 저조, 문화적 경험 부족 현상에 직면해 있는 아동들에게 아동의 안전, 학업보충, 예능교육 등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다.
- 농촌지역에서 아동들이 가장 접근 가능성이 있는 방과후 지도 장소로는 학교와 마을회관을 들 수 있고, 교회, 어린이집, 복지회관, 청년회관 등을 현실적 장소로 활용한다.

#### (4)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보호소 마련

##### □ 필요성

농촌지역의 가부장적 전통과 성차별적 가정 문화에서 여성들은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편견과 의식은 가해자인 남성들은 ‘여자가 맞을 짓을 했다’는 식으로 폭력을 정당화한다.

여성담당 공무원의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농촌지역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성정책으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일시적 또는 상설 쉼터를 제안하였다.

##### □ 추진방안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보호시설 마련
  -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군단위의 ‘쉼터’, ‘피난처’등의 일시보호 시설과 상설 보호 시설을 마련한다.
  -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및 의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한다.
- 농촌여성 상담 확충
  - 재발방지를 위한 여성의 자기보호의식 및 대처방법을 주지시킨다
  - 전남 영광의 경우, 「여성의 전화」가 운영되고 있어 피해 여성의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 라.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문화·지역사회활동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 (1) 농촌 여성의 문화활동 확충

##### □ 필요성

농촌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의 증대에 따라 문화생활에 대한 여성들의 욕구도 증가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여성의 문화활동도 남성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농촌여성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역 중심의 문화활동 확충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 추진방안

- 군 단위에 여성 중심의 활동 공간 마련
  - 기존의 여성회관을 「여성문화학교」로 지정하여 확대·운영한다.
- 농촌여성이 주체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을 위한 문화활동들은 일회적 사업과 이벤트 행사의 성격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여성 자신이 주체가 되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 농가 주부들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위한 교육 마련
  - 소모임 중심의 자체 문화활동 활성화를 통해 도·농간의 단체간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교류의 기회를 마련한다.

(2) 여성단체의 활성화 및 지원

□ 필요성

급변하는 농촌사회에서 농촌여성의 힘의 확대, 지역사회의 각종 문제 해결에서 여성과 여성단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농촌지역 여성단체는 부녀회, 생활개선회,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산하 시·군·면 조직, 한국여성농업인 중앙연합회, 농가주부모임 전국연합회 등이 대표적인 것들로 각각 조직의 목적과 사업을 통해 활동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도 여성응답자의 51.7%가 부녀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성단체는 많으나 회원일반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고, 조직의 목표와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하는 등 많은 장애 요인이 있다.

이러한 기존의 다양한 단체들의 역할 분담과 연대를 통해 여성조직의 강화와 여성단체를 세력화하고 여성 전문 인력과 여성지도자의 양성 평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 추진방안

- 농촌의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정부는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한다.
  - 농촌여성단체의 차세대 지도자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분야별로 개발·실시한다.
- 여성단체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연대 강화
  - 기존의 여성조직이 농촌 여성·여성농업인이 한 산업을 움직이는 중요한 집단이라는 점을 표명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가 압력을 행사하는 등 자발적 참여 방안을 모색한다.
  - 각각의 목적과 사업의 특징을 기지고 있는 여성단체를 세력화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 협의체를 구성한다.

(3) 농촌지역 소모임 활성화를 통한 양성평등의식 고양

□ 필요성

우리 나라 농업·농촌의 변화로 인한 위기 속에서 최대의 불이익을 경험하는 집단은 노동과 생활의 일선에 있는 농촌 여성·여성농업인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농촌여성의 현실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극심한 소외와 과중한 노동의 현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도 농촌의 남성중심적 의식과 성차별적 문화에 대해 여성과 40대 이하에서 심각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다.

뿌리 깊은 가부장제 문화는 여성의 현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양성평등의식의 확산은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인간화를 실현하는 관건이 된다.

농촌의 양성평등 문화의 정착을 위해 기존의 각종 소모임을 활용하여 양성평등 의식 확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추진방안

- 지역의 여성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양성평등의식 확산



- 기존의 여성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양성평등의식을 고양한다.
- 다양한 풀뿌리 자생모임을 파악하여, 기존의 소모임과 새로운 소모임을 연계시킨다.

○ 농촌여성의 의식 고양 프로그램 개발

- 농촌여성들이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고, 자신들이 느끼는 자기비하나 정체성 상실을 극복할 수 있는 의식 고양 프로그램 개발한다.

## 마. 농촌지역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평등가정의 구현

### (1) 농촌의 양성 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여건 조성

#### □ 필요성

농촌사회는 전통적 생활문화와 관습에 따른 전통적 성역할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농촌여성의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저해하는 본질적 문제이다.

본 조사에서는 농촌여성이 남성보다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양성평등 실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실현한다.

#### □ 추진방안

- 농촌의 양성 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확충 및 운영
  - 농업인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한다.
- 농촌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및 강좌에 양성 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의무화한다.
  - 영농교육시 양성평등 의식교육을 교육점수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2)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활성화

### □ 필요성

농촌 지역사회와 가정을 민주적으로 이끌어 가는 양성평등의식은 농촌사회의 남성중심적이고 여성비하적 문화를 개선하고, 농촌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본질적 문제이다.

양성평등 의식 개선을 위한 의식교육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각종 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 추진방안

- 농촌형 양성평등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 양성평등의식 교육은 “부부공동교육”등 남녀통합교육이 효율적일 수 있다.
  - 모든 농촌지역의 남성대상 영농교육에 양성평등의식 교육을 의무화한다.
- 양성평등의식교육 프로그램 개발
  - 남성과 고령 대상의 의식교육 프로그램과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개발한다.
- 농촌지역의 양성평등의식 교육 담당 교·강사의 양성
  -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 강사를 발굴하고 강사은행을 구축·운영한다.

## (3) 평등부부 발굴

### □ 필요성

무엇보다도 농촌에 뿌리깊게 남아있는 남성 중심적 관습과 가족관계, 성차별적 지역문화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여성농업인의 농업참여는 가족원으로서의 부수적 역할이라는 제한된 평가에서 벗어나 여성농업인을 공동경영자로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정책적 차원에서 배려되어야 한다.

각종 통계 자료에서도 여전히 남성에 비해 질이 낮은 노동력으로서

평가되고 있고, 농촌 여성·여성농업인 가사노동 등에서 생산하는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에서 가족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대등한 인간 관계, 합리적 역할 분담 등을 통한 평등한 가족관계의 정립이 기본이다.

□ 추진방안

○ 양성평등 사례발굴 및 홍보

· 농촌지역의 남녀평등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평등부부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 평가에 대한 인식 제고

· 여성의 가사 노동등에서 생산하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화폐로 환산하고자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농촌의 가사노동은 도시와 달리 농업생산 노동과 지역사회 관계맺기 등과 밀접하게 연결됨에 따라서 화폐로 환산되는 것 이상의 공동체 문화에 기여하는 가치의 전제를 인식하여야 한다.

(4) 대중매체에서 농촌의 균형적 여성 묘사의 증진

□ 필요성

농촌사회의 성차별적 문화와 전통적 관습이 구조적으로 뿌리 깊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대중매체에서 그려지는 농촌사회, 농촌여성의 삶의 모습이 양성평등의식의 확산에 기여 할 수 있다 .

TV등 대중매체에서 자연스럽게 전달되고 있는 여성 차별적 이미지 개선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농촌 드라마, 농촌관련 프로그램 등에서 농촌의 균형적 여성 묘사의 증진이 요청된다.

□ 추진방안

○ 농촌여성의 성차별적 이미지 개선

· 적극적 농촌여성·여성농업인상을 발굴하여 홍보한다,

- 농민신문 등 농업·농촌과 관련된 대중매체들에 양성평등사례, 평등부부의 성공사례 등을 기고하는 고정컬럼을 확보한다.
- 농촌사회 양성 평등 실현을 위한 대안적 매체개발
  - 대중매체의 농촌여성상에 대한 연구를 촉구한다.
  - 농촌드라마의 내용 중 일정 편수를 양성평등 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제작한다.
  - 농업·농촌에서 남녀 농업인이 화합과 평등아래 21세기 농업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내용 등의 영화를 제작하여 홍보한다.

<표 V-1> 추진별 정책방안

정책분야	정책방안	추진부처 및 기관
가.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	농업경영의 공동경영자로서의 지위 부여	농림부,농협
	여성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산기반 정비	농림부,농업진흥청,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농촌여성 후계 인력화를 위한 여건 조성	농림부,대학,농업기술원,지방자치단체
	여성 농업 전문 경영인 육성	농림부,지방자치단체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령의 정비	농림부,지방자치단체
	「여성농업인상」 제정 및 수여	농림부,여성농업인단체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주류화를 위한 정책개발	농림부,농협,지방자치단체
나.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을 통한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농촌여성·여성농업인 직업능력 개발 강화	농협,각급학교,농촌진흥청
	농외소득을 위한 여성 취업 교육 실시	농업진흥청,농업기술원
	대상집단별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농업진흥청,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농협
	농촌여성의 정보 문해 교육 실시	농림부,교육부,정보통신부
다.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복지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을 위한 영농지원 체제의 정비	농림부,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농촌 노인 여성의 복지정책 강화	농림부,보건복지부
	자녀의 교육 및 보육 서비스 확충	교육부,지방자치단체,보건복지부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보호소 마련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라. 농촌여성·여성농업인의 문화·지역사회활동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농촌 여성의 문화활동 확충	지방자치단체
	여성단체의 활성화 및 지원	농림부,여성농업인단체,지방자치단체
	농촌지역 소모임 활성화를 통한 양성평등의식 고양	농림부,NGO
마. 농촌지역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평등가정의 구현	농촌의 양성 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여건 조성	농림부,교육부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활성화	농림부,농업진흥청,농협
	평등부부 발굴	농림부,여성특별위원회
	대중매체에서 농촌의 균형적 여성 묘사의 증진	농림부,여성특별위원회

## 참고문헌

- 경북여성농업인회연합(2000), 「경북지역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1999), 「교육통계연보」
- 권영자 외(1987), 「농촌여성의 노동실태에 관한 연구-농촌주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
- 김경덕(1998), 「농업인력의 현황 분석과 증장기 수급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성훈 편저(1995), 「WTO와 한국농업」, 비봉출판사
- 김주숙(1982), “농촌여성의 농업생산참여의 실태와 문제점.” 농촌경제 5(2)
- \_\_\_\_\_ (1988), 「여성농민의 지위와 역할」, 한국농업·농민문제연구
- \_\_\_\_\_ (1994), 「한국농촌의 여성과 가족」, 한울아카데미
- \_\_\_\_\_ (1996), “농촌여성 문제와 정책과제, 21세기를 향한 농업인의 역할.” 「21세기를 향한 농업인의 역할」, 제1회 ‘농업인의 날 기념.’ 기념 국제학술대회 기념논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_\_\_\_\_ (1998), “한국농촌사회의 구조변화와 여성의 역할-제3차 후속조사 연구”. 대산논총 제6집
- 농림부(1999), 2000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1, 2, 3, 4, 5권
- 농림부(1999), 「여성농업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목포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 농림부(1999a),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한얼
- 농림부(1999b), 「농가도우미제도 도입방안 연구」, 농촌경제연구원
- 농림부(2000),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 한국여성개발원
- 문정주(1997), 「회원통신」 통권 제5호(97/1월), 한국여성농민연구소
- 박민선(1999), “EC 회원국의 여성농업인 정책”, 농촌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 방안 심포지엄, 한국농촌생활 과학회 농촌생활연구소
- 심순자(1995), “한국농촌여성조직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원(1988), “농촌노동력의 노령화, 부녀화에 따른 농촌보건의료의 현황과 문제점”, 「농촌경제」, 제 11권, 제 2호
- 이효재(1997),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여성의 역할.”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 정명채 외(1995), 「한국 농촌 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1985~2005) 제 10년차 조사결과 종합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해경(2000), “농촌여성, 그들의 당당한 삶에서 배운다”, 「충남여성」, 제 4호
- 조옥라(1992), “농민가족과 도시빈민가족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문화인류학」 24, 한국문화인류학회
- 최은숙(1988), “한국 농촌여성의 역할과 지위의 변화.”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0권 2호.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2000), 「농촌여성 건강증진 워크샵 보고서」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2000), 「농촌여성 복지증진을 위한 워크샵」
- 한국여성개발원(1997), 「개방 농정체제에서 여성의 농업참여에 관한 연구」
- 김종숙, 정명채(1992), 「농촌여성의 의식변화와 역할에 관한 연구- 충남 지역 4개 마을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여성개발원(1999a), 「21C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한 정책연구」
- 한국여성개발원(1999b), 「농촌여성의 조직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여성개발원(1987), 『농촌 여성의 건강 실태에 관한 연구』
- 한국여성농민연구소(1997). 「21세기 한국농업과 여성농민」. 2회 농업인의 날 기념 여성농업인 심포지엄 자료
- 함태홍(1986), “한국농촌에 있어서의 여성조직과 그 활동에 관한 연구-해제면 새마을 부녀회 활동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lston, Margaret(1995), "Women and Their Work in Australian Farms." *Rural Sociology* 60(3) : 521-532
- Dixson, Ruth B.(1982), "Women in Agriculture : Counting the Labor

- Force in Developing Counti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8. No. 3 : 539-565
- Elson, Diane(1991), "Structural adjustment : its effect on women," in Wallace, Tina & March Candida(eds. 1991) *Changing Perceptions*:
- Haugen, Marits(1990), "Female Farmers in Norwegian Agriculture : From Traditional Women to Professional Farmers." *Sociologia Ruralis*. Vol. XXX-2 : 197-209. *Writings on Gender and Development*, Oxford: Oxfam.
- \_\_\_\_\_(1994), "Rural Women's Status in Family and Property Law : Lessons from Norway." In Chamman., P. & Lloyd, D (eds.).
- Jacoby, Hanan G.(1992), "Productivity of men women and the sexual division of labor in peasant agriculture of the Peruvian Sierra."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37. No. 1&2 :265-287
- Quisumbing, Agnes R.(1996), " Male-Female Differences in Agricultural Productivity : Methodological Issues and Empirical Evidence." *World Development*. 24 : 1579-1595.
- Poats, Susan V., Schmink, Marianne & Spring, Anita (eds.)(1988) "Gender Issues", in *Farming Systems Research and Extension*,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 Video Tape, MBC 전원일기, 934회, 944회, 946회, 956회, 961회, 977회, 980회, 981회



## [부록 1]

<부표1> 응답자의 특성

구	분	응답자수(명)	구성비(%)
나이	20대	14	2.3
	30대	69	11.6
	40대	133	22.3
	50대	238	39.9
	60대	106	17.8
	70대이상	36	6.0
	합계	596	100.0
성별	남자	298	50.0
	여자	298	50.0
	합계	596	100.0
혼인상태	미혼	22	3.7
	유배우	527	88.6
	이혼, 사별, 별거	46	7.7
	합계	595	100.0
학력	무학	61	10.3
	초등중퇴 및 초등 졸업	268	45.2
	중학중퇴 및 중학 졸업	104	17.5
	고등중퇴 및 고등 졸업	146	24.6
	대학교	13	2.2
	기타	1	.2
	합계	593	100.0

<부표2> 가족구성의 형태별 특성

구	분	응답자수(명)	구성비(%)
가족수	1인	29	4.9
	2인	175	29.5
	3인	107	18.0
	4인	84	14.1
	5인	91	15.3
	6인	57	9.6
	7인	41	6.9
	8인	7	1.2
	9인	3	.5
	합계	594	100.0
가족주기	결혼 전	17	2.9
	첫 자녀 출산 전	7	1.2
	막내 자녀 취학 전	43	7.2
	막내 자녀 출가 전	406	68.2
	막내 자녀 출가 후	116	19.5
	기타	4	.7
	무응답	2	.3
	합계	595	100.0
가족형태	부부만 사는 가족	171	28.7
	부부와 미혼자녀 가족	232	39.0
	조부모와 손자녀 세대가족	25	4.2
	노부모와 부부와 자녀	97	16.3
	부모와 기혼자녀가족	36	6.1
	혼자사는 가족	28	4.7
	기타	6	1.0
	합계	595	100.0

<부표3> 농외 소득 유무

구 분		응답자수(명)	구성비(%)
농사 이외의 부업	없다	495	81.6
	있다	101	18.4
	합계	596	100.0

<부표4> 농업종사 경력 및 가족종사자 수

		응답자수(명)	빈도수(%)
농업종사 경력	1-5년	60	10.1
	6-10년	53	8.9
	11-15년	38	6.4
	16-20년	73	12.3
	21-30년	151	25.5
	31-40년	131	22.1
	40년 이상	87	14.7
	합계	593	100.0
농사에 참여하는 가족수	없다	4	.7
	1명	49	8.2
	2명	440	73.8
	3명	70	11.7
	4명	24	4.0
	5명	6	1.0
	6명	1	.2
	7명	2	.3
	합계	596	100.0

<부표5> 농사규모

구 분		응답자수(명)	빈도수(%)
논농사 규모	없다	67	11.2
	1-500평	35	5.9
	501-1000평	116	19.5
	1001-1500평	75	12.6
	1501-2000평	92	15.4
	2001-3000평	86	14.4
	3001-4000평	34	5.7
	4001-5000평	28	4.7
	5001 이상	63	10.6
	합계	596	100.0
밭농사 규모	없다	203	34.1
	1-500평	147	24.7
	501-1000평	117	19.6
	1001-1500평	29	4.9
	1501-2000평	43	7.2
	2001-4000평	32	5.4
	4001평 이상	25	4.2
	합계	596	100.0
과수원 규모	없다	467	78.4
	1-500평	16	2.7
	501-1000평	35	5.9
	1001-1500평	11	1.8
	1501-2000평	30	5.0
	2001-4000평	31	5.2
	4001평 이상	6	1.0
	합계	596	100.0

<부표6> 농기계 사용경험

단위 : 명(%)

		있다	없다.	$\chi^2$
성별	남	232(78.9)	62(21.1)	292.564**
	여	27(9.1)	270(90.9)	
	합계	259(43.8)	332(56.2)	
연령	30대이하	36(43.9)	46(56.1)	1.157
	40대	63(47.7)	69(52.3)	
	50대	100(42.0)	138(58.0)	
	60대이상	60(43.2)	79(56.8)	
	합계	259(43.8)	332(56.2)	

\*\* p<.001

<부표7> 직접 농기계를 다루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기계가 없어서	기계를 사용할 줄 몰라서	다루기가 힘들어서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기타	$\chi^2$
성별	남	25(35.7)	12(17.1)	7(10.0)	20(28.6)	6(8.6)	26.031**
	여	33(12.3)	70(26.0)	26(9.7)	128(47.6)	12(4.5)	
	합계	58(17.1)	82(24.2)	33(9.7)	148(43.7)	18(5.3)	
연령	30대이하	8(16.3)	11(22.4)	1(2.0)	25(51.0)	4(8.2)	11.170
	40대	11(16.2)	15(22.1)	5(7.4)	34(50.0)	3(4.4)	
	50대	26(18.6)	31(22.1)	16(11.4)	61(43.6)	6(4.3)	
	60대이상	13(15.9)	25(30.5)	11(13.4)	28(34.1)	5(6.1)	
	합계	58(17.1)	82(24.2)	33(9.7)	148(43.7)	18(5.3)	

\*\* p<.001

<부표8> 농기계 사용을 위한 교육 여부 및 유용도

		빈도	유효 퍼센트
농기계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 여부	있다	123	21.1
	없다	460	78.9
	합계	583	100.0
		빈도	유효 퍼센트
농기계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도움을 주었는가 여부	많은 도움이 되었다	74	58.7
	약간 도움이 되었다	39	31.0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10	7.9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3	2.4
	합계	126	100.0

<부표9> 농기계 사용방법을 교육받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교육실시된적이 없어서	기회가 주어진적이 없어서	정보를 알지 못해서	시간이 없어서	교육받을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기타	$\chi^2$
성별	남	24(13.0)	22(12.0)	9(4.9)	9(4.9)	112(60.9)	8(4.3)	7.320
	여	49(17.7)	36(13.0)	5(1.8)	8(2.9)	161(58.1)	18(6.5)	
	합계	73(15.8)	58(12.6)	14(3.0)	17(3.7)	273(59.2)	26(5.6)	
연령	30대이하	16(25.0)	7(10.9)	1(1.6)	1(1.6)	35(54.7)	4(6.3)	15.177
	40대	16(16.2)	12(12.1)	2(2.0)	4(4.0)	61(61.6)	4(4.0)	
	50대	24(12.5)	30(15.6)	8(4.2)	10(5.2)	111(57.8)	9(4.7)	
	60대이상	17(16.0)	9(8.5)	3(2.8)	2(1.8)	66(62.3)	9(8.5)	
	합계	73(15.8)	58(12.6)	14(3.0)	17(3.7)	273(59.2)	26(5.6)	

<부표10> 논이나 밭의 매매

단위 : 명(%)

		거의 남자가 결정	남자가 주로 하고 여자와 상의해서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	여자가 주로 하고 남자와 상의해서	거의 여자혼자서 결정	기타	$\chi^2$
성별	남	102(34.5)	127(42.9)	55(18.6)	4(1.4)	1(0.3)	7(2.4)	42.654**
	여	67(22.6)	117(39.5)	64(21.6)	3(1.0)	37(12.5)	8(2.7)	
	합계	169(28.5)	244(41.2)	119(20.1)	7(1.2)	38(6.4)	15(2.5)	
연령	30대이하	36(43.4)	30(36.1)	9(10.8)	2(2.4)	3(3.6)	3(3.6)	38.892**
	40대	35(26.7)	49(37.4)	33(25.2)	3(2.3)	6(4.6)	5(3.8)	
	50대	47(19.9)	104(44.1)	60(25.4)	1(0.4)	19(8.1)	5(2.1)	
	60대이상	51(35.9)	61(43.0)	17(12.0)	1(0.7)	10(7.0)	2(1.4)	
	합계	169(28.5)	244(41.2)	119(20.1)	7(1.2)	38(6.4)	15(2.5)	

\*\* p<.001

<부표11> 논이나 밭의 임대차

단위 : 명(%)

		거의 남자가 결정	남자가 주로 하고 여자와 상의해서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	여자가 주로 하고 남자와 상의해서	거의 여자혼자서 결정	기타	$\chi^2$
성별	남	101(34.2)	126(42.7)	52(17.6)	3(1.0)	2(0.7)	11(3.7)	37.874**
	여	73(24.6)	115(38.7)	57(19.2)	2(0.7)	38(12.8)	12(4.0)	
	합계	174(29.4)	241(40.7)	109(18.4)	5(0.8)	40(6.8)	23(3.9)	
연령	30대이하	37(44.6)	27(32.5)	8(9.6)	2(2.4)	4(4.8)	5(6.0)	37.464**
	40대	36(27.3)	55(41.7)	32(24.2)	1(0.8)	6(4.5)	2(1.5)	
	50대	50(21.3)	100(42.6)	54(23.0)	1(0.4)	19(8.1)	11(4.7)	
	60대이상	51(35.9)	59(41.5)	15(10.6)	1(0.7)	11(7.7)	5(3.5)	
	합계	174(29.4)	241(40.7)	109(18.4)	5(0.8)	40(6.8)	23(3.9)	

\*\* p<.001

<부표12> 비료, 농약의 구입

단위 : 명(%)

		거의 남자가 결정	남자가 주로 하고 여자와 상의해서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	여자가 주로 하고 남자와 상의해서	거의 여자혼자서 결정	기타	$\chi^2$
성별	남	199(67.0)	67(22.6)	23(7.7)	2(0.7)	3(1.0)	3(1.0)	37.692**
	여	166(56.1)	59(19.9)	26(8.8)	3(1.0)	41(13.9)	1(0.3)	
	합계	365(61.6)	126(21.2)	49(8.3)	5(0.8)	44(7.4)	4(0.7)	
연령	30대이하	56(67.5)	15(18.1)	6(7.2)	1(1.2)	4(4.8)	1(1.2)	12.686
	40대	88(66.7)	24(18.2)	11(8.3)	1(0.8)	7(5.3)	1(0.8)	
	50대	135(57.2)	53(22.5)	25(10.6)	2(0.8)	21(8.9)	-	
	60대이상	86(60.6)	34(23.9)	7(4.9)	1(0.7)	12(8.5)	2(1.4)	
	합계	365(61.6)	126(21.2)	49(8.3)	5(0.8)	44(7.4)	4(0.7)	

\*\* p<.001

<부표13> 농기계, 농기구 구입

단위 : 명(%)

		거의 남자가 결정	남자가 주로 하고 여자와 상의해서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	여자가 주로 하고 남자와 상의해서	거의 여자혼자서 결정	기타
성별	남	176(59.3)	89(30.0)	25(8.4)	2(7)	1(3)	4(1.3)
	여	140(47.1)	81(27.3)	28(9.4)	2(7)	36(12.1)	10(3.4)
	합계	316(53.2)	170(28.6)	53(8.9)	4(7)	37(6.2)	14(2.4)
연령	30대이하	54(65.1)	20(24.1)	2(2.4)	1(1.2)	3(3.6)	3(3.6)
	40대	75(56.8)	35(26.5)	15(11.4)	-	5(3.8)	2(1.5)
	50대	113(47.7)	69(29.1)	28(11.8)	2(8)	18(7.6)	7(3.0)
	60대이상	74(52.1)	46(32.4)	8(5.6)	1(7)	11(7.7)	2(1.4)
	합계	316(53.2)	170(28.6)	53(8.9)	4(7)	37(6.2)	14(2.4)



<부표14> 영농자금 대부

단위 : 명(%)

		거의 남자가 결정	남자가 주로 하고 여자와 상의해서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	여자가 주로 하고 남자와 상의해서	거의 여자혼자서 결정	기타
성별	남	125(42.10)	111(37.4)	47(15.8)	2(.7)	2(.7)	10(3.4)
	여	91(30.7)	99(33.4)	59(19.9)	2(.7)	35(11.8)	10(3.4)
	합계	216(36.4)	210(35.4)	106(17.9)	4(.7)	37(6.2)	20(3.4)
연령	30대이하	40(48.8)	28(34.1)	7(8.5)	1(1.2)	4(4.9)	2(2.4)
	40대	41(31.1)	52(39.4)	30(22.7)	-	5(3.8)	4(3.0)
	50대	78(32.9)	73(30.8)	53(22.4)	2(.8)	18(7.6)	13(5.5)
	60대이상	57(40.1)	57(40.1)	16(11.3)	1(.7)	10(7.0)	1(.7)
	합계	216(36.4)	210(35.4)	106(17.9)	4(.7)	37(6.2)	20(3.4)

<부표15> 농사일정 결정

단위 : 명(%)

		거의 남자가 결정	남자가 주로 하고 여자와 상의해서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	여자가 주로 하고 남자와 상의해서	거의 여자혼자서 결정	기타	$\chi^2$
성별	남	141(47.5)	114(38.4)	34(11.4)	5(1.7)	1(0.3)	2(0.7)	46.345
	여	106(35.7)	100(33.7)	47(15.8)	2(0.7)	40(13.5)	2(0.7)	
	합계	247(41.6)	214(36.0)	81(13.6)	7(1.2)	41(6.9)	4(0.7)	
연령	30대이하	43(51.8)	26(31.3)	7(8.4)	2(2.4)	3(3.6)	2(2.4)	25.487*
	40대	55(41.7)	48(36.4)	23(17.4)	-	6(4.5)	-	
	50대	82(34.6)	91(38.4)	39(16.5)	3(1.3)	21(8.9)	1(0.4)	
	60대이상	67(47.2)	49(34.5)	12(8.5)	2(1.4)	11(7.7)	1(0.7)	
	합계	247(41.6)	214(36.0)	81(13.6)	7(1.2)	41(6.9)	4(0.7)	

\* p<.05

<부표16> 품 사기

단위 : 명(%)

		거의 남자가 결정	남자가 주로 하고 여자와 상의해서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	여자가 주로 하고 남자와 상의해서	거의 여자혼자서 결정	기타	$\chi^2$
성별	남	107(36.0)	114(38.4)	47(15.8)	14(4.7)	10(3.4)	5(1.7)	30.516**
	여	76(25.6)	94(31.6)	52(17.5)	25(8.4)	41(13.8)	9(3.0)	
	합계	183(30.8)	208(35.0)	99(16.7)	39(6.6)	51(8.6)	14(2.4)	
연령	30대이하	38(45.8)	25(30.1)	9(10.8)	5(6.0)	4(4.8)	2(2.4)	39.272**
	40대	30(22.7)	52(39.4)	31(23.5)	8(6.1)	7(5.3)	4(3.0)	
	50대	56(23.6)	83(35.0)	46(19.4)	19(8.0)	(26)11.0	(7)3.0	
	60대이상	59(41.5)	48(33.8)	13(9.2)	7(4.9)	14(9.9)	1(0.7)	
	합계	59(41.5)	48(33.8)	13(9.2)	7(4.9)	14(9.9)	1(0.7)	

\*\* p<.001

<부표17> 판매금의 용도 결정

단위 : 명(%)

		거의 남자가 결정	남자가 주로 하고 여자와 상의해서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	여자가 주로 하고 남자와 상의해서	거의 여자혼자서 결정	기타	$\chi^2$
성별	남	96(32.2)	112(37.6)	80(26.8)	5(1.7)	3(1.0)	2(0.7)	43.509**
	여	59(20.1)	109(37.1)	77(26.2)	3(1.0)	41(13.9)	5(1.7)	
	합계	155(26.2)	221(37.3)	157(26.5)	8(1.4)	44(7.4)	7(1.2)	
연령	30대이하	34(41.5)	29(35.4)	8(9.8)	3(3.7)	5(6.1)	3(3.7)	48.952**
	40대	26(19.7)	58(43.9)	40(30.3)	2(1.5)	6(4.5)	-	
	50대	49(20.8)	79(33.5)	82(34.7)	1(0.4)	22(9.3)	3(1.3)	
	60대이상	46(32.4)	55(38.7)	27(19.0)	2(1.4)	11(7.7)	1(0.7)	
	합계	155(26.2)	221(37.3)	157(26.5)	8(1.4)	44(7.4)	7(1.2)	

\*\* p<.001

<부표18> 남성의 가사분담 정도

		빈도	유효 퍼센트
남성의 가사 분담	많이 도와준다	126	21.4
	조금 도와준다	166	28.2
	거의 도와주지 않는다	98	16.6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	146	24.8
	남편이 없다	34	5.8
	해당없음	19	3.2
	합계	589	100.0

<부표19> 자녀양육 형태

		빈도	유효 퍼센트
취학 전 어린이 여부	있다	53	9.0
	없다	536	91.0
	합계	589	100.0
농사일을 할 때 아이를 돌보는 형태	배우자	5	8.5
	놀이방이나 어린이집	24	40.7
	시부모	16	27.1
	친척부모	1	1.7
	큰자녀	4	6.8
	혼자 내버려둔다	6	10.2
	기타	3	5.1
	합계	59	100.0
놀이방 이용 경험	있다	111	20.5
	없다	423	78.2
	아이가 없다	7	1.3
	합계	541	100.0

<부표20> 남편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단위 : 명(%)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지 못했다고 했을때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했을때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했을때	사회물정, 시사상식을 모른다고 했을때	다른 여자와 외모를 비교할때	의사결정 에서 제외시킬 때	농사일 집안일을 못한다고 했을때	기타	$\chi^2$
성 별	남	-	2 (25.0)	2 (25.0)	1 (12.5)	-	-	1 (12.5)	2 (25.0)	21.034**
	여	29 (11.2)	11 (4.3)	7 (2.7)	28 (10.9)	5 (1.9)	46 (17.8)	37 (14.3)	95 (36.8)	
	합계	29 (10.9)	13 (4.9)	9 (3.4)	29 (10.9)	5 (1.9)	46 (17.3)	38 (14.3)	97 (36.5)	
연 령	30대이하	3 (6.8)	2 (4.5)	3 (6.8)	7 (15.9)	-	7 (15.9)	3 (6.8)	19 (43.2)	37.976*
	40대	14 (20.6)	3 (4.4)	1 (1.5)	7 (10.3)	2 (2.9)	18 (26.5)	12 (17.6)	11 (16.2)	
	50대	7 (6.7)	4 (3.8)	5 (4.8)	10 (9.5)	3 (2.9)	17 (16.2)	17 (16.2)	42 (40.0)	
	60대이상	5 (10.2)	4 (8.2)	-	5 (10.2)	-	4 (8.2)	6 (12.2)	25 (51.0)	
	합계	29 (10.9)	13 (4.9)	9 (3.4)	29 (10.9)	5 (1.9)	46 (17.3)	38 (14.3)	97 (36.5)	

<부표21> 컴퓨터 보유 여부 및 활용 실태

		빈도	유효 퍼센트
컴퓨터 보유 여부	있다	211	35.9
	없다	377	64.1
	합계	588	100.0
컴퓨터 주 사용자	자녀	169	79.7
	남편	14	6.6
	아내	0	.0
	가족모두 똑같이	18	8.5
	아무도 사용않음	4	1.9
	기타	7	3.3
	합계	212	100.0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무시 경험	있다	3	18.8
	없다	13	81.3
	합계	16	100.0

<부표22> 성별·연령별 컴퓨터 사용가능 여부

	30대이하		40대		50대		60대이상		남		녀		계	
	N	%	N	%	N	%	N	%	N	%	N	%	N	%
가능	39	49.4	31	23.5	13	5.5	3	2.1	51	17.5	35	11.9	86	14.7
불가능	40	50.6	101	76.5	222	94.5	137	97.9	241	82.5	259	88.1	500	85.3
합계	79	100.0	132	100.0	235	100.0	140	100.0	292	100.0	294	100.0	586	100.0

<부표23> 컴퓨터 용도

		빈도			퍼센트		
		남	녀	계	남	녀	계
컴퓨터의 용도	pc통신	5	0	5	9.6	0.0	5.7
	e-mail 수신	8	0	8	15.4	0.0	9.1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검색	25	13	38	48.1	36.1	43.2
	전자상거래	5	0	5	9.6	0.0	5.7
	온라인강의	0	0	0	0.0	0.0	0.0
	채팅	2	1	3	3.8	2.8	3.4
	문서작성	22	14	36	42.3	38.9	40.9
	게임	29	16	45	55.8	44.4	51.1
	홈뱅킹	0	0	0	0.0	0.0	0.0
	기타	0	2	2	0.0	5.6	2.3
	합계	96	46	142	59.1	40.9	100.0

\*복수응답 항목임.

<부표24> 부녀회의 희망 활동분야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부녀회의 희망 활동분야	성폭력, 가정폭력 감시 및 예방	42	10.2
	환경지킴	59	14.3
	지역사회봉사	178	43.2
	컴퓨터교육	58	14.1
	기타	75	18.2
	합계	412	100.0

\*복수응답 항목임.

<부표25> 부녀회 이외의 공동모임 현황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부녀회 이외의 공동모임 현황	농협주부대학	8	10.7
	농협 주부모임	4	5.3
	생활개선회	11	14.7
	여성농민회	1	1.3
	여성 농업인회	4	5.3
	계	43	57.3
	기타	4	5.3
	합계	75	100.0

\*복수응답 항목임.

<부표26> 부락회의 참여 형태

		남		여		전체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부락회의 주 참여자	무응답	2	.7	0	.0	2	.3
	(시) 아버지	11	3.7	5	1.7	16	2.7
	(시) 어머니	6	2.0	5	1.7	11	1.8
	남편	67	22.5	185	62.1	252	42.3
	아내	18	6.0	12	4.0	30	5.0
	아들	2	.7	2	.7	4	.7
	본인	150	50.3	47	15.8	197	33.1
	부부동반	27	9.1	24	8.1	51	8.6
	기타	15	5.0	18	6.0	33	5.5
	합계	298	100.0	298	100.0	596	100.0

<부표27> 현재생활 만족도

		빈도	유효 퍼센트
현재생활 만족도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15	2.5
	대체로 만족스럽지 않다	115	19.3
	그저 그렇다	236	39.7
	대체로 만족스럽다	212	35.6
	매우 만족스럽다	17	2.9
	합계	595	100.0

<부표28> 농촌지역 여성 취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교육 및 기술훈련

연번	내 용
1	컴퓨터 교육
2	요리·미용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는 기술교육
3	기업체(생산업체) 생산내용 및 세부분야 기술
4	컴퓨터, 조리
5	조리사 교육
6	조리사 교육(한식, 양식), 컴퓨터, 미용사반
7	컴퓨터 관련 자격증
8	컴퓨터, 조리사 등 자격증 취득 교육
9	정보화 교육, 컴퓨터 활용
10	-
11	컴퓨터, 미용, 조리 등
12	훈련이전에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함(수요처 부족)
13	미용, 조리사
14	컴퓨터 교육 및 취업을 위한 직종의 전문지식 및 기술
15	인성교육, 컴퓨터
16	취업을 위한 자격증 교육
17	미용, 컴퓨터
18	부업을 위한 기술교육(양재, 홈패션, 미용기술, 운전면허, 요리 등)
19	농업과 관련된 농업기술
20	전산교육
21	프로그램의 다양화
22	컴퓨터
23	조리사, 컴퓨터
24	여성근로자로서의 자긍심, 농촌지역의 취업처 부재, PC교육이 가장 필요
25	다양한 프로그램(옷봉양재, 생활한복, 제빵기술)등을 요하고 있으나 사실상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강사 선정에도 애로가 많음
26	-
27	컴퓨터 교육
28	정보화 교육, 식품 개발
29	농촌의 인력의 노령화로 취업에 어려움이 있음, 간단한 생활개선이나 부업정도의 교육기관 필요
30	농촌지역이라 학원이 부족하여 자격증 취득에 어려움이 있음
31	한글, 인터넷 등 컴퓨터 전반
32	농촌지역이라 취업교육을 받아도 취직이 어려운 실정임
33	양재(옷수선 등), 미용, 조리
34	미용, 교양강좌, 일회성 교육을 선호함, 특별한 취업처가 없어 기술훈련은 별로 선호하지 않음
35	미용, 재과 제빵, 한식 조리
36	컴퓨터, 미용, 조리
37	컴퓨터 교육
38	조리, 양재
39	경영 컨설턴트
40	취업을 위한 기능자격증 교육을 위한 요리, 미용
41	기술 습득교육, 자격증 취득을 위한 미용, 요리, 재과·제빵 교육

\* 연번(1~41)은 편의상 군부 조사대상 지역을 표시한 것임.



<부표29>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 피해자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연번	내 용
1	가정폭력 상담소를 통한 대처 능력 및 법률·의학적 정보 제공,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강구
2	쉼터
3	홀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과 격리수용(자녀와 함께)
4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쉼터 및 대변인(변호사, 경찰 등)
5	사전 정보와 지식, 신고정신 결여
6	격리
7	-
8	독립할 수 있는 여건 배려
9	법적 대처 행위의 당위성 인식제고 및 피난처
10	심적 안정과 육체적 안정
11	격리시설(피난처, 쉼터)
12	가해자로부터의 독립, 가해자의 의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13	쉼터
14	보호시설 입소
15	정신적 치료, 편안한 안식처
16	쉼터, 일시 보호 시설
17	쉼터
18	임시적 피난처
19	상담실, 쉼터
20	상담, 피난처
21	일시적 보호소
22	신고에서 보호 체계적 제도 구축
23	군 단위마다 여성 쉼터 마련을 위한 물질적 지원
24	일시보호
25	재발 방지를 위한 자기 보호의식, 대처방법
26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법의 보호를 받게되면 가정과 결별을 해야한다는 인식으로 법에 호소를 하지 않고 있음, 자유롭게 일정기간을 쉴 수 있는 공간을 권역별로 제공하고 남성을 교육할 수 있는 기관 마련
27	부부 동시 정신적 치료와 지지를 위한 교육
28	쉼터
29	의식(대처요령 등) 교육, 자립심 배양, 무력감 해소, 직업 기술 교육
30	피해여성의 보호 및 지원
31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법률 상담기관과 일시 보호소 및 임시 생활비 지원
32	의식 교육, 쉼터
33	상담기관 및 피해자 입소 시설
34	격리(접근금지)
35	일시 보호 시설 운영
36	여성에 대한 편견(여성이 맞을 짓을 했다는 식의 의견) 타파
37	정신적 안정을 위해 쉴 곳→남편에게 통보후 물래가 아닌 당당한 방법으로
38	양성평등 및 의식개선을 위한 의식교육
39	긴급 피난처 및 보호시설(전문 상담시설),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40	쉼터(은신처)
41	-

\* 연번(1~41)은 편의상 군부 조사대상 지역을 표시한 것임.

## [부록 2] 농촌형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

<부표30> 「농촌형 양성평등 교육모형」 교육일정

첫째날		
시 간	소요시간	주 제
14:00~14:20	20분	등록 및 교육안내
14:20~14:30	10분	환영인사
14:30~14:50	20분	방배정 및 숙소 안내
15:00~16:30	90분	두레만들기
16:30~17:30	60분	한국 농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
17:30~18:20	50분	저녁식사
18:30~21:00	150분	평등한 부부
21:00~22:00	60분	하나된 마음으로
둘째날		
시 간	소요시간	주 제
07:00~07:50	50분	기상 및 산책
08:00~08:50	50분	아침식사
09:00~10:20	80분	평등한 가족 문화 만들기
10:30~11:50	80분	환경친화적 영농
12:00~12:50	50분	점심식사 및 휴식
13:00~14:00	60분	종합정리 및 평가

<부표31> 「농촌형 양성평등 교육모형」 교육과정

○ 두레 만들기

총소요시간	90분
교육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기소개를 통해 교육참가자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li> <li>2. 자기소개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상호간에 관계를 증진한다</li> <li>3. 발표를 통해 교육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친밀감을 증진하고, 활발한 토론전개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삼는다</li> </ol>
교육내용 및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나에 대한 소개 -색도화지에 자기의 출생에 얽힌 이야기, 가족 속에서의 나, 성장기등을 요약해서 쓰거나 그림으로 표현하고 발표하기</li> <li>2. 결혼에 관한 이야기 -색도화지에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는지, 결혼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다른 사람에게 결혼에 대해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인지 등을 요약해서 발표하기</li> <li>3. 농업에 대한 이야기 -색도화지에 어떻게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농사를 하면서 괴로웠던 경험, 보람을 느꼈던 부분, 농업의 미래에 대한 생각 등을 요약하고 발표하기</li> </ol>
준비물	색도화지, 매직펜, 가위, 풀

○ 한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

총소요시간	60분
교육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재 우리나라 농촌의 당면문제에 대해 이해한다</li> <li>2. 농촌여성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점을 살펴본다</li> <li>3. 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다</li> </ol>
교육내용 및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촌에서 살면서 농사짓는 것에 대해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사례를 읽기자료에 제시하여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보기</li> <li>2. 그렇지만 어려움은 말로 다 할 수 있을까 -농촌문제 중 특히 농촌여성이 겪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살펴보기</li> <li>3. 농촌문제에 대해 정리해 보기 -아이들 교육문제, 농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에 대한 읽기자료를 읽고 실제 경험을 발표해 보기</li> <li>4. 그래도 농촌에서 농업을 지키겠다 -농업인들이 농촌에 대한 미래와 새로운 농업환경에 대한 희망과 자녀에게 농사를 물려줄것인가에 대한 읽기자료와 토론</li> </ol>
준비물	읽기자료

○ 평등한 가족문화 만들기

총소요시간	80분
교육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격검사지인 MBTI검사를 통해 나 자신과 배우자의 성격 유형을 안다</li> <li>2. 성격유형에 따른 성격특성을 이해한다</li> <li>3. 성격에 따른 행동유형을 이해하고 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한다</li> </ol>
교육내용 및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MBTI 특성 설명 성격검사지의 구성에 대해 설명한다</li> <li>2. 성격유형 설명 검사결과 16가지의 성격유형에 대해 설명한다</li> <li>3. 성격유형에 따른 성격 특성 설명 성격특성과 행동유형에 대해 설명한다</li> <li>4. 부부간의 갈등 유형 및 해결방안 모색 부부 갈등 유형과 그 유형에 따른 해결방안 설명 및 토론</li> </ol>
준비물	읽기자료, 성격검사지, 해설지, OHP자료

○ 평등한 부부

총소요시간	150분
교육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우리의 가족문화에 대해 생각해 본다</li> <li>2. 부부의 유형별 특성을 생각해 본다</li> <li>3. 가족간의 갈등양상과 해결방법을 생각해 본다</li> <li>4. 부부간 대화의 기술과 방법을 알아본다</li> </ol>
교육내용 및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부의 유형 -평등한 부부, 공평한 부부, 행복한 부부에 대해 생각해 보기</li> <li>2. 우리 가족문화 생각해 보기 -가족문화라는 배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 지식정보화사회로 흘러가는 강위에 떠 있다 -아버지 중심에서 부부중심으로 가족간 평등으로 -시집중심에서 양가중심으로 -남존여비에서 남녀평등으로 -대가족에서 단위가족으로</li> <li>3. 가족간의 갈등과 치유 -고부관계, 부부관계, 자녀관계, 동기간의 관계</li> <li>4. 부부의 일치 -가치관의 일치, 마음의 일치, 몸의 일치, 경제의 일치</li> <li>5. 부부간 대화의 기술과 방법</li> <li>6. 조별토론 -특정주제에 대한 역할극 -역할극 이후에 조별 토론</li> </ol>
준비물	읽기자료, 역할극 대본, 토론거리, 색도화지, 전지, 매직펜,스카치테이프

○ 지구환경의 위기와 대책

총소요시간	80분
교육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구환경의 오염실태와 전망에 대해 안다</li> <li>2. 자연친화와 환경존중의 중요성을 알아본다</li> <li>3. 환경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 본다</li> <li>4. 환경친화적 영농방법을 찾아본다</li> </ol>
교육내용 및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오염의 실태와 전망 슬라이드 자료를 통해 지구 환경 오염의 실태를 알아본다</li> <li>2. 친환경 농업의 실천 식생활, 농업, 경제활동, 의식 등의 친 환경적 구성</li> <li>3. 환경문제 이해의 방향 인간의 존엄성과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li> </ol>
준비물	읽기자료, 슬라이드 자료, 토론자료

### [부록 3]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응답자번호	조사원번호

## 농촌지역 양성평등 실현방안 연구

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여성정책 연구소에서는 전국의 농촌지역의 현실을 파악하고, 보다 나은 농촌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농촌지역의 양성평등 실현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농림부의 「여성농업인 육성방안」의 하나로 농림부로부터 정책연구비를 지원 받아 수행되는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이 조사는 농촌지역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기 위해 실시되는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셔서 질문에 성의껏 끝까지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농업정책을 수립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농촌지역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수립을 위하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7월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  
충남대학교 여성정책연구소

주 소	도 시(군)	면(동)	리 (번지)	부락
응답자성명		전화 번호		
면접 일시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분간)
조사원성명	(인)	지도원성명		(인)
면접 결과	___ 완료 ___ 미완료	코딩결과	___ 완료 ___ 미완료	

귀하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성 별 : \_\_\_\_ ① 남 \_\_\_\_ ② 여 \* 연 령 : 만 \_\_\_\_\_세
2. 혼인상태 : \_\_\_\_ ①미혼 \_\_\_\_ ②유배우 \_\_\_\_ ③이혼,사별,별거 \_\_\_\_ ④기타( )
3. 가 족 수 : \_\_\_\_\_명
4. 귀하의 가족주기는 다음의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_\_\_\_ ① 결혼 전 \_\_\_\_ ② 첫 자녀 출산 전  
\_\_\_\_ ③ 막내 자녀 취학 전 \_\_\_\_ ④ 막내 자녀 출가 전  
\_\_\_\_ ⑤ 막내 자녀 출가 후 \_\_\_\_ ⑥ 기타( )
5.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_\_\_\_ ① 무학 \_\_\_\_ ② 초등학교 중퇴 및 초등학교 졸업  
\_\_\_\_ ③ 중학교 중퇴 및 중학교 졸업 \_\_\_\_ ④ 고등학교 중퇴 및 고등학교 졸업  
\_\_\_\_ ⑤ 대학교 \_\_\_\_ ⑥ 기타( )
6. 귀하의 가족 형태는 다음의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_\_\_\_ ① 부부만 사는 가족 \_\_\_\_ ② 부부와 미혼 자녀 가족(부부가족)  
\_\_\_\_ ③ 조부모와 손자녀세대 가족 \_\_\_\_ ④ 노부모와 부부와 자녀(3세대 가족)  
\_\_\_\_ ⑤ 부모와 기혼자녀 가족 \_\_\_\_ ⑥ 혼자 사는 가족  
\_\_\_\_ ⑦ 기타( )
7. 귀하는 농사일 외에 다른 일을 하여 돈을 버십니까?  
\_\_\_\_ ① 예 \_\_\_\_ ② 아니오 (→ 8번으로)  
7-1) [돈을 버실 경우] 어떤 일을 하십니까?  
  
\_\_\_\_\_
8. 가구주는 누구입니까?  
\_\_\_\_ ① 남편 \_\_\_\_ ② 아내 \_\_\_\_ ③ (시)아버지 \_\_\_\_ ④ (시)어머니  
\_\_\_\_ ⑤ 할아버지 \_\_\_\_ ⑥ 할머니 \_\_\_\_ ⑦ 본인 \_\_\_\_ ⑧ 자녀  
\_\_\_\_ ⑨ 기타( )

9. 댁에서 실제로 생계를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_\_\_ ① 남편      \_\_\_ ② 아내      \_\_\_ ③ (시)아버지      \_\_\_ ④ (시)어머니  
 \_\_\_ ⑤ 할아버지      \_\_\_ ⑥ 할머니      \_\_\_ ⑦ 본인      \_\_\_ ⑧ 자녀  
 \_\_\_ ⑨ 기타(      )

댁에서 지으시는 농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10. 귀하께서 농사를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됩니까? \_\_\_\_\_ 년  
 \_\_\_ ① 식구 중 몇 명이 농사일을 하십니까? \_\_\_\_\_ 명  
 \_\_\_ ② 누구입니까? \_\_\_\_\_ , \_\_\_\_\_ , \_\_\_\_\_ (예: 아버지, 딸 등등)

11. 작년 1년 동안 지으신 농사는 다른 집 땅을 빌려 지은 것을 포함해 얼마나 됩니까? (다른 집에 빌려준 것은 제외하고 답해 주십시오)

논	밭	축 산				과수원	기타
		소 ( )마리	돼지 ( )마리	닭 ( )마리	기타:( ) ( )마리		
평	평	평	평	평	평	평	규모( )

12 지난 일년동안 댁에서는 논농사를 지으셨습니까?  
 \_\_\_ ① 예      \_\_\_ ② 아니오 (→ 13번으로)

12-1) [논농사를 지을 경우] 다음은 논농사에 관련된 일들입니다.  
 다음 작업을 맡아서 하는 것은 주로 누구입니까? 해당란에 √표 해주십시오.

	①주로 남자가 한다	②남녀가 비슷하게 한다	③주로 여자가 한다	④폼앗이로 한다	⑤폼을 산다.	⑥기타 (해당없음,모름)
① 논갈이				(남/여)	(남/여)	(      )
② 못자리				(남/여)	(남/여)	(      )
③ 모내기				(남/여)	(남/여)	(      )
④ 모때우기				(남/여)	(남/여)	(      )
⑤ 김매기				(남/여)	(남/여)	(      )
⑥ 비료주기				(남/여)	(남/여)	(      )
⑦ 농약살포				(남/여)	(남/여)	(      )
⑧ 벼베기				(남/여)	(남/여)	(      )
⑨ 타작				(남/여)	(남/여)	(      )
⑩ 기타(      )				(남/여)	(남/여)	(      )



13. 지난 일년동안 댁에서는 밭농사를 지으셨습니까?

\_\_\_ ① 예 \_\_\_\_\_ ② 아니오 (→ 14번으로)

13-1) [밭농사를 지을 경우] 다음은 밭농사에 관련된 일들입니다.

다음 작업을 맡아서 하는 것은 주로 누구입니까? 해당란에 √표 해주십시오.

	①주로 남자가 한다	②남녀가 비슷하게 한다	③주로 여자가 한다	④품앗이 로 한다	⑤품을 산다.	⑥기타 (해당없음, 모름)
① 밭갈이				(남/여)	(남/여)	( )
② 씨뿌리기				(남/여)	(남/여)	( )
③ 김매기				(남/여)	(남/여)	( )
④ 옮겨심기				(남/여)	(남/여)	( )
⑤ 비료주기				(남/여)	(남/여)	( )
⑥ 농약살포				(남/여)	(남/여)	( )
⑦ 수확				(남/여)	(남/여)	( )
⑧ 타작				(남/여)	(남/여)	( )
⑨ 포장				(남/여)	(남/여)	( )
⑩ 기타( )				(남/여)	(남/여)	( )

14. 지난 일년동안 댁에서는 하우스 농사를 지으셨습니까?

\_\_\_ ① 예 \_\_\_\_\_ ② 아니오 (→ 15번으로)

14-1) [하우스 농사를 지을 경우] 다음은 하우스 농사에 관련된 일들입니다.

다음 작업을 맡아서 하는 것은 주로 누구입니까? 해당란에 √표 해주십시오.

	①주로 남자가한다	②남녀가 비슷하게한다	③주로 여자가한다	④품앗이 로 한다	⑤품을 산다	⑥기타 (해당없음,모름 )
①하우스 설치				(남/여)	(남/여)	
②씨뿌리기				(남/여)	(남/여)	
③옮겨심기				(남/여)	(남/여)	
④김매기				(남/여)	(남/여)	
⑤비료주기				(남/여)	(남/여)	
⑥농약뿌리기				(남/여)	(남/여)	
⑦꽃가루 묻히기				(남/여)	(남/여)	
⑧순치기				(남/여)	(남/여)	
⑨대묶기				(남/여)	(남/여)	
⑩수확				(남/여)	(남/여)	
⑪선별				(남/여)	(남/여)	
⑫평소하우스관리				(남/여)	(남/여)	
⑬내다 팔기				(남/여)	(남/여)	





20. 다음 중 귀하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교육 활동이 있으면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활동에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현재 참여하고 있는 활동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활동
① 의식교육: 사회의식, 여성의식		
② 정치교육: 정치 참여, 지방자치, 조직 및 리더쉽, 통일문제		
③ 교양교육: 철학, 문학, 인간심리, 역사, 외국어, 컴퓨터 등		
④ 취미교육: 노래부르기, 공예, 그림그리기, 춤 등		
⑤ 생활문화교육: 식생활, 의생활, 주택관리, 실내장식 등		
⑥ 가족관계: 고부관계, 부부관계, 부모역할(자녀교육) 등		
⑦ 직업교육: 직업의식, 농사기술, 경영방식 등		
⑧ 보건교육: 건강, 위생, 성인병 예방 치료 등		
⑨ 환경교육: 공해, 쓰레기 문제, 자원활용 등		
⑩ 기타( )		
⑪ 없다		

21. 귀하의 맥에서는 농사에 관련된 다음 일들을 주로 누가 결정하십니까?

해당란에 √표 해주십시오.

	① 거의 남자가 결정	② 남자가 주로 하고 여자와 상의해서	③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	④ 여자가 주로하고 남자와 상의해서	⑤ 거의 여자 혼자서 결정	⑥ 기타 (해당없음, 모름)
재배 작물의 결정						
논이나 밭의 매매						
논이나 밭의 빌리고 빌려주는 것						
비료, 농약 구입						
농기계, 농기구구입						
영농자금 대부						
작목반이나 영농조합 가입						
농사일정						
품을 사는 것						
농산물 판매						
판매금의 용도결정						
기타( )						

가정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22. 귀하의 가정에서 남편은(남자일 경우 본인은) 가사일을 어느 정도 도와주십니까?

- ① 많이 도와준다                       ② 조금 도와준다  
 ③ 거의 도와주지 않는다               ④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  
 ⑤ 남편이 없다                           ⑥ 해당없음(혼자 사는 남성일 경우)

23. 귀하의 가정에서는 가사일을 하는데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정도를 소요하십니까?

	아내	남편	다른 가족 : _____
농번기	( )시간	( )시간	( )시간
농한기	( )시간	( )시간	( )시간

24. 귀하의 택에는 취학 전(초등학교 다니기 전) 어린이가 있습니까?  
\_\_\_ ① 있다 (→ 24-1번으로) \_\_\_ ② 없다 (→ 24-2번으로)

24-1) [있다면] 귀하께서 농사일을 나가실 때 그 아이는 누가 돌보니까?

\_\_\_ ① 배우자 \_\_\_ ② 놀이방이나 어린이집 \_\_\_ ③ 시부모  
\_\_\_ ④ 친정부모 \_\_\_ ⑤ 큰자녀 \_\_\_ ⑥ 혼자 내버려둔다  
\_\_\_ ⑦ 이웃 또는 친척 \_\_\_ ⑧ 기타( )

24-2) [없다면] 아이를 키우실 때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_\_\_ ① 있다 \_\_\_ ② 없다 \_\_\_ ③ 아이가 없다

※ 남편이 있는 여자분만 대답해 주십시오

25. 남편에게 가장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 때는 언제입니까?

\_\_\_ ①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지 못한다는 말을 들을 때  
\_\_\_ ②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말을 들을 때  
\_\_\_ ③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말을 들을 때  
\_\_\_ ④ 사회 물정, 시사 상식을 모른다는 말을 들을 때  
\_\_\_ ⑤ 다른 여자와 외모를 비교하는 말을 들을 때  
\_\_\_ ⑥ 의사결정에서 제외시킬 때  
\_\_\_ ⑦ 농사일·집안일을 잘 못한다는 말을 들을 때  
\_\_\_ ⑧ 기타( )

26. 다음은 가정에서 남녀 역할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각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 해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① 결혼한 여자는 친정보다 시택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				
②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				
③ 재산을 딸 아들 구별 없이 똑같이 물려주겠다.				
④ 가사일에는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				
⑤ 결혼한 남자는 처가쪽의 대소사를 자기집과 똑같이 챙겨야 한다.				
⑥ 여자의 본분은 자녀를 키우고 가사일을 돌보는 것이다.				
⑦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				
⑧ 학교에서 여학생들에게 전자제품 수리 등 기계·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찬성한다.				
⑨ 부부는 결혼 중 얻은 재산을 공동명의로 해야 한다.				
⑩ 결혼한 여자가 친정 부모를 모시는 것은 시집 식구에게 미안한 일이다.				
⑪ 여자가 직장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27. 귀하의 댁에는 컴퓨터가 있습니까?

\_\_\_ ① 있다(→27-1로)

\_\_\_ ② 없다(→27-2로)

27-1) [있다면] 컴퓨터는 누가 주로 사용하십니까?

\_\_\_ ① 자녀(→27-2로)

\_\_\_ ② 남편(→27-1-1로)

\_\_\_ ③ 아내

\_\_\_ ④ 가족모두 똑 같이

\_\_\_ 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

\_\_\_ ⑥ 기타( )

※ 남편이 있는 여자분만 대답해 주십시오

27-1-1 [남편이 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 그로 인해 남편에게 무시당한 적이 있습니까?

\_\_\_ ① 있다

\_\_\_ ② 없다







35. 귀하는 현재 생활 전반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 ) ①	대체로 만족스럽지 않다 ( ) ②	그저 그렇다 ( ) ③	대체로 만족스럽다 ( ) ④	매우 만족스럽다 ( ) ⑤
-------------------------------	--------------------------------	--------------------	--------------------------	-------------------------

농업, 농촌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36. 만약 귀하의 자녀가 농사를 짓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자녀가 없으시다면 있다고 가정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적극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적극 반대	모르겠다
아들일 경우					
딸일 경우					

37.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나라의 농촌 생활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훨씬 나아질 것이다 ( ) ①	약간 나아질 것이다 ( ) ②	똑같은 것이다 ( ) ③	약간 나빠질 것이다 ( ) ④	훨씬 나빠질 것이다 ( ) ⑤
---------------------------	---------------------------	---------------------	---------------------------	---------------------------

38. 귀하는 농촌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십니까?

- ① 농촌에서 계속 살기를 원한다                       ② 도시로 나가서 살고 싶다  
 ③ 도시로 나갔다가 다시 농촌에 들어와 살고 싶다  
 ④ 잘 모르겠다     ⑤ 기타 (    )

39. 다음은 현재의 농촌 문제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문항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 해주십시오.

	매우 심각하다	조금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① 여성이 농사일과 가사일을 모두 해야하는 것에 대한 이중 부담				
② 농산물 가격 보장과 소득 보장				
③ 농기계를 다룰 줄 모르는 점				
④ 농사 기술을 잘 습득하지 못하는 점				
⑤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이 없는 점				
⑥ 여성들만의 모임이나 여성을 위한 상담기관이 부족한 점				
⑦ 농촌의 남성 중심적인 의식과 성차별적인 문화				
⑧ 취미나 교양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및 활동이 부족한 점				
⑨ 자녀들의 교육 문제				
⑩ 건강 문제와 낮은 의료혜택				
⑪ 복지시설의 부족				
⑫ 농업·농민에 대한 사회적 무시				
⑬ 여성농업인의 고령화 문제				
⑭ 기타( )				

40. 귀하는 농가 도우미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_\_\_ ① 잘 모른다  
 \_\_\_ ② 들어본 적은 있으나 그 내용은 잘 모른다  
 \_\_\_ ③ 들어본 적이 있으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  
 \_\_\_ ④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_\_\_ ⑤ 기타( )





## [부록 4]

### 농촌지역 양성평등 실현방안 연구

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여성정책 연구소에서는 전국의 농촌지역 여성의 현실을 파악하고, 보다 나은 농촌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농촌지역의 양성평등 실현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농림부의 「여성농업인 육성방안」의 하나로 농림부로부터 정책연구비를 지원 받아 수행되는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이 조사는 농촌지역의 정책과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되는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셔서 질문에 성의껏 끝까지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농촌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농업정책을 수립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오니 정책수립을 위하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지는 표지를 포함하여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란을 빠지지 않고 채워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응답하신 질문지는 동봉한 반송용 봉투에 넣어서 **9월 30일까지**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0년 9월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  
충남대학교여성정책연구소

연락처: 충남대학교 유성구 공동 220 교육학과 임선희 교수

Tel: (042) 821-6529, 6341 Fax: (042) 822-9465

E-mail: shlim@cnu.ac.kr

1. 성별: 남 \_\_\_\_\_ 여 \_\_\_\_\_

2. 혼인상태: \_ ① 미혼 \_ ② 유배우 \_ ③ 이혼, 사별, 별거 \_ ④ 기타( )

3. 연령: 만 \_\_\_\_\_세

4. 귀하의 근무기관 및 직책을 적어주십시오.

① 근무 기관 \_\_\_\_\_

② 직책 \_\_\_\_\_

5.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여성들은 남성과 비교해서 농사일을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 ① 남성과 똑같이 일한다

\_\_\_ ② 남성이 훨씬 더 일한다

\_\_\_ ③ 여성이 훨씬 더 일한다

\_\_\_ ④ 모르겠다

6. 귀하의 근무지역의 여성들이 취업을 하려고 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 및 기술 훈련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7. 귀하의 근무기관에서 새롭게 개발하여 효과를 얻고 있는 특수한 여성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있다면 프로그램명과 그 내용을 간단히 기입해 주십시오.

\_\_\_\_\_

8. 농촌 여성의 정보화를 위한 귀하의 자치단체에서 마련되어 있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_\_\_\_\_

9. 소속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점적인 여성복지 관련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10. 가정내에서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 피해자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1. 농촌에서 여성이 살아가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 해주십시오.

	매우 심각하다	조금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① 여성이 농사일과 가사일을 모두 해야하는 것에 대한 이중 부담				
② 농산물 가격 보장과 소득 보장				
③ 농기계를 다룰 줄 모르는 점				
④ 농사 기술을 잘 습득하지 못하는 점				
⑤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이 없는 점				
⑥ 여성들만의 모임이나 여성을 위한 상담기관이 부족한 점				
⑦ 농촌의 남성 중심적인 의식과 성차별적인 문화				
⑧ 취미나 교양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및 활동이 부족한 점				
⑨ 자녀들의 교육 문제				
⑩ 건강 문제와 낮은 의료혜택				
⑪ 복지시설의 부족				
⑫ 농업·농민에 대한 사회적 무시				
⑬ 여성농업인의 고령화 문제				
⑭ 기타( )				



12.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나라의 농촌 생활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훨씬 나아질 것이다 ( )	약간 나아질 것이다 ( )	똑같은 것이다 ( )	약간 나빠질 것이다 ( )	훨씬 나빠질 것이다 ( )
①	②	③	④	⑤

13. 귀하의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여성농업인 정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각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필요성의 정도를 해당란에 √표 해주십시오.

	매우 필요함	필요함	보통	불필요함	전혀 불필요함
① 여성 농업전문인력 육성					
② 농가소득·재산에 대한 여성의 소유권 인정					
③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					
④ 여성의 복지시설 향상					
⑤ 여성농업인의 교육 참여 확대					
⑥ 임신·출산시의 일손 대책(농가 도우미)					
⑦ 기타( )					

14. 다음은 가정에서 남녀 역할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각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 해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① 결혼한 여자는 친정보다 시댁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				
②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				
③ 재산을 딸 아들 구별 없이 똑같이 물려주겠다.				
④ 가사일에는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				
⑤ 결혼한 남자는 처가쪽의 대소사를 자기집과 똑같이 챙겨야 한다.				
⑥ 여자의 본분은 자녀를 키우고 가사일을 돌보는 것이다.				
⑦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				
⑧ 학교에서 여학생들에게 전자제품 수리등 기계·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찬성한다.				
⑨ 부부는 결혼 중 얻은 재산을 공동명의 로 해야 한다.				
⑩ 결혼한 여자가 친정 부모를 모시는 것은 시집 식구에게 미안한 일이다.				
⑪ 여자가 직장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